2019 / vol. 24

무등문화
無等文化

無等文化
제 24 호
2019

光州廣域市北區文化院

光州廣域市北區文化院

2019

光州廣域市北區文化院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Tel. 062) 527-7701 Fax. 062) 527-7702
http://gjbukgu.kccf.or.kr

산 속에는 산이 없다

박 판 석

산을 보고자
산 속에 들어갔더니
산이 나를 지워 버렸다

생사를 초월하여 무엇이든 산은
그릇 속 작은 물방울처럼
산을 만들어 버리고야마는 습성을 갖고 있다

산을 직시하기 위해
산 속에서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이파리를 갉아먹는 애벌레가 되어
날개를 키운다

보다 높이 보다 멀리
바라볼 때 산은 비로소
아름다운 산이 되어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것을.

〈박판석 약력〉
〈시와사람〉 등단, 광주문학 올해의 작품상, 국제PEN광주문학상, 광주문학상 수상,
한국시인협회, 원탁시회 회원, 광주문인협회부회장
〈시집〉「새벽산길」,「도토리 열매 속에는 큰 산 하나 들어가 살고 있다」,「소년 오두산」 등

문화비전 선언문

Culture
Vision
Declaration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 문화 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의 전문적으로 적극 육성한다.

대한민국 228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북구문화원장
彌奉 오 동 오

문화 가족 여러분!

계해년(癸亥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문화원 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문화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이며, 여기에는 언어, 종교, 법, 도덕과 같은 규범 예술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문화 중 오랜 세월에 걸쳐 이어져 내려와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을 전통문화라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은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로부터 전해오는 다양한 전통 문화가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키지 않으면 전통문화가 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삶을 높인다면 문화 융성이 주민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독특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온 우리 민족은 문화와 삶이 분리 되지 않은 전통문화를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지역의 환경과 고유한 역사에 따라 우리의 문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다양하게 형성된 문화는 곧 우리 문화의 유구한 전통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 모두가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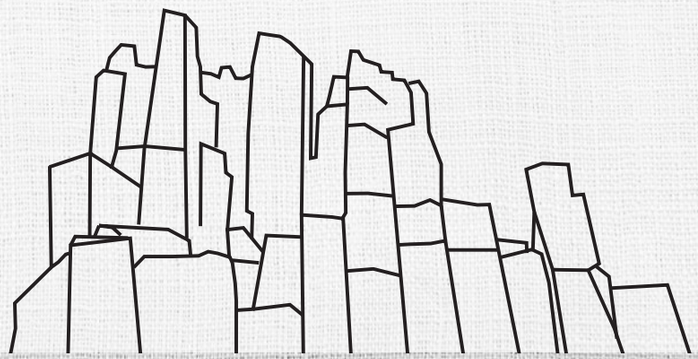
새해에도 우리 지역에 주어진 문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문화 가족 모두가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무등문화 제24호에 귀중한 옥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북구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문화 가족과 북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특히 북구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문 인구청장님, 고점례 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북구의회 의원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2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 인

북구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이어나갈 소식지인 무등문화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발전과 책자 발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오동오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1995년 첫발을 내디딘 북구문화원은 그동안 각종 문화행사와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내 문화시설 프로그램을 통합한 문화예술지도를 제작하고 주민을 위한 사회문화교실 운영하는 등 문화향유의 폭을 확대하며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무등문화 제24호』를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북구문화원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문화재와 인물,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현장 등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 예술인을 소개하고 해외문화탐방을 경험할 수 있는 유용한 발간지이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연구 자료와 문화 참여를 위한 소통창구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북구문화원이 지역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무등문화 제24호』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고 점 례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의장 고점례입니다.

북구문화원은 북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북구가 문화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 문화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발간되는 광주북구문화원의 〈무등문화 제 24호〉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발간을 위해 고심하고 애쓰신 오동오 북구문화원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와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문화원은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를 위한 활동과 박제된 전통이 아닌 현대에 살아 숨 쉬는 전통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는 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로 지역공동체의 뿌리와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매개체입니다. 지역고유문화의 보존·전승은 물론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교육활동 등 문화 창달을 위해 2019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북구를 위해 힘차게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북구문화원은 지역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향상에 일조하는 문화원의 활동과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북구의회도 북구의 역사와 문화들이 보존되고,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경험하는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많아지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민들이 〈무등문화 제 24호〉를 통해 북구의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2.

CONTENTS

vol. 24 2019년
Gjbukgu Cultural Center

04
발행인의 편지 / 북구문화원장
축 사 / 북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09
테마가 있는 문화풍경(화보)"2019년 북구문화원 행사"

17
문화현장 읽기 **북구문화원 "色" 다르다**
– 내고장 북구의 연혁 / (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
– 북구문화의 스토리텔링 / 이종철
– 우리마을 충효동 / 편집부
– 가사문화권 식영정 일원 / 편집부
– 가정생활예절 / 김중환
– 지리학의 근원 / 유덕종

105
특집 I **북구, 문화로 멀리 뛰기**
– 꽃잎과의 동행 "화전놀이의 유래" / 김정희
– 골드 Gold로 살기"황금씨앗으로 저물어가기" / 전 숙
– 중외공원에 다시 건립된 안중근의사 숭모비 / 노성태

117
특집II **해외 문화탐방**
– 잉카의 숨결을 따라 걷다 / 최희동

125
인터뷰 **북구의 예술인 탐구**
– 희망문화협동조합 임형준 이사장을 찾아서 / 서승현

129
북구문화원 프로그램 입상작
제25회 "무드리 그리기 · 글쓰기 입상자"작품

163
무드리 문예마당 **북구문화원 회원 초대석**
– 목련꽃 / 위무량
– 지나가는 계절 / 배병수
– 한시(漢詩) / 이덕재의 15인
– 호남천년고도목사골 나주문화 / 고창옥

COVER STORY

초가집과 돌담 / 문병오

- 광주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 전남미술대전 초대작가
- 광주 무등미술대전 초대작가
- 광주 매일신문 사진대전 초대작가
-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역임
- 현, 광주북구문화원 사진강사

題 號

「無等文化」는 李乙浩(전 국립광주박물관장) 博士 가 우리 고장의 母山이자 많은 역사유적을 안고 있는 「무등」 자체가 평민, 일반, 보통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진정한 문화운동의 철학 ·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제호로 명명 하였다. 제호의 글씨는 故 法珪 金 貞 姬 先生이 썼다. 현계 선생은 국전 초대작가, 광주시전 · 전남도전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무드리의 어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때 광주를 '무진', '무진주'라고도 했으나 '노지(奴只)'라고도 했다." 고 되어있다. 학자들은 이 시대의 '노지'란 말이나 '무진'이란 글자는 습지를 뜻하는 '무돌(물들)'이었을 것으로 본다. 같은 발음의 토박이 땅이름으로 전해지는 동구 계림동과 북구 중흥동에 걸쳐 있던 경양방죽 들 이름을 '무드리'라고 했으며 무등산 북쪽 산기슭 마을인 충효동 일대는 '무들 밑들'이라고 했다.

—광주 북구지 총론편

지역문화 교육사업 | 지역문화 행사사업 | 향토사조사 | 간행물 발간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2019년
북구문화원 행사

제24기 문화학교 및 제19기 사회교육강좌

- 기　　간 : 2019년 1월~12월
- 장　　소 : 북구문화원 강당, 평생학습관 2층 공연장
- 참가대상 : 일반인 (연간 참여인원 12,000여명)
- 강　　좌 : 판소리 · 민요교실, 고전무용, 풍수지리, 명심보감, 노래교실, 사진찍기, 오카리나(초,중급), 하모니카(초,중급), 생활영어 등 9과목
- 강의일정 : 과목당 주1~2회(12주)
- 주민들의 문화향수 신장 및 사회교육의 확대, 지적문화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복지실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

문화역사유적지탐방

- 기　　간 : 2019년 11월 5일
- 참가대상 : 문화가족 90명
- 답사코스 : 충남 천안시 일대(천안독립기념관→유관순열사사적지→이동녕선생기념관→조병옥박사 생가)
- 내　　용 : 역사기행과 관외유적지 탐방
- 문화역사유적지답사를 통하여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재인식 시킴과 동시에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업적과 정신을 받들어 자랑스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함.

제16회 가족과 함께하는 화전부치기와 민속놀이

- 기　　간 : 2019년 4월 27일
- 장　　소 : 문흥동 근린공원
- 참가대상 : 2인이상 가족. (42가족 400여명)
- 내　　용 : 1. 화전부치기, 2. 민속놀이 체험(제기차기, 투호 외)
- 옛 선조들이 삼월 삼짇날(답청절, 음력 3월 3일) 전후 들판에 나가 진달래꽃잎으로 전을 부치던 전통세시풍속 놀이인 "화전놀이"를 재현하여 가족 · 친지 · 동료들과 함께 꽃을 이용한 화전을 부치고 전통민속놀이도 즐기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가족간의 협동심, 우리 것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

찾아가는 청소년문화교실

- 기　　간 : 2019년 8월
- 장　　소 : 해당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교실
- 대　　상 : 관내 청소년, 어린이 280여명
- 사업내용 : 방학을 이용하여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전래놀이체험 및 우리가락을 교육
  1. 전래놀이 체험(비석치기, 딱지치기)
  2. 우리가락 배우기-민요배우기
- 스마트폰과 여러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래 민속놀이와 우리가락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를 이해하면서 노는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놀잇감을 직접 만들어 사용해 봄으로써 창의성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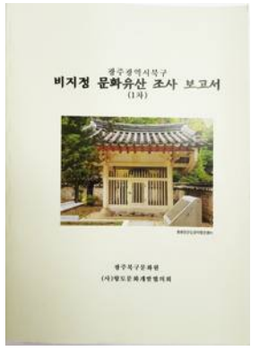
제25회 가족사랑 그리기 · 글쓰기 대회 공모전

- 기　　간 : 2019년 6월~7월
- 부　　문 : 그리기–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글쓰기–시, 산문
- 참가대상 : 초 · 중 · 고교(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누어 진행) 560명
- 내　　용 : 그리기 · 글쓰기 공모전
- 청소년들의 생각을 그림 및 글을 통해 담아보게 함으로써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함은 물론, 예술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 여가선용과 바람직한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함.

중외공원 문화예술지도 제작

- 기　　간 : 2019년 3월~5월
- 대상기관 : 5개 문화시설–국가 문화시설 1개소(국립광주박물관),
  시 문화 시설 4개소(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 사업내용 : 중외공원 일대 문화시설 위치 및 프로그램을 소개 하는
  문화예술지도 작성
- 북구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내 문화시설프로그램 홍보 강화를 통해 북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북구문화유적조사 – 유형문화유산 –



- 기　　간 : 2019년 5월~12월
- 조사지역 : 북구 2018년 조사지역(석곡동,오치동,삼각동, 두암동, 문흥동)을 제외한 9개동 조사
- 조사방법 : 1. 자료수집–해당 지역 자료 수집
  2. 현지조사–유적지 현장 조사
  3. 원고정리–조사 자료 원고 작성
  4. 종합정리–원고 종합정리 후 자료제작
-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비지정 문화유적(유형문화유물을 중심)을 조사 및 파악하여 미래세대에 전달 가치가 있는 문화역사 자료를 찾고 체계적으로 정리 수집하여 문화자원화함은 물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함.

2019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른이 행복무대

- 기　　간 : 2019년 9월 21일
- 공연장소 : 서울 어린이 대공원
- 공연단원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단원 13명
- 내　　용 : 전통무용(채선무) , 민요(함양양잠가, 진도아리랑)
-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의 어르신 공연 축제 행사인 2019 실버문화페스티벌 "어른이 행복무대" 참여 함으로써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연습을 통해 쌓은 실력을 무대에 올라 발휘함으로써 자신감 상승과 소속감, 유대감을 높이기 위함.

문화재청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사업"

- 기　간 : 2019년 3월~12월
- 활동장소 : 풍암정, 환벽당, 취가정, 충효동왕버들
- 활동회원 : 역사문화해설사회 동아리 회원 40명
- 내　용 : 관내문화재 등을 순회하면서 문화재 해설 및 모니터링 활동(주1회 월4회)
-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문화재 지킴이 운동을 확산시키고 문화재를 안내하고 보호, 해설하는 홍보요원 활동.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문화재 보호와 환경정화 활동"

- 기　간 : 2019년 3월~11월
- 장　소 : 환벽당 및 그 주변 문화재, 풍암정과 그 주변 및 원효계곡 하류 일대
-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0명
- 내　용 : 문화재보호 및 훼손방지, 관람편의 제공
-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201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버예술공연단지원사업”

- 기　간 : 2019년 3월~11월
- 장　소 : 북구 관내・외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0명
  (가요, 민요, 무용악기등 공연이 가능한자)
- 내　용 : 흘러간 대중가요, 판소리, 민요, 무용, 악기 등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소외된 노년층에게 제공
- 배　포 : 전국문화원, 전국문화원연합회, 각기관, 도서관
-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문화현장 읽기 | 북구문화원 “色” 다르다

– 내고장 북구의 연혁 / (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
– 북구문화의 스토리텔링 / 이종철 (교육학박사, 조선대학교사범대학 외래교수)
– 우리마을 충효동 / 편집부
– 가사문화권 식영정 일원 / 편집부
– 가정생활예절 – 김중환 (사단법인 한국전례원 광주북구지역원 원장)
– 지리학의 근원 – 유덕종 (북구문화원 풍수지리 강사)

내고장 북구의 연혁

(사)향토문화개발협의회

북구 연혁

1. 선사시대

광주광역시 북구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다. 구석기 유적으로 1993년 산월동(첨단기지)유적과 1996년 치평동과 매월동 유적이 확인되고, 신석기시대 유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의 주요 유적 · 유물로는 지석묘와 주거지, 기타 수습 유물이 있다. 지석묘는 충효동의 6기가 1978년 전남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에 의해 무문토기와 홍도편이 출토되었다. 주거지는 송암동, 운암동, 상무동, 신창동, 쌍암동, 월계동, 오룡동, 용봉동, 일곡동 등에서 발굴 확인되고 있다. 이 밖에 운암동에서 갈돌(연석)과 토기가, 우치동에서 토제어망추, 무문토기저부, 소뿔형 파수, 돌창, 석촉 등이 발굴되었다.

그리고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신창동 유적과 오룡동 유적이 있다. 1963년 서울대학교 발굴조사단과 1992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발굴 조사된 신창동 유적은 옹관묘와 함께 집단생활유적 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초기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오룡동 유적은 목포대학교 발굴조사단에 의해 수혈식주거지 23기와 초기철기시대의 구상유구가 확인되었다. 1981년 운암동 어린이대공원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의 수혈주거지가 확인됨으로, 선사시대에 이미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무대를 이루고 살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2. 부족국가시대

삼한 시대에 이 지역은 마한에 속한 곳으로 마한에는 54개 부족국가가 있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정인보, 신채호, 이병도는 지금의 진원면 일대에 구사오단국(舊斯烏旦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하고, 유창균은 지금의 평동 일대에 불운국(不雲國)이 있었던 것으로 비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몽룡은 구사오단국을 극락강 대촌천변 일대인 영산강 변으로, 비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부족 집단이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가지고 살았을 것으로 보아, 광주는 구사오단국의 치하에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삼국시대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으로 5방중 남방(南方)의 무진군(武珍郡)이라 대동지지는 기록하고 있으나, 여타 기록은 무진주(武珍州)인데 일명 노지(奴只)라고 한다로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 지금의 광주지역 안에 복룡현(伏龍縣)과 수천현(水川縣)이 지금의 광산구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는 백제시대에 남방의 관할인 무진군(州), 복룡현, 수천현의 행정구역에 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구는 무진군에 속하였다.

4.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3국을 통일하고, 677년(문무왕 17)에 무진도독(武珍都督)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도독을 파견하고, 757년(경덕왕 16)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국에 9주 5소경을 두면서 광주는 무주도독부(武州都督府)라 하고, 도독부 직할령 현은 현웅현(玄雄縣=未冬夫里縣 : 現 南平), 기양현(祈陽縣=屈支縣 : 現 昌平), 용산현(龍山縣=伏龍縣=古麻山縣 : 現 平洞, 本良, 三道)등 3개현이었으며, 당시 무주에 속한 군현은 1주 15군 43현으로 현재 전라남도 전 지역에 해당 된다. 따라서 광주가 지금의 도청 소재지가 된 것이다. 따라서 북구는 무주도독부에 속하였다.

5. 후3국시대

신라의 국력이 쇄약해지자 태봉과 후백제가 건국하게 되었다. 892년(진성왕 6)에 견훤(甄萱)이 무주에서 기병하여 무주를 점거하고 나라 이름을 후백제라 하였다. 따라서 광주는 나라의 도읍지가 되었다. 900년(효공왕 4)에 견훤이 무주에서 전주로 도읍을 옮겨 갔다.

936년(후백제 신검 1)에 후백제가 망하고 고려에 속했다. 이 기간에는 후백제에 속하였다.

6. 고려시대

918년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935년에 신라를 통합하고, 936년에 백제를 흡수 3국을 통일하고, 940(태조 23)년에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무주를 광주라 하였다.

938(성종 2)년에 광주에서 자사고을로 강등되고, 1075(목종 8)년 다시 해양현(海陽縣)으로 강등 되었다가 1259년(고종46)에 주로 승격 되고, 뒤에 광주목이 되었으나 1340(충선왕 2)년에 화평부(化平府)로 강등이 되었다. 1362년(공민왕 11)에 화평부를 무진부(茂珍府)로 고치면서 무(武)자를 쓰지 않고 무(茂)자를 쓴 것은 2대 혜종의 이름인 무(武)자를 피해서 였다. 1374(공민왕 23)년에 다시 광주목으로 승격되었다.

7. 조선시대

1430년(세종12)에 광주 사람으로 만호를 지낸 노흥준(盧興俊)이 광주목사인 신보안(辛保安)과 기생 소매(小梅)가 통음을 했다고, 목사를 구타한 사건이 발생하여 노흥준은 곤장 100도와 가산을 몰수하고, 변방으로 추방하는 한편 광주목을 무진군으로 강등 하였다. 1451년(문종 1)에 다시 광주목이 되었다.

1489년(성종 20)에 판관 우윤공(禹允功)이 어디에서 날아 온지 모르는 화살에 맞았는데 조정에서는 이 고을 사람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광산현(光山縣)으로 강등 하였다. 1501년(연산군 7)에 광주목이 되었다.

1624년(인조 2)에 광주사람인 원(愿)이 이괄의 난에 가담했다 하여 대역죄로 처단도고, 광산현으로 강등이 되었다. 1634년(인조12)에 광주목이 되었다.

1701년(숙종27)에 장희빈의 오라비 장희재의 첩인 숙정(淑正)이 광주사람이라 하여 광산현으로 강등 하였다. 1757년(영조 33)에 광주목이 되었다.

1869년(고종 6)에 사령인 김인성(金吝成)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광산현으로 강등이 되었다. 1871년(고종 8)에 다시 광주목이 되었다.

1895년 5월 1일 전국이 23부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나주부 관할 광주군이 되었다.관내의 면은 41개 면을 관할하였다.

1896년 8월 4일 13도제가 실시됨에 따라 23부제가 폐지되고, 전라남도 관찰부를 광주에 두게 되었다. 따라서 도청소재지가 되었다.

조선시대 북구에 속하는 행정 지명으로는 상대곡면(청풍동 망월, 화암동), 석저(保)면(충효, 금곡, 덕의동), 황계면(운암, 동림동), 천곡면(쌍암동), 기례방면(루문, 북동), 갑마(爾卞)보면(본촌, 용두, 지야, 신룡동), 석제면(양산, 일곡동), 삼소지면(대촌,오룡동), 우치면(생룡, 용전, 용강, 효령, 수곡, 태령동), 하대곡면(운정동 장운동), 서(경)양면(우산, 중흥동) 두방면(두암, 각화, 풍향동)와지(蛙只)면(문흥, 용봉, 오치, 삼각, 매곡동) 등이다.

8. 일제 강점기

1910년 9월 30일 도관찰부를 도장관으로 바꾸고. 관찰부를 도청이라 고쳤다.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대치 · 갈전면을 담양군에 이양하고, 함평군 오산면(현 임곡)을 광주에 편입. 15면 152법정 리를 관할하였다.

1931년 4월 1일 읍 · 면제 시행에 따라 광주면이 읍으로 승격이 되었다. 1935년 10월 1일 광주군을 광산군으로 고치고,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 독립함으로 지금의 보통시가 되었다.

9. 8 · 15 광복이후

1946년 4월 5일 일제의 잔영을 없애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로 법적 수속을 하지 않고 41정(町)을 47개동(洞)으로 바꾸었다. 1947년 8월 15일 제 1차로 개정한 동명을 폐지하고. 재차 개정하면서 가(街)와 동(洞)으로 통일. 41개 가 · 동이 되었다. (충장 · 금남로4가동회 이외는 1동 1동회로 됨) 1948년 4월 1일 41개 동회를 36개 동회로 개편하였다. 1949년 8월 14일 송정면을 송정읍으로 고치고. 광산군청을 광주 대의동에서 송정면 송정리로 옮기고, 나주군의 평동면, 삼도면, 본양면을 편입 1읍 14면이 되었다.

10. 대한민국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부를 광주시로 고쳤다.(1949. 7. 4. 법률 제32호)

1955년 7월 1일 서방면과 극락면의 운암리 동림리와 석곡면이 광주로 편입 되면서 석곡면의 덕의. 충효. 금곡리는 담양군 남면으로 넘겨주었다.

1957년 11월 6일 지산면과 담양군 남면 덕의리, 충효리, 금곡리가 편입되었으며(1957. 11. 6. 법률 제454호), 12월 02일 북구지역에 석곡출장소(충효 · 청옥 · 장운동)와 지산출장소(우치 · 본촌 · 삼소)가 설치되고, 1961년 3월 10일 석곡출장소가 북부출장소에 통합되었다.

1966년 1월 8일 효죽동에서 중흥동이 분동되고(시조례 제210호), 1970년 1월 1일 효죽동에서 풍향동이 분동되고, 1970년 6월 29일 효죽동을 우산동으로 개칭하였다.(시조례 제348호)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북구지역이 동구와 서구로 분할(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4호) 되고, 1979년 1월 1일 중흥동을 중흥1동 2동으로 분동(시조례 제844호)되고, 1979년 5월 1일 풍향동을 풍향1동 2동으로 분동(시조례 제866호)하였다.

1980년 4월 1일 북구청 개청(북구 중흥동 701-10번지. 10과 33계 19동)으로 동구지역이었던 중흥1동, 중흥2동과 석곡출장소관할인 우산동, 풍향1동, 풍향2동, 문화동, 서산동,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과 지산출장소 관할인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과 서구지역이었던 유동, 누문동, 북동, 임동, 동운동, 태봉동 등이 북구 관할이 되었다. 따라서 석곡, 지산출장소는 폐지되었다.

1982년 9월 1일 중흥2동을 중흥2 · 3동으로 분동하고, 동운동을 동운1 · 2동으로 분동(시조례 제1147호)하였다.

1983년 1월 4일 북구청사 이전(북구 운암동 94-7번지)하고, 2월 15일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부를 북구 오룡동으로 편입(대통령령 제11027호)하고, 10월 1일 태봉동을 신안동과 용봉동으로 분동하였다.

1985년 9월 23일 북구청사 이전(용봉동 239-2번지)하고, 11월 1일 문화동을 문화동과 두암동으로 분동하였다.

11. 직할 광역시 이후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전라남도에서 분리(1986년 5월 8일,법률 제3808호)되고, 1988년 5월 1일 북구가 자치구로 개청 (2국 2실 13과 1사업소 23동)되었다.

1989년 5월 15일 두암동을 두암1 · 2동으로 분동하였고, 1991년 4월 15일 북구의회 개원(의회사무국 신설)되었다.

1993년 12월 1일 동운1동을 동운1 · 3동으로 분동하였다.

1995년 1월 1일 광주직할시가 광역시로 명칭 변경(법률 제4,789호 1994. 12. 공포)되어 광주광역시 북구가 되었다.

1995년 3월 1일 문화동을 문화동과 문흥동으로 분동하고, 두암1동을 두암1 · 3동으로 분동하였다. 1996년 1월 9일 문흥동을 문흥1 · 2동으로 분동하고, 1997년 3월 1일 유동, 누문동, 북동을 중앙동으로, 풍향1동, 풍향2동을 풍향동으로, 동운3동을 운암3동, 동림동으로, 서산동을 서산동, 매곡동으로, 오치동을 오치1동, 오치2동으로. 동운1동을 운암1동으로, 동운2동을 운암2동으로 분동하고. 1998년 9월 21일 충효동, 청옥동, 장운동을 석곡동으로, 본촌동, 우치동, 삼소동을 건국동으로 하였고, 2003년 7월 7일 서산동을 삼각동, 일곡동으로 분동하고, 2013년 3월 18일 건국동을 건국동, 양산동으로 분동하였다.

북구문화의 스토리텔링

이 종 철(교육학 박사)
조선대학교사범대학외래교수

문화유산은 역사, 문화, 교육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빼놓을 수 없다. 즉, 문화유산관광, 지역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 기업의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지역문화유산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에는 지역민의 정서와 삶의 모습, 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사고의 틀이 여실하게 담겨 있다. 독특한 지역의 문화유산에 담긴 이야기는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가서 더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로도 재창조되어 무형의 지적 자산이 될 것이다.

"

지역문화유산 스토리텔링작업은 지역의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보존 활용하게 될 것

"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신화, 전설, 민화, 설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본 줄거리 외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삶의 양식이 변화되면서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유산의 이야기들은 지역민의 삶과 정서를 반영하면서 단절되지 않고 미래에도 진화될 것이다. 이렇게 진화된 자원들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변형될 수도 있고, 무형의 자산으로 진화될 스토리텔링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지역문화유산을 분석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문화유산 스토리텔링작업은 지역의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소중하게 보존 활용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품은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야하는 일이야말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역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일은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고 지역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될 것이기도 한다.

광주북구는 광주지역 문화유산의 약 60%정도 차지할 만큼 방대하여 광주문화유산을 이야기할 때 북구를 '약무북구 시무광주(若無北區 是無光州)라고도 말한다. 북구지역에 위치한 문화유산을 스토리텔링의 소스(source)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 8경중의 제 1경인 무등산이다. 무등산은 광주 북구, 화순 이서, 담양 남면에 접해 있다. 백제 때는 무진악(武珍岳), 고려 때는 서석산(瑞石山)이라 불렀으며 1,187m에 달하는 우람한 산이다. 무등산의 명물, 입석대와 서석대, 규봉은 기이한 암석들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어 무등산의 삼경三景으로 꼽힌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서석대는 저녁노을이 비치면 마치 수정처럼 빛을 발해 광주의 자랑이 됐으니 여기에서 '빛고을'이 유래했다.

무등산은 광주를 예향, 의향, 미향의 고장으로 키웠다. 무등산의 넉넉하고 아름다운 산세는 예로부터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불러 모았다.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무등산의 품에서 시를 짓고 무등산의 사계를 화폭에 담으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특히, 무등산 북쪽 담양의 지실마을 일대에는 조선시대 내로라하는 시인가객들이 모여 풍류를 즐기며 가사문학을 형성했다. 그 대표적인 곳이 환벽당과 식영정으로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 정철이 학문을 익히고 시를 읊었던 곳이다. 조선시대 3대 정원 중의 하나인 소쇄원에서는 양산보가 후학을 길렀으며 김덕령 장군의 원혼을 위로하고자 지은 취가정과 김

덕령의 동생 김덕보가 의롭지 못한 세상과 절연하고자 들어왔던 풍암정 등은 많은 풍류가객들의 가슴에 시심을 불러일으켰던 곳이다.

무등산 자락에는 의인들이 많았다. 왜구로부터 우리의 바다를 지킨 고려의 명장 정지 장군, 임진왜란 때 호남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던 제봉 고경명 장군, 용맹을 떨쳤던 충장공 김덕령, 정묘호란 때 큰 공을 세운 전상의 장군 등 무등산은 수많은 충의열사를 배출했다. 그 넋은 4 · 19 혁명과 5 · 18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국난 때마다 나라를 지킨 호국선열들이 많았다.

둘째, 삼밭실이다. 인삼을 재배했던 곳으로 알려지는 삼밭실은 공군부대가 주둔하며 옛 모습을 잃었으나 최근 원상이 훼손된 삼밭실 일대를 복원하는 사업이 착수되어 등고선 복원, 전통 수종 식수 등이 이루어졌다. 삼밭실은 무등산의 해발 800~900m 고원에서 자랐으니 산삼이 분명하다. 그런데 서 마지기의 밭에서 자랐다고 하니 인공재배를 했다. 광주시와 고산연구회가 편찬한 「광주의 전설」(1990년)에는 원효계곡에서 동쪽으로 꼬막재를 미처 못 가는 곳에 상당히 넓은 산삼밭이 있었다고 적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도 구한다는 최고의 약재, 산삼이 자라는 삼밭실은 서 마지기(약 600평 정도)에 산삼(동삼)이 자라고 있어 '삼밭실'이라 불렀다. 이곳 삼밭실 일대에는 김덕령의 전설이 곳곳에 서려 있다. 이를 삼전열적(蔘田烈蹟)이라 한다.

셋째, 환벽당, 풍암정, 취가정과 같은 누정문화이다. 환벽당은 정자와 연못 전후좌우로 송림과 죽림, 그리고 주변의 산들이 그림처럼 두르고 있어 환벽(環碧)이란 뜻 그대로 모두 푸른 빛으로 둘러싸여 청록색의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자연 풍광이 수려한 곳이다. 조선시대 나주목사를 지낸 사촌 김윤제(1501~1572)가 노년에 후학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한 남도지방의 전형적인 유실형 정자이다.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1호였으나, 2013년 11월 6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07호로 승격되었다. 정자와 연못, 송강 정철과 김윤제가 처음 만난 곳이라는 전설이 깃든 조대와 용소 등을 포함하여 명승으로 지정함으로써 소쇄원, 식영정과 더불어 옛 일동삼승(一洞三勝, 한 지역 안에 3개의 명승 환벽당 · 소쇄원 · 식영정이 있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가까이에 무등산 원효계곡의 계류가 흐르며 계곡 아래 증암천 주변에는 배롱나무가 아름다운 장관을 이뤄 자미탄(紫薇灘)이라 불렀다.

풍암정은 충장공 김덕령의 아우인 풍암 김덕보(1571~1627)가 세운 정자이다. 김덕보는 큰형 덕홍이 금산전투에서 전사하고, 작은형 덕령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이를 슬퍼하여 이곳에 정자를 짓고 도학과 경륜을 쌓으며 은둔생활을 하였다. 김덕보는 후학을 양성하며 여생을 이곳에서 마쳤다. 풍암정에 걸려있는 임억령과 고경명, 안방준 등의 시문은 그가 이곳에서 수많은 시인묵객들과 교류했음을 말해준다. 풍암정은 소나무 숲을 배경으로 시냇가 바위 위에 지어져 있다. 오른쪽으로는 풍암제가 있고 왼쪽으로는 무등산 마루와 함께 절경을 이루고 있다.

마르지 않는 계곡의 물도 풍암정을 아름답게 하는 빼놓을 수 없는 경치다.

취가정은 김덕령 장군의 후손들이 장군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은 정자이다. 정자의 이름은 김덕령 장군이 석주 권필이라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취시가를 읊었기 때문에 취가정이란 이름을 달게 된 것이다. 이런 깊은 뜻을 간직한 후손들은 장군이 넋을 위로하기 위해 무등산이 잘 조망되는 고향의 언덕위에 정자를 지었다. 취가의 의미는 술에 취하여 노래를 한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에 통한을 한 김덕령 장군을 추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내에는 설주 송운회의 현판이 걸려있고 문헌공 송근수의 정기와 후손 김만식의 상량문, 김덕령 장군의 시와 석주 권필의 화답시 및 주련(柱聯)이 있다.

6.25 전쟁으로 정자가 불에 타고 1955년에 후손인 김희준과 문중에서 다시 중수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넷째, 무등산 북쪽 기슭 원효봉 아래 위치한 원효사이다. 송광사의 말사이며,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전해 온다. 대웅전 맞은편 누각인 회암루에 오르면 가까이는 노송과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는 의상봉, 의상봉의 오른쪽에 우뚝 솟은 윤필봉, 멀리 정상인 천왕봉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와 장관을 이룬다.

경내 무등선원에는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만수사 범종이 있다. 이 범종은 숙종 36년 담양 추월산 만수사에서 만든 것을 1954년 대웅전을 중건하고 옮겨왔다.

무등선원에서 동쪽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곳에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제 제7호로 지정된 동부도가 있다. 모양은 팔각 원당형으로 기단부나 옥개석의 조각으로 보아 조선중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도에는 용, 다람쥐, 새, 쥐, 거북이 등의 동물이 새겨져 있어 특이하다.

원효계곡 일대의 경관을 표현한 '원효팔경'이 예부터 구전되고 있다. 무등명월(無等明月), 서석귀운(瑞石歸雲), 삼밭열적(蔘田烈蹟), 원효폭포(元曉瀑布), 원효모종(元曉暮鐘), 의상모우(義湘暮雨), 안양노불(安養老佛), 만치초적(晩峙草笛)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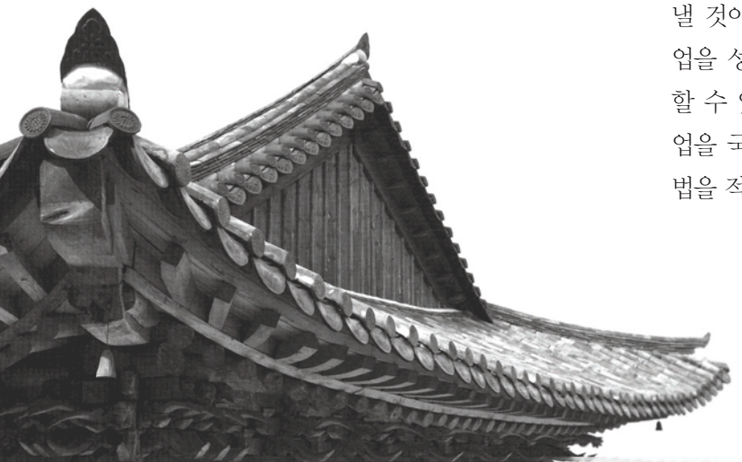
다섯째, 충효동 왕버들과 정려비각이다. 충효동의 유래는 왕버드나무와 벗하고 있는 '충효동 정려비각'에서 찾을 수 있다. 정려비각 안에는 '정려비'와 '정묘어제윤음正廟御製綸音'이란 현판이 있다. 윤음은 임금의 명령으로 요즘으로 치면 법령과도 같은 것이다. 내용인즉슨, 정조가 김덕령 형제와 김덕령의 부인 흥양 이씨의 충, 효, 열을 기려 마을에 충효리라는 이름을 하사한다는 것이다. 김덕령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사했으며 그의 형 덕홍 또한 임란에 참여했다가 고경명 장군과 함께 금산전투에서 전사했다. 김덕령의 부인 흥양 이씨는 왜군에게 붙잡히자 왜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느니 자결하겠다며 추월산에서 순절했다. 이러한 집안 내력을 들은 정조는 뒤늦게나마 김덕령과 그의 집안 사람들의 충절을 기려 마을에 충효동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때문에 1788년부터 지금까지 이 마을은 충효동으로 불리고 있다. '김덕령 나무'라 불리는 충효동 왕버드나무는 위정자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원통한 그의 몸짓의 표현이다.

여섯째, 배재이다. 배재는 충민사와 충장사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백토가 많아 '백토재'라 고도 한다. 배재에는 김덕령과 그의 가족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현재 배재에 있는 김덕령 장군의 사당, 충장사가 바로 그것이다. 충장사에도 김덕령장군의 고조할아버지와 고조할머니의 전설들이 전해오고 있다.

일곱째, 충효동 도요지이다. 충효동 요지는 무등산 북쪽 계곡에 넓게 펼쳐져 있는 가마터로 충장사에서 광주호로 가는 길의 금곡마을 일대에 있다. 충효동 요지는 무등산 자락에 있으니 땔감이 풍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 또한 다소 불편이 따르긴 했지만 영산강까지만 이송하면 한양으로 운송이 편리했다. 충효동 요지가 있는 금곡(金谷)마을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쇠골마을'이다. 실제로 옛날에는 이곳을 '쇠골'이라 불렀다. 금곡동에는 김덕령 장군이 무기를 만들던 제철유적지인 '주검동'이 있다. 또한 광주 북구 금곡동 금곡마을 주변에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도자기를 만들던 가마터가 여러 곳 발견되었다. 그중 2호 가마터를 복원하여 보호각 안에 전시하고 있다. 출토 유물은 분청사기가 대부분이며 백자와 청자가 그 다음이다.

위에 제시한 장소들을 토대로 북구의 스토리텔링 작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낸다면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상승시키고 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각 지역의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역문화콘텐츠사업을 국가기간 산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때 가능할 것이다 .



편집부

동명의 유래〈전문가의 견해〉

충효동(忠孝洞) 본래 광주군 석저면의 지역으로서 성안 또는 성내, 성촌이라 부르다가, 조선 제22대 정조가 선조 때의 충신 · 충장공 김덕령 장군이 생장한 곳이라 하여 충효리로 사명하여 불린 이름이다.

닥메(柚山)마을

닥메 마을은 광주호에서 소쇄원으로 가는 길목의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다. 마을 뒤편으로는 무등산의 지류인 금산이 마을을 두르고 있는 아늑한 마을이다.

마을의 연혁

- 청동기 시대: 충효동 성안마을 7기의 고인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 통일 신라 시대: 개산사 석등 명문을 보면 서기 891년 이일대 이름을 석보저였다
- 조선 시대: 이 지역은 광주군 석보면에 속했다. 당시 이곳에 이촌, 본촌, 성촌, 평촌, 서림촌, 신촌이 있었음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평초, 북촌, 충효리의 각 일부는 충효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

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 마을의 유래

닥메마을은 마을 뒤산의 모습이 닭의 모양을 닮아서 닭뫼라고 하였다고 한다. 닭뫼가 차츰 와전되어 닥메라고 불리워졌으며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유산(柚山)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에 처음으로 터를 잡은 사람은 인천 서씨로 중종 때 앞 마을인 담양의 지실마을의 서당 훈장으로 왔다가 이 곳을 잠깐 들렸는데 마을에 들어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 마을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

- **홍정자:** 마을 옆으로 지금의 논 중간에 서 있는 나무로 과거 그 옆에서 농사를 짓던 홍씨라는 농부가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홍정자라고 불리워진다.
- **옥 배미:** 평뭇들 동쪽애 있는 논으로 서마지기 인데 옛 평무고을의 옥터였다고 하여 옥 배미라고 한다.
- **구시 시암:** 평뭇들 북쪽에 있는 샘으로 구시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구시시암이라고 한다.
- **꾀꼬리봉:** 산의 형세가 꾀꼬리모양을 닮아서 꾀꼬리봉이라고 한다.
- **함충제:** 꾀꼬리가 벌레를 물어가는 형상을 한재를 함충제라고 한다.
- **금다리:** 닥메 서쪽에 있는 다리로 김윤제가 갚진 돌로 놓은 징검다리라고 하여 이를 금다리라고 한다.
- **금다리 보:** 금다리 옆에 있는 보를 금다릿보라고 한다.
- **금다리 소:** 금다리 밑에 있는 소를 금다릿소라고 한다.

▶ 마을에 있는 민속신앙

- 농요 농번기에 마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던 상사소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마을 어르신들 한 두분만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상사소리

어허어어 상사뒤여
서마지기 논배미 다되어가니
어허어어 상사뒤여
가세 가세 어서나 가세
우우우우 상사뒤여
정원택(닥메마을,72세)

- **무속신앙:**

닥메마을과 인접해있는 이웃마을인 담안마을,동림 마을, 버성골마을을 평촌이라고 부르는데 평촌에 속해 있는 마을은 당산제를 공동으로 지냈다. 평촌의 당산제는 12당산으로 매년 당산제를 지내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낭비라는 견해가 있어서 해방이후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당산제를 지낼때는 12당산 모두에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으며 제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동림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음식들은 참여한마을 주민들이 고루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이때 먹은 떡을 액맥이떡이라고 하여서 이 떡을 먹으면 그 해에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 **민속놀이:**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낸 후에 걸궁을 하여서 마을의 공동자금을 모았으며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또한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을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줄다리기를 하였으며 아낙네들은 그네뛰기를 하면서 보냈다고 한다.

- **전설:**

영감 바우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 공을 들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여 많은 아낙네들이 이곳에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런데 7여년 전에 홍수가 나서 바위가 뒤집혀서 그 이후에는 이 바위에 공을 들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 **민속놀이:**

해마다 명절 또는 정월 대보름에 마을 뒷산 고목에 그네를 달아서 아낙네들이 널뛰기를 하면서 보냈으며 대부분의 남자들은 걸궁을 하면서 마을의 안녕을 빌었으며, 농악놀이를 하면서 마을의 공동의식을 가지게 하 였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농악놀이는 계승되어서 마을에 경사나 명절에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이끌고 있다.

- **계:** 부모님 또는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의 젊은이들의 공동으로 만든 위친계 가 50여년전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계는 마을의 애경사를 담당하고 있다.

▶ 마을에 있는 공동시설

- **유산각:** 예전에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 휴식처가 되었으며 정보를 나누고 마을의 공동회의 장소였던 유산각이 있었으나 6.25동란 시기에 불에 타서 유실 되어서 현재 이 마을에는 유산각이 없다.
- **우물:** 예전에는 이 마을에는 우물이 없었으며 마을옆의 냇물이 깨끗하여 이 시냇물을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우물은 근래에 판 것으로 현재는 상수도의 보급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담안 마을

담안마을은 광주호에서 담양군 남면으로 가는 도로로 2Km쯤 가면 오른쪽으로 다리가 보이는데 이 다리가 김윤제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유명한 금다리이다. 이 다리를 건너서 안쪽으로 20여분정도 더 가면 담안 마을이 나온다.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평초, 북촌, 충효리의 각 일부는 충효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마을의 유래

예전에 이 마을의 주변은 큰 장이 섰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곳 장은 주위로 담을 쌓아올려서 경계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담안이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이 시장의 담장 안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르다가 차츰 마을을 이루게 되어 이 마을을 담안 마을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처음으로 이 마을에 터를 잡은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이 마을이 시장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기 때문일 것이다.

마을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

- **항아리 배미:** 논의 모양이 항아리를 닮아서 항아리 배미라고 불리워졌다.
- **복치 배미:** 엎드린 꿩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복치 배미라고 불리워졌다.
- **진정자:** 논 가운데 있는 귀목나무로 논 주인인 진씨가 심었다고 하여 진정자라고 불리워졌다.
- **매봉:** 사창등 남쪽에 있는 산으로 매 형국을 하고 있어서 매봉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 **금산:** 마을 측면에 있는 산으로 금이 나올 산이라고 해서 금산이라고 불리워졌다.

마을의 민속신앙

- **농요:**

  농번기에 힘든 농사일에 가락을 맞추어 소리를 하면서 흥을 내어서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 마을에서 불리워진 농요로는 상사소리, 밭노래 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사라져서 잊혀지고 있는 형편이다.

- **무속신앙:**

  담안마을과 인접해있는 이웃마을인 닥메마을,동림 마을, 버성골마을을 평촌이라고 부르는데 평촌에 속해 있는마을은 당산제를 공동으로 지냈다. 평촌의 당산제는 12당산으로 매년 당산제를 지내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낭비라는 견해가 있어서 해방 이후부터 지내지 않고 있다. 당산제를 지낼 때는 12당산 모두에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으며 제물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동림에 있는 우물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음식들은 참여한마을 주민들이 고루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이때 먹은 떡을 액맥이떡이라고 하여서 이 떡을 먹으면 그해에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 **민속놀이:**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낸 후에 걸궁을 하여서 마을의 공동자금을 모았으며 한해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또한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을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줄다리기를 하였으며 아낙네들은 그네뛰기를 하면서 보냈다고 한다.

- **계:** 마을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마을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위친계가 50여년 전에 조직되어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다.

마을에 있는 공동시설

- **우물:**

  50여년 전에 만들어진 우물로 두레박을 이용하여 물을 길렀던 두레박샘으로 예전에 이 마을에 유일한 식수였다 근래에 들어와서 마을뒷편에 공동상수도를 설치한 후부터는 이 우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평촌도예공방**

  1998년 12월에 건립된 곳으로 충효동 도요지와 광주시에 의해 특산 단지로 지정되었다고 한다. 이 곳에서는 도자기를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이 지방의 도자기 문화를 알리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예가들의 공동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다.

동림(東林)마을

예전의 평촌 마을의 으뜸가는 마을로 광주호에서 담양군 남면으로 가는 길목의 오른편에 있는 금다리를 건너서 윗쪽으로 조금만 더가면 닥메마을이 나오는데 여기서 20여분 더 올라가면 동림마을이 나온다. 마을 뒤로는 금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는 전통적인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평초, 북촌, 충효리의 각 일부는 충효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개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마을의 유래

동림 마을은 꾀꼬리가 많아서 자주 마을의 동쪽 수풀에서 꾀꼬리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그래서 동쪽 수풀에 꾀꼬리가 앉아 운다고 하여 동림마을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한다. 이 마을에 처음으로 터를 잡은 사람은 400여년전에 연일 정씨가 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마을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1

- **서틀바우:** 무등산 꼭대기에 바위가 서있다고 하여서 서틀바위라고 한다.
- **평뭇들:** 산골짜기에 넓은 들이 있다고 하여서 평뭇들이라고 한다.
- **금산:** 마을 뒷산으로 금이 나온다고 하여 금산이라고 불렀다.

기타로 천명둑, 동리보, 매봉산, 닭맷똥산, 장안봉 등이 있다.

마을의 민속신앙

- **농요:** 예전에 농번기에 농사일의 고단함을 덜하기 위하여 농요를 지어서 부르면서 농사일을 하였다. 이 마을에서 예전에 불리워졌던 농요로는 상사소리, 논맷소리, 밭맷소리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없어서 농요의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
- **무속신앙:** 닥메, 동림, 버성골, 담안마을을 예전에는 평촌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평촌에 속해 있는 마을이 연합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당산제도 역시 평촌연합으로 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당산은 평촌에 분포되어 있는 12당산으로 12당산에 모두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차츰 쇠퇴하여서 해방 전까지는 버성골에 있는 할머니 당산과 할아버지 당산에게 해방 전까지는 제사를 지냈으나 해방 이후부터는 전혀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 **민속놀이**

정월 대보름에 농악을 치면서 마을의 흥을 돋구었으며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을 사람들이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였다고 한다. 아낙네들은 고목에 그네를 달아서 그네뛰기를 하였다고 한다.

- **전설:** 마을을 가기 위해서는 광주호 상류에서500m쯤 충의교육원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으로는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이다리가 금다리가 있고 그 밑에는 금다리보가 있다. 이 다리를 금다리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내려온다. 김덕령 장군의 작은 할아버지인 사촌 김윤제가 북촌에서 부자로 살았다. 김윤제는 건너편 식영정에 자주 왕래하기를 즐겼는데 다리가 없어서 늘 불편하였다. 결국 다리를 놓으려는 결심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 돌로 다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정성들여서 다리를 다듬어 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얘기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데 김윤제는 돈이 너무많아서 돌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걸어다닌다는 잘못된 예기로 소문이 나돌아서 결국은 모략을 당했던 것이다. 이후에 조정에서 소문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림까지 내려와서 소문이 잘못되었음을 판명되었다. 그 이후로 김윤제는 다리를 헐고 그 돌들로 밑에 보를 막아서 가뭄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게 되어 이 금다리는 서민의 다리가 되었다.
- **계:** 옛부터 계승되어온 위친계가 있으며 마을 청년들의 친목회인 금산회와 북구의 농악 발전과 친목을 위한 모임인 농악 예문회가 있으며 매년 마을 주민들의 의해서 11년째 돌아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한다고 한다.

마을에 있는 공동시설

- **유산각:** 마을의 유일한 공동 휴식처였던 모정이 있었으나 심한 훼손으로 3년전에 철거되어 현재는 그 형태도 남아 있지 않다.
- **우물:** 20년전에 만들어진 우물이 있으나 지금은 상수도의 보급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버성골(友聲)마을

광주에서 담양 창평을 지나 담양군 남면과 충의 교육원으로 연결되는 포장된 도로를 따라 광주호 상류에서 50m쯤 충의 교육원 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으로 금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건너서 산쪽으로 올라가면 버성골 마을이 나오며 동림마을과 인접해 있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이 마을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축산과 비닐 하우스를 통한 작물로 소득을 높이고 있다.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평초, 북촌, 충효리의 각 일부는 충효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

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 마을의 유래

해마다 5~6월이면 뒷산의 꾀꼬리가 벗을 찾아 울어대는 마을이라고 해서 버성골이라고 하였으며 한자로 표기하여 우성(友聲)마을이라고도 한다. 버성골 마을은 약 400여년전에 정철의 후손인 연일 정씨가 처음 터를 잡았다고 전해진다.

▶ 마을에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

· **황새바위:** 버성골의 앞쪽에 있는 산의 형국이 날개를 펼친 학모양이라고 하여서 황새바위라고 한다.

기타 금산 ,황새고라실, 황새모퉁이, 우렁바위등이 있다

▶ 마을의 민속신앙

· **농요:** 예전에는 우리 농부들에게는 특별한 오락이 없었던 시절이었지만 힘든 농사일에 가락을 맞추어서 농요를 부르면서 농사일을 하던 지혜가 있었다. 이 마을에서도 농요가 불리워졌는데 상사소리, 밭소리 ,풀맷소리가 있었으며 풀맷소리는 마을 어르신의 일부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풀맷소리〉

우야자 허이~ 허이
간다 간다 내가 두나를 간다
허이~ 허이
우야자 허이 ~허이

· **무속신앙:** 평촌의 당산제를 공동으로 지냈음
· **민속놀이:** 평촌의 민속놀이 참고
· **전설**

마을 앞산의 형국이 날개를 펼친 학의 형을 하고 있으며 산 앞쪽에 있는 우렁이 모양을 닮은 우렁바위가 있는데 학이 우렁이를 쪼으리고 노려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 **계:** 30대부터 50대까지의 청년들이 친목을 목적으로 조직되어 마을의 애경사를 이끌고 있는 금산회가 있다.

▶ 마을에 있는 공동시설

· **마을회관:** 평촌의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다. 매달 이 곳에서 열리는 반상회를 통해서 평촌의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환벽 마을

환벽마을은 광주호 상류에 있으며 담양군 남면에서 충효교를 지나면 곧바로 도로변 왼쪽으로 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이 환벽마을이다. 이 마을의 주변은 조선시대 가사문화권의 중심으로 취가정, 식영정, 소쇄원, 독수정등 여러 정자가 분포되어 있다. 이 마을에는 유명한 정자인 환벽당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5가구가 살고 있는데 연일 정씨 4가구가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농사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

▶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평초, 북촌, 충효리의 각 일부는 충효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 마을의 유래

환벽마을의 주변은 가사문화권으로 조선시대의 여러 정자가 산재되어 있다. 이 마을에도 환벽당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의 주변으로 푸른 대나무가 많아서 벽처럼 정자를 두르고 있어서 환벽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은 이 환벽당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환벽마을이라고 불리워졌다. 이 마을에 처음으로 형성한 사람은 원래는 성안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성안에서 이 곳으로 이주하여 이 마을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 마을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

· **환벽당:** 조선시대 김윤제가 지은 정자를 말한다.
· **용소:** 예전에 사촌 김윤제와 정철이 처음으로 만난 곳이라고 전해지는 창계천에 있는 소를 말한다.

▶ 마을의 민속신앙

· **농요:** 예전에 우리의 농부들은 힘든 농사일을 가락에 맞추어서 흥을 곁들여서 농사를 지었다. 이때 불리워진 소리를 농요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도 상사소리, 논맷소리,

밭맷소리등이 불리워졌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마을도 거의 농요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잊혀져가고 있었다.

· **무속신앙:**

성안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에 매년 정월 대보름에 연합으로 당산제를 지낸다. 마을의 당산제는 이웃마을과 연대하여 해마다 성황리에 당산제를 지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어짐에 따라 점차 쇠퇴하여 구색만 갖추는 정도로 최근까지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북구청의 사라져가는 당산제의 보존을 위하여 성안 마에 당산제를 어려움 없이 지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어서 다시 당산제에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사라져가던 당산제에 활기가 생겼다고 한다. 이곳의 당산 나무는 마을 입구 모정 곁에 있는 수령이 500여년되 귀목나무였으나 오래전 벼락을 맞은후 없어져 버렸고 지금의 당산나무는 그 옆에 새로 가지를 친것이라고 한다. 정월 초사흘날 열리는 마을회의에서 제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회의하는데 제관과 화주도 이날 뽑는다. 제관과 화주등이 뽑혀지면 이날부터 제를 지낼때까지 금기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특히 화주는 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궂은곳을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자주 가면 안되었으며 갈때마다 목욕을 해야했기 때문에 음식도 조금만 먹어야 했고, 부부가 잡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 당산제의 비용은 예전에는 마당밟이를 통해 거둔 자금으로 洞畓을 마련하여 이 곳에서 나온 소출로 당산제를 지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산나무와 마을입구, 제관, 축관, 화주댁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았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농악도 어우러져서 참여하였다. 이러한 당산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북구청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보조해주어서 해마다 당산제를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 **계:** 성안마을과 공동으로 조직된 계가 운영되고 있다.

· **민속놀이:** 성안마을과 명절이나 큰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합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전설**

이 마을앞 언덕에는 환벽당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환벽당은 조선시대 김윤제가 관직에서 물러나 정자를 지어놓고 학문을 하던 곳으로 어느날 환벽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정자앞 창계천의 용소에서 용이 꿈틀거리고 놀고 있는 것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김윤제는 하도 신기해서 창계천으로 가보았다. 그곳 용소에서 나이어린 정철이 멱을 감고 있었다고 한다. 한눈에 정철의 용모와 비범함을 알아본 김윤제는 그에게 학문을 가르쳤으며 정철이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었다고 한다. 용소는 아직까지도 창계천에 남아있다.

마을에 있는 누, 정

· **환벽당**

광주호 상류인 창계천가에 있는 언덕위에 있는 정자로써 인조때 사촌 김윤제가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 그의 고향인 이곳에서 죽림이 우거져서 운치가 있는 이 자리에 별장으로 지은 건물이다. 사촌 김윤제는 1501년에 충효동에서 태어나 1528년 진사가 되고 이후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교리겸 춘추관등 홍문관교리,나주목사 등을 지냈다. 이 환벽당밑 창계천에는 송강 정철과 사촌 김윤제가 처음 만났다는 전설이 용소가 있다. 환벽당 주위로는 조선시대 가사문화권의 중심을 이루는 곳으로 독수정, 취가정, 소쇄원, 식영정등이 자리하고 있다. 환벽당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이 정자 주위에 푸른 대나무가 많아서 벽처럼 두르고 있다고 하여 환벽당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수리(水里)마을

광주호 상류에 위치해 있는 충효교에서 충장사로 가는 길목의 도로변 오른편으로 위치해있다. 성안마을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는 30여가구의 주민들이 살고있으며 광산 김씨를 위주로 하는 여러성씨가 어우려져 산성촌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포도나 토마토 등 비닐하우스 작물을 많이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광주호와 가사 문화권 명소를 끼고 있어서 요식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평초, 북촌, 충효리의 각 일부는 충효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마을의 유래

수리(水理)마을은 예전에는 마을이 개의 형국을 닮아서 술리(술리)마을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하나 정확한 근거는 없다 다만 술리마을이 점차적으로 와전되어 수리마을로 불리워졌다고 한다. 이 마을에 처음 터를 잡은 성씨는 광산 김씨로 충장공 김덕령의 후손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을뿐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다.

옛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지명

· **죽배미:** 흉년 밥그릇이라고 불리워졌던 논으로 아무리 큰 흉년에도 이 논에서 많은 곡식이 나와서 이 논에서 생산된 곡식으로 흉년을 무사히 넘길수 있었다는 논을 죽 배미라고 한다

· **흉년밥그릇:** 죽 배미의 다른 이름을 말한다.

기타 맞밭둘등이 있다.

마을의 민속신앙

· **농요:** 예전에는 밭맷소리, 논맷소리, 상사소리등이 불리워졌으나 지금은 마을의 연로한 어르신들만이 기억하고 있을뿐 거의 잊혀지고 있다.

밭맷소리

못다멜밭 다멜라다
금봉채를 잃고나가네
노래불러 유녀랄게
행실이 곧고 곧여야 유녀라네

목화따는 소리

사래질고 장차 밭에
목화 따는 저 큰애기
겉눈은 감고서 속눈은 떴네

보리롱 보리롱
미영 짜서 무명배나서
입고 살았네

물레돌리는 소리

물레야 자세야
배뱅뱅 돌아라
이웃집 도련님 밤이슬 맞는다.

· **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위친계와 자활계가 있어서 마을의 애경사나 중요한 행사를 이끌고 있다.

마을의 공동시설

· **우물:**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공동 우물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형태도 남아있지 않고 있다.

· **유산각:** 40여년전에 건립된 건물로 예전에는 이곳애서 농번기의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던 곳이었으며 행사 때마다 이곳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쉬는 유일한 휴식처로 그 역할을 감당해왔다. 최근에는 그러한 역할이 많이 감소했으며 여름에만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 **마을회관:** 15년 전에 건립된 건물로 마을의 중요한 회의가 대부분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석저(石底)마을

석저 마을은 무등산의 북쪽 기슭에 위치하며 마을 옆으로 돌계곡이라는 계곡이 흐르고 있으며 광주호와 접해있다. 예전에는 충효마을이나 금곡보다 더 규모가 컸던 마을로 80여호가 살았으나 1970년대 초에 광주홍가 생기면서 마을 입구쪽 부분이 광주호에 수몰되어 지금은 20여가구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교통편으로는 광주호에서 충장사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광주호 주변을 따라 뒷편으로 나있는 도로를 따라 20여분 걸어들어가면 지대가 낮은 마을이 보이는데 이곳 마을이 석저마을이다.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본촌 덕의리 각 일부는 덕의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마을의 유래

이 마을의 주변에는 돌이 많아서 마을 어디에서나 돌을 볼 수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부르는 이름이 돌과 관련된 석제, 석보, 돌밑이라고 불리워졌다. 흔히 지금은 돌밑마을을 한자로 표기한 석저(石底)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마을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는 약 300여년 전으로 광산 김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20여가구로 최씨, 김씨, 박씨, 이씨등이 어우려져 살고 있다.

마을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

· **열시 배미:** 논이 길어서 열시 배미라고 불리워졌다.

· **갈모 배미:** 모자(갈모)를 닮은 논을 말한다.

· **말리봉:** 산의 높이가 높아서 만리까지 보인다는 산의 봉우리를 말한다.

기타로 뒷골, 북당산, 데실제, 고가메등이 있다.

마을의 민간신앙

· **무속신앙**

· **당산제:** 이 마을에는 마을 입구에 귀목나무 2그루가 있는데 윗당산고 아랫당산으로 구분된다. 석저마을의 당산제는 정월 대보름에 지내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당산제는 마을의 어른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며 제물은 마을의 깨끗한 사람을 뽑아서 준비하게 하였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부정을 막기위하여 화장실도 안가기위해 당산제 당일까지 몇일동안 소량의 음식을 먹는가 하

면 날마다 목욕재기하는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한다. 당산제 몇일전부터 마을 입구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서 부정을 막았다고 한다. 당산제가 끝나면 마을입구의 당산독에 당산제에 사용되었던 금줄을 쳐놓는다. 현제에도 당산제를 지내고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차츰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고 한다.

- **농요:** 이곳 마을에는 밭맷소리, 상사소리등이 불리워졌으나 현재는 거의 잊혀지고 일부 상사소리만 마을 어르신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상사소리

에헤라 농부들
잘도 잘도 헌다
허~허 농부들
잘도 잘도 헌다
요참에는 쉬어하세
에헤라 농부들
가락도 맞게 잘도 허네
에헤라 농부들
요참에는 쉬어하세

- **계:**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위친계가 있어서 이계를 통해서 마을의 친목을 다지며 마을의 중요한 행사를 이끌고 있다.
- **민속놀이:** 정월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 왔으며 당산제를 지낼때는 농악을 치며 마을의 결집을 도모하였으며 당산제를 지내고 나서는 시암굿과 마당굿을 하여서 마을의 공동자금을 모았다. 이곳의 당산제와 시암굿은 현재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누,정

- **광산 김씨 제각:** 광산 김씨 문중에서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세웠다.

마을에 있는 공동시설

- **모정:** 1968년 2월 9일 건립되었고 당시 건립자금은 마당굿을 통해서 마련했다고 한다. 1975년에 지붕을 슬레이트로 개량하였고 1980년대 초에 기와로 교체하여 현재에 이를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 모정도 마을 입구 시멘트로 포장된 넓은 광장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 마을의 회의나 경사스러운 일등 명절때마다 흥겨운놀이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다.
- **우물:** 옛부터 사용되어온 돌샘이라는 우물이 있다. 이 샘은 마을 옆으로 시원스럽게 흐르는 돌계곡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우물은 석간수로써 현재까지도 마을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당산제에도 이 돌샘물을 떠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북촌(北村)마을

광주호 상류쪽에서 담양 남면으로 가는 도로변 오른편으로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북촌마을이며 마을옆에는 환벽당이 있는 환벽마을이 있으며 마을 뒤로는 성안마을과 인접해 있다.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평촌, 북촌, 충효리의 각 일부는 충효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마을의 유래

무등산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 마을이 북촌을 향하고 있다고 하여 북촌마을이라고 했다고 알려져왔다.북촌 마을에 처음으로 터를 잡은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단지, 이 마을은 현재 광산 김씨의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다.

옛부터 마을에 전해 내려 오는 지명

- **기와 배미:** 예전에 이 곳에서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현재 충효분교앞의 논)
- **옥 배미:** 이 곳에 예전에 감옥이 있었다고 한다.
- **맞바우:** 금다리 봇물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 **칠성바우:** 맞바위 안에 칠성바위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광주호로 수몰되어 버렸다 한다.

기타로 백간당등의 지명 등이 전해내려오고 있다.

마을의 민속신앙

- **무속신앙**
- **당산제 :**

성안마을의 당산제를 공동으로 지내고 있다. 마을의 당산제는 이웃마을과 연대하여 해마다 성황리에 당산제를 지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어짐에 따라 점차 쇠퇴하여 구색만 갖추는 정도로 최근까지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북구청이 사라져가는 당산제의 보존을 위하여 성안 마에 당산제를 어려움 없이 지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어서 다시 당산제에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사라져가던 당산제에 활기가 생겼다고 한다. 이곳의 당산 나무는 마을 입구 모정 곁에 있는 수령이 500여년되 귀목나무였으나 오래전 벼락을 맞은후 없어져 버렸고 지금의 당산나무는 그 옆에 새로 가지를 친것이라고 한다. 정월 초사흘날 열리는

마을회의에서 제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회의하는데 제관과 화주도 이날 뽑는다. 제관과 화주등이 뽑혀지면 이날부터 제를 지낼때까지 금기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특히 화주는 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궂은곳을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자주 가면 안돼었으며 갈때마다 목욕을 해야했기 때문에 음식도 조금만 먹어야 했고, 부부가 잡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 당산제의 비용은 예전에는 마당밟이를 통해 거둔 자금으로 洞䄅을 마련하여 이 곳에서 나온 소출로 당산제를 지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산나무와 마을입구, 제관, 축관, 화주댁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았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농악도 어우려져서 참여하였다. 이러한 당산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북구청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보조해주어서 해마다 당산제를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 **민속놀이:** 이 마을에도 예전에는 여러 가지 민속놀이가 행해졌지만 그 중 대표적인 민속놀이는 농악놀이가 있다. 농악은 정월 초하룻날까지 농악을 하였다고 한다.
- **계:** 성안마을과 연대하여 조직된 위친계가 있다. 이 위친계가 마을의 애경사나 주요 행사를 이끌고 있다.

마을에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누,정

- **취가정**

광주호옆 산록에 소재하고 있다. 건립동기는 조선 명장인 충장공 김덕령이 모함을 받아 한이 맺혀서 권석주시인의 꿈에 나타나서 술에 취하여 하소연을 하며 시를 읊었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고 김덕령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의 후손인 난실 김만식이 1890년에 이 정자를 지었다 이건물은 6.25때 불에 타서 소실된 것을 1955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마을의 공동시설

- **우물:** 마을의 공동우물이 있었으나 6여년전에 메워버리고 현재는 각 가구마다 상수도의 시설이 되어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 **충효분교초등학교:** 광주시 북구 충효동 529-2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연혁:

1946. 10. 6 청풍국민학교 금곡분교 개교
1954. 5. 1 청풍북국민학교로 승격
1958. 4. 6 광주 충효국민학교로 개명
1996. 3. 1광주 동초등학교 충효분교로 격하

성안(城內)마을

광주호에서 잣고개를 넘어 무등산옆을 돌면서 내려가는 광주호 상류에 위치하며 또한 담양군 고서면에서 화순군 북면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에는 식영정, 환벽당등이 있으며 마을 앞으로는 광주호가 펼쳐져있어서 절경을 이룬다. 대부분의 주민이 충장공의 후손들인 광산김씨가 살고 있으며 충장공과 관련된 유적도 잘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수령이 500여년된 왕버들나무 3그루가 충효동 동사무소앞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는 대부분 광산 김씨가 살고 있는 광산 김씨의 자작일촌을 이루고 있으며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평촌, 북촌, 충효리의 각 일부는 충효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마을의 유래

이 마을은 산으로 둘러쌓여 있어서 마치 성의 안쪽에 있는 마을처럼 되어 있다고 해서 성안 또는 성내마을, 안터마을이라고 불리운다. 조선 정조때 충장공 김덕령의 출생지로 22대 정조가 1788년 충장공과 그의 부인 홍양 이씨의 충절을 기려 충장리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마을의 성촌시기는 500여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마을에 처음으로 터를 잡은 사람은 노씨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알려지지 않았다. 단지 광산 김씨가 조선초기 서창에서 옮겨와 살았으며 현재는 광산 김씨가 주로 살고 있으며 17대에 이른다.

마을에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명

- **맛바우:** 마장이 있었다는 곳을 말한다.
- **앤구부:** 왼쪽으로 구부려졌있는 논을 앤구부라 불리워졌다.
- **우무실:** 성안에 있는 들을 우무실이라고 불리워졌다.
- **송곳 배미:** 논의 모양이 송곳을 닮아서 송곳배미라고 불리워졌다.

기타로 동림보, 사용보, 상창들등이 있다.

마을의 민속신앙

- **농요:** 예전에 우리의 사회는 농경사회였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농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나갔다. 농업을 중시하고 해마다 농번기에 농악을 동원하여 가락에 맞추어서 소리를 하며 큰 행사처럼 모내기를 하고 논의 풀을 매었다. 이때 하던소리를 농요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서 불리워졌던 농요로

는 상사소리, 논매소리, 풍장, 밭매소리등이 있었다. 현재는 거의 잊혀져서 기억하는 사람은 일부 마을의 어르신들 뿐이었다.

· **무속신앙**

· **당산제:**

해마다 정월 대보름에 당산제를 지내왔으며 당산제를 지내는 목적은 오곡의 풍년과 마을 사람들을 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성안 마을의 당산제는 이웃마을과 연대하여 해마다 성황리에 당산제를 지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적어짐에 따라 점차 쇠퇴하여 구색만 갖추는 정도로 최근까지 지내왔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북구청의 사라져가는 당산제의 보존을 위하여 성안 마에 당산제를 어려움 없이 지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어서 다시 당산제에 마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사라져가던 당산제에 활기가 생겼다고 한다. 이곳의 당산 나무는 마을 입구 모정 곁에 있는 수령이 500여년되 귀목나무였으나 오래전 벼락을 맞은후 없어져 버렸고 지금의 당산나무는 그 옆에 새로 가지를 친것이라고 한다. 정월 초사흘날 열리는 마을회의에서 제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회의하는데 제관과 화주도 이날 뽑는다. 제관과 화주등이 뽑혀지면 이날부터 제를 지낼때까지 금기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특히 화주는 금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궂은곳을 피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자주 가면 안돼었으며 갈때마다 목욕을 해야했기 때문에 음식도 조금만 먹어야 했고, 부부가 잡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았다. 당산제의 비용은 예전에는 마당밟이를 통해 거둔 자금으로 洞畓을 마련하여 이 곳에서 나온 소출로 당산제를 지냈다.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당산나무와 마을입구, 제관, 축관, 화주댁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을 막았으며, 제사를 지낼 때에는 농악도 어우려져서 참여하였다. 이러한 당산제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전부터 북구청에서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보조해주어서 해마다 당산제를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한다.

· **민속놀이:** 이 마을은 이웃마을과 어우려져서 당산제를 지내면서 농악놀이를 하였으며 농악을 통해서 주민들과 이웃주민들의 공동의식이 생겨서 더욱 친밀해졌으며 마을 아낙네들은 널뛰기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연띄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곳의 농악은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 위주로 농악에 대해서 관심을 고조시켜서 지금은 저녁마다 마을 회관에서 모여서 농악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 **전설**

· **김덕령의 태몽이야기 :**

1566년 3월 어느 봄밤이었다. 이 마을 김붕섭씨 집에선 부인 남평반씨가 실꾸리를 감으면서 길쌈하는 아낙네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골짜기를 스쳐오는 맑은 바람에취해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에 큰 범이 느닷없이 반씨의 품속에 들어와 안기지 않는가! 부인은 조금도 두려움 없는 얼굴로 범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범은 물지도 않고 고양이처럼 다소곳했다. 부인은 눈을 뜨고 생각해 보았다. 이상한 꿈이었다. 그때 마침 중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오왔다. "우리집 양반이 돌아오시니 오늘은 이만 길쌈을 거둡시다." 반씨 부인의 권유에 여인들이 모두 일어섰다. 밖에서는 남편의 헛기침 소리가 두어번 뜨락을 울렸다. 여인들이 가고난 후 여느때 같으면 사랑으로 들어야 될 남편이 안방 문을 열었다. "웬일이셔요. 오늘은.....?" "부인이야말로 왜 그리 놀라오?" "실은 조금 아까 호랑이 꿈을 꾸었어요." "허, 이 집안에 장군 나겠구만!" 남편의 서슴없는 익살에 반씨부인은 후딱 두볼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반씨부인은 곧 선 하품을 하고 몸이 피로해짐을 느꼈다. 몇 달전의 호랑이 꿈이 태몽이었음을 깨달은 반씨부인은 몸을 정결히 하고 음식도 가리는 한편 종들에게도 말도 조심히 하는 등 범절에 마음을 쏟았다. 1567년 12월 29일 저녁에 반씨부인은 드디어 아이를 낳았는데, 이때 닭이 홰를 치면서 새벽을 알렸고 산파가 더운물로 아기의 몸을 씻어 산모곁에 뉘어 놓으면서 사내아이라고 귀뜸해주었다. 이윽고 전갈을 하기 위해 하인들이 횃불을 밝혀들었다. 그들은 사랑채로 가다가 호랑이 두 마리가 뜨락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질겁을 하였다. "아이구머니" 하는 종들의 다급한 소리. 그 소리에 잠자던 붕섭어른과 손님들까지 문을 열고 뛰어 나왔다. 그들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런데 더욱 괴이한 것은 두 호랑이가 이내 어슬렁 어슬렁 뒷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붕섭어른은 "산신령이 내집에 산고가 있는 것을 아시고 무사한가 지켜보도록 호랑이를 보내신게 틀림없소....." 하고 말하였다. 과연 두 호랑이는 개, 돼지 따위 가축 한 마리 해치지 않고 순순히 사라진 것이다.

· **김덕령의 어머니의 관한 이야기 :**

김덕령의 어머니가 그를 뱃을 때의 일이다. 김덕령의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잡아 먹힐팔자였다. 어느날 김덕령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늙은 중 하나가 나타나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나는 중이 아닙니다. 호랑이입니다. 나는 이제 저기 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자를 잡아 먹고 사람으로 다시 환생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십시오." 하고서 재주를 세 번 벌떡 벌떡 넘고나서 남산만한 큰 호랑이가 되어 밭으로 달려왔다. 호랑이는 밭 주위를 뛰어다니면서 돌다가 다시 재주를 세 번 넘고 다시 중이 되어 지나가는 사람에게로 와서 "암만해도 저 여자를 못 잡아 먹겠는데요. 밭으로 들어갈려고 하면 불칼이 밭 둘레를 삥 둘러싸 뛰어 들어갈 수가 없게 하는군요. 오늘은 시각을 놓쳐서 나는 사람으로 환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지 가버리고 말았다. 김덕령의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팔자였는데 명산의 정기를 탄 김덕령이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천지신령이 불칼을 보내 뱃속의 김덕령을 살린 것이다.

· **계:** 마을의 위친계가 있어서 위친계를 통해서 전통적인 효예절과 경로예절등이 계승되어오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마을의 중요한 애경사를 담당하고 있다.

마을에 전해내려오는 비문 · 입석

· 충효리 정려비각

기념물 제 4호로 조선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마을 앞에 위치해 있다. 충장공 김덕령 장군과 그의 처 홍양 이씨와 그의 형 덕홍과 아우 덕진등 일가족의 충효열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가.1792년에 건립된 건물로 이 후 몇차례에 중수를 걸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정려비는 1788년 정조가 직접 비를 세우라고 지시했으며 충효라는 마을의 이름까지 하사하였다는 점과 건축양식이 18c말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서 문화적인 가치가 큰 비각이다.

· 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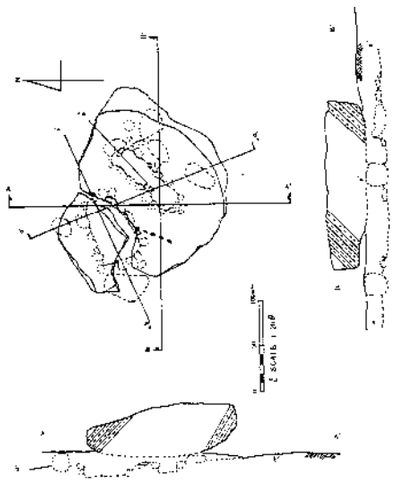
선사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충효동 고인돌로부터 동쪽으로 300m 거리인 광주호 끝부분에 조그마한 구릉위에 높히2m의 크기로 세워져있다. 입석의 형태는 끝이 뾰족하게 생겼으며 이 곳의 입석은 墓標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마을에 전해내려오는 기념물(유물 및 유적)

· **보호수:** 500여년된 귀목나무 3그루가 마을 중앙에 있다.

· **시지정 기념물:** 충효동 왕버들

시 기념물 제16호로 1989년 3월 20일에 지정되었다 약 수령이 500여년 된 것으로 추정되며 광주호 동쪽 광주호와 충효마을 사이의 도로변 오른쪽에 위치한 왕버들나무는 버들과에 딸린 갈잎 큰키나무이다. 충효동 왕버들은 3그루가 모두 광주시 나무로 지정되어 있는데 원래는 일송 일매 오류라 하여 마을의 상징이였다고 하나 지금은 왕버들나무 3그루만 남아있어서 소나무와 매화나무, 버드나무2그루를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충효동 고인돌 (1호 支石墓 巨石 高敞型(碁盤型)입니다)

· **고인돌:** 창계천가에 형성된 충적평야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고인돌의 7기중 1호는 송강의 성산별곡에 언급되고 있는 부엉바위라고 새겨져있는 바위이다. 충효동 고인돌은 7기가 동서로 열을 이루어 분포하고있으며 이는 창계천의 흐름과 같은 방향이다. 이 곳에서 출토된 유물로는 민무늬 토기조각과 붉은 간토기조각과 숫돌2점과 간화살촉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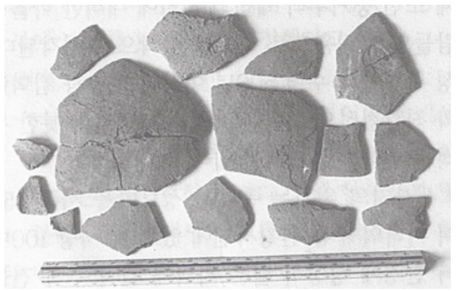
· **말무덤:** 예전에는 지금의 모습에 2배이상 큰 상태였다고 한다. 예전부터 이 마을에서는 말무덤이라고 불러왔으며 주위로는 논이 둘러져있으며 광주호로 흐르는 개천옆에 있다. 출토된 것으로는 연질토기조각 2점이 발견되었다.

마을에 있는 공동시설

· **우물:** 김덕령장군의 부친 때부터 있던 샘으로 샘 주위로 흙이 둘러싸여서 자연적으로 제방이 형성된 샘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는 매몰되어 샘터만 남아있다.

· **현장민원실:** 1998년 9월 21일 충효동이 석곡동으로 편입되면서 충효동 동사무소가 충효동 현장민원실 개칭되었다.

· **관방유적**



충효동 성지는 성안마을을 중심으로 그 외곽을 둘러싸고 반원형 모양으로 축조되어 있다. 지리적으로는 북위 35°11′,동경 127°0′에 해당되며 성안마을 동남북을 둘러싸고서 토석혼축으로 축조 되어있다. 현재 남아 있는 성의 총 길이는 약 1km 정도이나 성벽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곳은 없다. 그러나 성돌을 비롯하여 기단석 당시의 건물지에서 사용된 된 듯한 와편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후대에 와서 교란이 매우 심하게 되어 있다. 성지에 사용된 석재는 광주호로 유입되는 냇가의 할석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네모가 난 각진 무사석 같은 돌은 볼 수 없다.

성의 축조 방법은 서의 내외측을 돌로 쌓고 가운데는 흙을 채우는 협축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곽의 초석을 석심으로 먼저 쌓고 그 위에 토석을 적절히 혼합하여 축조하였다. 그리고 성벽도 자연구릉을 적절히 이용했기 때문에 성벽 축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의 총 길이는 1km 내외이며 남아있는 곳의 최대 높이는 4.5m, 폭 2~3m정도이다. 이 성지는 이웃하고 있는 환벽당 과 관련보다도 이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와편들을 살펴 볼 때 조선 중기부터 왜적의 침입에 대비한 마을 사람들의 보민용으로 축조된 성곽으로 생각된다. 성 주변에는 수령 500년 이상된 백송과 김덕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려 사당을 비롯한 유적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선사지의 위치는 충효동 성모마을 서쪽 450여 미터의 구릉 완경사면에 있으며, 사방 100미터 반경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부속 건물지와 함께 와편 및 자기편들이 산재해 있어 상당한 규모가 큰 사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중심 건물지의 규모는 길이 50m, 폭 20m, 높이 1.5m 내외이며 방향은 서남향이다. 축대는 막돌 허튼층 쌓기 형식이다. 여기에서 수습된 와편 중 "癸巳…禪寺明一造"의 명문이 보이고 있어 이 사지의 명칭이 선사임을 알 수 있는데 원효사 발굴 때도 와편에 「明一」이란 명칭이 나오고 있어 원효사와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습 유물로는 와편, 토기편, 청자편 및 분청사기들이

출토되고 있으며 주변에 부속건물지도 있다.

산장(山莊)마을

무등산 등성이에 형성된 마을로 한적한 산골이었던 이 곳은 산장로가 놓이고 이듬해 산장호텔이 지어지면서 광주 시민의 휴식처가 되었다. 산수동에서 산장로를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이곳에 식당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무등산의 아름다운 형태가 주위에 펼쳐져 있는 곳이다.

마을의 연혁

- 1914년 4월 1일 조선총독부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석저면 원촌, 서촌, 이치(배재)리 상대곡면 화암리 일부는 금곡리가 각각 되어 광주군 석곡면에 속했음.
- 1935년 10월 1일 광산군 석곡면 충효, 금곡, 덕의리가 됨 광산읍이 광주부로 승격될 때 광주군은 광산군이 됨.
- 1955년 7월 1일 담양군 남면 충효,금곡, 덕의리가 됨.
- 1957년 12월 2일 담양 남면에서 다시 광주시 석곡 출장소 충효동이 됨. 122동을 51개동으로 축소하고 석곡, 지산, 서창, 대촌의 4개 출장소를 설치함.
- 1961년 3월 10일 북부 출장소 관할이 됨 중부, 동부, 남부, 지산, 대촌, 서창의 8개 출장소제 실시.
- 1973년 7월 1일 구제 실시에 따라 석곡출장소 충효동은 동구 관할이 됨.
- 1980년 4월 1일 동구 관할의 석곡출장소 석곡동은 신설된 북구 관할이 됨.
- 1986년 11월 1일 광주시가 광주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주직할시 북구 충효동이 됨.
- 1998년 9월 21일 장운동, 충효동, 청옥동이 통합항여 석곡동이 됨.

마을의 유래

산장마을은 근래에 형성된 상가촌과 그 위의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원주민 마을로 나뉘어져 있다. 원주민 마을은 광주시가 생기기전에 최초로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여서 원주민 마을이라고 하였다는 설도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다. 원주민 마을은 이곳애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원효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동구였으며 원효사가 생길 때 주민들이 하나둘 몰려와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원효사와 같은 시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마을에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지명

- **누에봉:** 누에같이 생긴 산의 봉우리를 말한다.
- **의상봉:** 의상대사가 공부를 했다는 굴이 있는 산의 봉우리를 의상봉이라 부른다.
- **까치봉:** 까치의 머리를 닮은 산의 봉우리를 까치봉이라 부른다.
- **시루봉:** 떡 시루를 닮은 산의 봉우리를 말한다.

기타 감나무골, 삼바실, 주검동, 꼬막재, 늦재, 발암재,토끼봉 등이 있다.

마을의 민속신앙

- **무속신앙:**

정월 대보름에 걸궁을 하였으며 장승제를 지냈다고 한다. 식당촌이 형성된 마을 입구로 들어서면 마을 왼쪽으로 장승이 서있는데 이 장승에 매년 정월 대보름에 장승제를 진낸다고 한다. 제사는 상가의 번영과 마을의 안정과 평안을 기원하며 온갖 정성을 기울여 지냈으나 장승이 많이 훼손되어서 광주시에 보조를 1999년에 신청했다고 한다

- **전설**

신선대 바위:

지금의 마을옆의 골짜기에 몇가구가 살았는데 이 곳에 살던 나뭇꾼이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웬 할아버지 몇분이 바위 밑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 나뭇꾼은 그 장기를 두는 것이 하도 재미있어서 구경을 하다가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랐다고 한다. 이윽고 구경을 하던 사이 해가 기울어 날이 저물어 버렸다 그때가 되서야 집 생각이 나서 집에 서둘러 갔는데 집에 가보니 이 나무꾼의 3대째의 후손이 살고 있었으며 구경하던 그 시간이 3대째의 세월이 흐른것 임을 깨닭았다. 그래서 나뭇꾼은 그 때의 노인들이 신선들이었다는 것을 깨닭았다고 전해진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그때 그 신선들이 장기를 두던 바위를 신선바위라고 불리워졌다고 한다.

의상봉의 의상대사 :

무등산의 많은 봉우리중 하나로 마을앞으로 높다랗게 쏟은 의상봉이 있는데 예전에 의상대사가 이 봉우리의 밑에 있는 굴에서 도를 닦 았다고 하여서 의상봉이라고 한다. 의상대사는 조금 떨어진 산중턱에 세워진 원효사의 옆에 있는 안양암에서 역시 수행하고 있던 원효대사와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평소 점심식사를 같이 먹은적이 많았는데 안양암에서 점심식사를 먹자고 제의하면 점심시간에 의상대사는 그 높은 의상봉에서 안양암까지 걸어내려오지 않고 무지개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고 전해내려온다.

투구봉: 마을옆으로 투구 모양을 닮은 산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 투구봉이 충장공이 김덕령장군의 투구였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이투구가 진 밖에 있어서 김덕령장군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치마바위: 김덕령의 누이도 대단한 장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날 김덕령과 그의 누이가 힘자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누이가 이 바위를 치마로 싸서 이곳에 갖다 놓았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이 바위를 치마바위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 **계:** 28년전에 조직되어 마을의 애경사를 이끌어 왔던 위친계인 원효위친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이 계를 통해서 마을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있으며 명절 등의 행사도 주도하고 있다.

마을에 전해내려오는 비문

- **김현승 시비**

김현승은 1913년에 평양에서 태어나 1919년 광주로 이사해서 대부분 생애를 광주에서 보냈다. 그의 처녀작인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으로 문단에 나오게 되었다. 문단에 대비한 이래 많은 시를 남겼으며 1975년 재직중인 숭전대학교에서 채플시간 기도하던 중 지병인 고혈압으로 숨졌다. 김현승 시비는 건립추진

위원회에 의하여 1977년 6월 26일 무등산 원효계곡 관광도로변에 세워졌다. 이 시비에는 그의 대표적인 시인 눈물이 기록되어 있다.

눈물

더러는 沃土에 떨어지는 작은 生命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술 · 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져
나의 가장 나아중 지닌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듦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사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워 주시다.

◘ 마을에 있는 유물 및 유적

· **원효사:** 무등산 산장으로 가는길에 왼쪽 기슭에 원효계곡에 위치해있다. 원효사의 창건 연대는 신라 지증왕과 신라의 법흥왕 양대에 세워졌다는 주장과 원효국사가 산자수려한 이곳에 암자를 세웠지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고려 충숙왕 때에 화엄종의 한 명승이 원효사를 추앙한 나머지 이곳에 절을 짓고 원효에 이름을 따서 원효암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1980년 6월에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로 보아 원효사의 창건 연대는 통일신라 말기쯤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원효사는 고려 충숙왕 때에 중건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천년여의 세월을 걸치면서 여러차례에 중수를 통해서 현재에 이른다고 한다.

· **원효사의 유물**

· **원효사 동부도:**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원효사 좌측 150m 떨어진 숲속에 있는 매우 귀중한 유물이면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 **원효사소장 만수사 범종:** 유형문화재 제 15호로 지정된 것으로 원효사 대웅전에 보관해왔으나 새종을 주조하여 대체하고 현재는 무등선원으로 옮겨 보관중이다. 종의 표면에 양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종이 1701년에 주조된 담양 추월산 만수산의 대종이었음을 알수 있으나 원효사로 언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다.

· 1980년 5월 6일 원효사 대웅전의 신축을 위해 지반고르기 작업을 하던중 여러점의 유물이 출토되자 국립 광주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이 때 출토된 유무로는 불상류, 와전류, 자기류, 토기류, 거울류등 모두 수백점에 달한다. 이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32점에 이른다.

息影亭 一圓(식영정 일원)

息影亭 一圓

식영정 일원

■ 문화재 종류 : 명승 제57호
■ 소　재　지 :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산 75-1 일대
■ 조 성 년 대 : 1560년 (명종15년)
■ 관 련 인 물 : 석천 임억령. 서하당 김성원(1525~1597) 송강 정철

편집부

"식영정은 대사헌과 찬성을 역임한 金瑊의 손자이며, 환벽당 주인 사촌 김윤제의 조카이고, 충장공 김덕령의 백부인 서하당 김성원이 담양군수(1557~1559)를 지낸 장인 석천 임억령을 위하여 멀리 서석산을 바라보며 자미탄(창계천)을 옆에 낀 星山 산자락에 지어드린 정자지만, 사실은 조카사위인 송강 정철의 유적(星山別曲의 産室)으로 더 유명하다."

지금은 드넓은 광주호와 광주호수생태원이 조성되어 한층 더 息影이라는 말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곳이다.

息影이라는 말은『莊子』의 "畏影惡迹(외영오적)"에서 따온 말로 석천 임억령의 息影亭記에「햇빛을 피하여 그늘로 들어가면 그림자가 없어지듯,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임천 즉 산수 간에 침잠하면 자연히 그 자취도 사라진다.」'그림자를 쉬게한다'는 息影이라 불리는 정자 이름에는 이렇듯 도가적 음영이 드리운 운둔의 정서가 담겨 있다.

이 정자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문인으로는 송순, 김인후, 기대승, 임억령, 양응정, 고경명, 백광훈, 송익필, 등 당시 저명한 호남 사류들이었으며, 특히 임억령, 김성원, 고경명, 정철을 성산4선이라 불렀다. 이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송강 정철은 환벽당에서 유숙하면서 이들에게서 학문과 시를 배워 우리나라의 국문학사상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기틀을 마련한 곳이다. 특히 송강의 최초 가사 작품인 "성산별

곡""을 지은 산실로 식영정에 그 시비가 세워져 있으며, 또한 '식영정 20영'이란 제목으로 성산4인과 면앙 송순의20영을 더해 총 100수의 시를 지어 이곳 식영정과 주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식영정 현판은 八分體로 서하당 현판은 篆字體로 박영선생이 쓴 글씨이며, 9세손 洪獻이 지은 "서하당 유고에 의하면 서하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제봉 고경명 등과 함께 의병을 모집하였고 정유재란때에는 73세의 나이에 九旬 어머니를 등에 업고 무등산으로 피난하였으나 적당한 곳이 없어 화순 동복 母護山(현 모후산) 聖母村으로 피난도중 왜병이 어머니를 해하려 하자 어머니를 보호하려다 살해되었가고 한다.

식영정은 松江의 5대 종손 簫隱 鄭敏河(字: 達夫)가 1721년 광산김씨 문중으로부터 사들여 자신의 거처로 삼았으며 현재 송강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다.

식영정에는 13개의 현판이 있으며 이들을 해석 소개한다.

제영 :

1. 息影亭記 : 石川 林億齡.
2. 金成遠 息影亭 18詠 : 金成遠
3. 息影亭重修記 : 薪島病累
4. 息詠亭記 : 息影主人 翁
5. 次 息影亭 : 龍溪
6. 息影亭奉次主人: 鄭達夫 敏河
7. 息影亭 二十詠 : 薺峯 高敬命.
8. 息影亭 題詠 : 石川 林億齡.
9. 己巳夏重茸感吟 : 六世孫 祚源.
10. 息影亭雜詠 : 松江.
11. 息影亭 雨後 手筆 : 芝山.
12. 題息影亭 : 五世孫 海承
13. 息影亭 : 歌隱老夫

현판 1 息影亭記

金君剛叔吾友也乃於蒼溪之上寒松之下得一麓構小亭柱其隅空其中苫以白芽翼以凉簟望之如羽盖畫舫以爲吾休息之所請名於先生先生曰汝聞莊氏之言乎周之言曰昔者畏影者走日下其走愈急而影終不息及就樹陰下影忽不見夫影之爲物一隨人形人俯則俯人仰則仰其他往來行止惟形之爲然陰與夜則無火與晝則生人之處世亦此類也古語有之曰夢幻泡影人之生也受形於造物造物之弄戲人豈止形之使影影之千變在形之處分人之千變亦在造物之處分爲人者當隨造物之使於吾何與哉朝富而暮貧昔貴而今賤皆造化兒爐錘中事也以吾一身觀之昔之峨冠大帶出入金馬玉堂今之竹杖芒鞋逍遙蒼松白石五鼎之棄而一瓢之甘皐夔之絕而麋鹿之伴此皆有物弄戲其間而吾自不之知也有何喜溫於其間哉剛叔曰影則固不能自爲若先生屈伸由我非世之棄遭聖明之時潛光晦跡無乃果乎先生應之曰乘流則行得坎則止行止非人所能吾之入林天也非徒息影吾冷然御風與造物爲徒遊於大荒之野滅沒倒影人不得望而指之名而息影亦不可乎剛叔曰今始知先生之志請書其言以爲誌

癸亥七月 日 荷衣道人 書

惟我 石川先祖勇退而終老斯亭也有記文及題咏則宜乎揭板而不知毁於何年代心常慨然謀欲重揭者因循未就今賤齒垂暮一朝盡露則力恐湮沒故發梓而懸諸楣神短眼眩至若手工之未得精緻有不暇顧爾

〈六癸亥後二十七年庚寅暮春 不肖後孫 泰鉉 謹識〉

[김군강숙오우야내어창계지상한송지하득일록구소정주기우공기중점이백아익이량점망지여우개화방이위오휴식지소청명어선생선생왈여문장씨지언호장주언왈석자외영자주일하기주유급이영종불식급취수음하영홀불견부영지위물일수인형인부칙부인앙칙앙기타왕래행지유형지위연음여야칙무화여주칙생인지처세차유야고어유지왈몽환포영인지생야수형어조물조물지농희인기지형지사영영지천변재형지처분인지천변역재조물지처분위인자당수조물지사어오하여재조부이모빈차귀이금천개조화아로추중사야이오일신관지석지아관대대출입금마옥당금지죽장망혜소요창송백석오정지기이일표지감고기지절이미록지반차개유물농희기간이오자부지지야유하희온어기간재강숙왈영칙고불능자위약선생굴신유아비세지기조성명지시잠광회적무네과호선생응지왈승류칙행득감칙지행지비인소능오지입림천야비도식영오냉연어풍여조물위도유어대황지야멸몰도영인부득망이지지명이식영역불가호강숙왈금시지선생지지청서기언이위지]

계해 7월 일 하의도인서

[유아석천선조용퇴이종노사정야유기문급제영칙의호게판이부지훼어하년대심상개연모욕중게자인순미취금천치수모일조진로칙역공인몰고발재이현제미신단안현지약수공지미득정치유불가고이]

〈육계해후이십칠년경인모춘 불초후손 태현 근식〉

김군 강숙은 내 친구다. 이 친구가 푸른 시내 위쪽 우거진 솔 숲 아래의 산기슭 한 곳을 얻어 조그마한 정자를 지었다. 네 귀에 기둥을 세우고 가운데를 비웠으니 흰 띠풀로 지붕을 덮고 대나무 자리로 날개를 달았으니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새 깃으로 뚜껑을 덮은 꽃 배 같은 데 나에게 휴식할 곳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정자의 이름을 지어줄 것을 선생이라 부르며 나에게 청하므로 선생인 내가 이르기를 그대는 장씨(장주: 莊周)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장주 이르되 옛날에 자기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죽을힘을 다하여 달아났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끝끝내 뒤만 쫓아다니었다. 그러다가 급한 김에 나무 그늘 아래로 달아났더니 그림자가 문득 사라졌다는 것이다. 무릇 그림자는 물체의 형상이 되어 오직 사람의 형체를 따르기만 하여 그런 까닭에 사람이 꾸부리면 저도 꾸부리고 사람이 일어서면 저도 일어서며 그 뿐이랴 가고 오고 다니며 머무는 일 등이 오직 형체가 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그늘에서나 밤에는 사라지고 불빛에서나 낮에만 생겨난다. 사람의 처세도 이와 같은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꿈에 본 환상과 물에 비친 그림자라는 말이 있지 아니한가 사람은 태어날 때 조물주로부터 그 형체를 받아 나왔다. 그러므로 조물주가 사람을 희롱함은 어찌 본형과 그림자의 관계에만 국한 하겠는가? 그림자가 천 가지로 변하는 것도 형체의 움직임에 달려있고 사람이 생활철학이 천 번 바뀌는 것도 역시 조물주의 처분에 달려있다. 사람은 마땅히 조물주의 자연법칙에 따라 행동할 뿐 자연법칙 그 자체에 관여 할 수 없는 것이다. 비유하면 아침에 부자이던 사람이 저녁나절 가난뱅이가 될 수 있고 옛날에 귀인이던 사람이 이제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는 것 이는 모두 조물주의 풀무질(노추)하여 만들어낸 일이다. 우선 내 한 몸에 비유하여 보자 옛날에 금관에 큰 띠를 띠고 금마 옥당으로 출입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어떠한가 죽장에 짚신 신고 푸른 소나무를 벗하여 흰 돌 깔린 시내를 소요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은가? 마치 만반진수를 다 버리고 표주박 하나에 된장찌게로 만족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 고관대작들과 절연하고 자연과 벗하여 산수간에 노닐지 아니한가? 이는 다 조물이 그 사이에서 희롱함이 있기 때문이요 내 스스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낼 뿐이다. 그러는 처지에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슬퍼하고 성내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강숙이 말하기를 사람과 그림자의 관계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선생이 굴신하는 것은 모두 자신이 선택하였을 뿐 세상에서 버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질고 착한 임금이 치세에 모든 것 다 버리고 스스로 자기 빛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자취한 일이지 인과응보와는 관계없는 일 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생이 이에 응답하기를 순리로 흐르면 앞으로 나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머물러 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고 멈춤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 외진 두메(林天)로 들어온 것도 꼭 한갓 그림자를 없애려고만 한 것이 아니다. 내가 시원하게 바람을 타고 조물주와 함께 어울리어 멀리 떨어진 들판에 노닐게 되면 그림자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흉내도 내지 못하고 우러러보지도 못 할 것이니 이름하여 식영이라 함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강숙이 말하기를 이제야 비로소 선생의 뜻을 알겠습니다. 청컨대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를 써 주십시오. 함으로 그 청에 응하였다.

癸亥七月 日 荷衣道人 書

계해7월(1563년) 하의도인 서

생각하면 우리 석천 선조께서 용퇴하여 이 정자에서 여생을 마치셨기 때문에 기문과 제영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 걸린 판액들이 어느 연대에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에 항상 마음 아파하며 그 판액들을 다시 걸려고 하였으나 순서를 따지다가 걸지를 못했다.

이제 나의 나이가 저물어가고 있어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없어져 버릴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판액을 꺼내어 서까래 사이에 걸려고 하는데 정신과 시력이 흐릿하여 수공이 정교하지 못한 것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육계해후 27년 경인모춘(1830년 순조 30. 음력3월)

불초후손 태현

현판 2 金成遠 息影亭 十八詠

偶從山上飛(우종산상비)
우연히 산 위에서 날아다니다

還向山中斂(환향산중염)
산 중턱에서 스르르 걷히고 있다

倦跡自無心(권적자무심)
게으른 발걸음인 내가 무심히 앉아

悠悠看不壓(유유간불압)
아무리 오래 보아도 싫증이 안 나네

瑞石閑雲(서석한운)
서석산의 한가한 구름.

潛伏於幽穴(잠복어유혈)
깊은 구멍 속에 숨어 있다가

遊揚于淺灘(유양우천탄)
얕은 여울로 헤엄쳐 나와

己知魚自樂(기지어자락)
이미 물고기 스스로 즐거움 알고
重覺我之閒(중각아지한)
다시금 내 한가로움 깨닫게 되네.

水檻觀魚(수함관어)
난간에 기대어 고기를 보다.

寒宵萬籟寂(한소만뢰적)
겨울 밤 온 천지 고요도 하여

不語據梧梧(불어거고오)
오동 옆에 우두커니 기대어 섰다.

靜對空山月(정대공산월)
공산의 달을 마주보고 있노라니

方知我亦夫(방지아역부)
이제야 나의 존재를 알 만 하구나.

碧梧凉月(벽오양월)
벽오동에 비치는 서늘한 달.

粘多松鬚亞(점다송엽아)
말갈기 같은 늙은 소나무

凍合鶴巢傾(동합학소경)
눈 속에 학의 집이 기울어져 있다.

萬玉相輝映(만옥상휘영)
몇 만개의 옥이 서로 비추니

寒光宿客驚(한광숙객경)
차거운 기운에 잠자던 손 놀라네.
蒼松晴雪(창송청설)
푸른 소나무에 걸린 눈.

澗壑雙龍起(간학쌍용기)
두 용이 기어오른 듯한 소나무

長身癭巨鱗(장신축거린)
큰 키에 비늘이 엉켜 있구나

何須支大廈(하수지대하)
어찌 큰 집 기둥에만 쓰이랴

下有把竿人(하유파우인)
낚시꾼 나 있어 걱정 없도다.

釣臺雙松(조대쌍송)
조대(낚시터)의 두 그루 소나무.

閣下寒潭碧(각하한담벽)
정자 아래 깊은 못 빛도 푸르다

常惺泛酒船(상성범주선)
언제나 술 실은 배 떠있네

誰知幽窟裏(수지유굴리)
누가 아나 이 못의 깊은 굴속에

龍子抱珠眠(용자포주면)
용이 여의주를 안고 졸고 있는지

環碧靈湫(환벽영추)
환벽당 아래 영추(용추)
古澗澄無滓(고간징무재)
옛 시냇물 티 없이 맑아

浮舟月滿磯(부주월만기)
배 띄우니 달빛 온통 가득 하구나

夜深橫玉笛(야심횡옥적)
밤 깊은데 옥피리 비껴부니

松鶴掠人飛(송학약인비)
제멋에 놀란 학이 사람을 스치며 날아가네.

松潭泛舟(송담범주)
소나무 우거진 물가에 배 띄우다.

濃陰密如幄(농음밀여악)
빽빽한 나무 속에 짙은 그늘

盤石穩於床(반석은어상)
반석이 평상보다 편안하구나

不用煩揮扇(불용빈휘선)
이럴 때는 부채가 아무 쓸데가 없어

蕭蕭滿凉袖(소소만양수)
소매 속에 서늘한 기운이 가득하네

石亭納凉(석정납양)
석정에서 더위를 식히며

白日隱天末(백일은천말)
해가 서산에 저물어가니
何處有幽巢(하처유유소)
머무를 곳이 어디메뇨 알길 없어라

鶴洞暮烟(학동모연)
학이 사는 동네 저문 연기

對影山僧去(대영산승거)
그림자 마주보며 스님은 산으로 가는데

溪橋日欲曛(계교일욕훈)
시냇가 다리엔 해가 기우네

閒情厭塵土(한정염진토)
한가한 그 모습 깨끗도 하다

飛錫趁歸雲(비석진귀운)
지팡이 끌면서 가는 구름 뒤 따르네.

短橋歸僧(단교귀승)
다리위로 돌아가는 스님.

罷牛跨雨中(파우과우중
빗속에서 소를 거꾸로 타고서

短笛橫蓑裏(단적횡사리)
도롱이 쓰고 단소를 빗기 분다

村遠暮烟沈(촌원모연침)
먼 동리에는 저녁연기 잠겼는데

不知其所指(부지기소지)
어디로 가려고 두리번거리나.

平郊牧笛(평교목적)
평무들판에 피리 부는 목동.

欲水水同潔(욕수수동결)
물에서 목욕하니 물인 양 깨끗하고

立沙沙共娟(입사사공연)
모래위에 서 있으니 모래보다 곱구나

隔花拳一足(격화권일족)
꽃 넘어서 한 발을 오구려 들고

盡日自閒眠(진일자한면)
하루 종일 한가롭게 졸고 있네.

白沙睡鴨(백사수압)
백사장에서 졸고 있는 오리

有鳥立蒼岩(유조입창암)
푸른빛 창암에 서 있는 새여

長湫風靜處(장추풍정처)
용추의 바람 없는 곳

生涯卽此多(생애즉차다)
네 생애가 그만하면 넉넉한 데도

湖海何須去(호해하수거)
다른 호수 찾아서 무엇하려나.

鸕鷀巖(노자암)
가마우지 바위

灘響已堪廳(탄향사감청)
물소리 울려 퍼져 듣기도 좋다

名花誰復栽(명화수복재)
배롱나무 꽃 누가 여기 심었나

山家新濯錦(산가신탁금)
두메 마을에 새로 뉜 비단을

買客莫相猜(매객막상시)
장사꾼들아 그 값을 따지지 말라.

紫薇灘(자미탄)
배롱나무 꽃 핀 여울

竹逕錄溪出(죽경록계출)
대나무 사이로 시내 따라 뻗은 오솔길

桃花夾岸齊(도화협안제)
복숭아꽃은 여기저기 가득히 피였네

武陵橋已斷(무능교기단)
무릉도원 다리는 이미 끊어져

那有世人迷(나유세인미)
속인은 따라 올라올 수 없겠지

桃花逕(도화경)
복숭아꽃 핀 오솔길

舂洲可步屧(춘주가보섭)
물가 길 걷는 데는 나막신이 제격이지

芳草碧芊綿(방초벽천면)
방초는 설면자보다 부드러워

誰識余心樂(수식여심락)
누군가 내 마음 알아 차렸나

花紅柳欲眠(화홍유욕면)
붉은 꽃 어우러져 버들이 조네

芳草洲(방초주)
방초 우거진 모래톱

菡萏高於丈(함담고어장)
연못 줄기는 한 길이 넘고

池塘深沒臍(지당심몰제)
못의 깊이는 배꼽에 차네

微微香入袖(미미향입류)
은은한 연꽃 향기 코에 스미고

皎皎月分溪(교교월분계)
밝은 달이 시냇물에 아른아른

芙蓉塘(부용당)
연못에 연꽃 피고

千年五鬚松(천년오엽송)
천년 묵은 다섯 그루 소나무

偃盖蒼烟裏(언계창연리)
비스듬하게 푸른 연기 속에 누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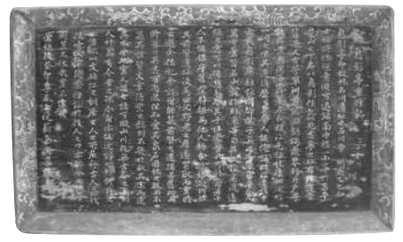
月下浪吟翁(월하낭음옹)
달밤에 흥에 겨워 글 읽던 손이

誰知廻道士(수지회도사)
돌아가는 도사인 줄 누가 알겠나

仙遊洞(선유동)
신선들이 노는 곳.

棲霞居士 金成遠 稿

현판 3 息影亭 重修記



息影亭即故林石川遺址也石川當明廟乙巳知士禍將作絕意遊官退歸南中構一小亭於昌平星山之下扁之息影作記以見志亭之北有棲霞堂舊基又有芳草洲紫薇灘鸕鷀巖琴軒月戶等諸勝景余河西霽峯及我松江先祖杖履相從於一洞之中其遺蹟歷歷至今人能傳誦松江遺稿中亦載

息影亭雜詠有身藏子眞曲手理邵平瓜及萬古蒼苔石山翁作臥宋等句其諷詠高風遠操之意可以像想矣今其子姓零贊只有外裔若干人不能保守舊業轉輾爲他人物余族姪敏河惜其前賢遺址沒爲田父野老之居遂買取而重修之邀余仕記余謂爾能慕前賢之遺躅占舊地修葺之其志可尙然,但知愛其泉石園林之勝而不慕其諸賢文章德業之懿則不幾於取其末而遺其本乎地靈人傑古語可徵山川旣無古今之異則人材豈有今昔之殊今爾亦能延訪一時修行之士講服以友輔仁之訓居古人之所居行古人之所行使吾之章德業播詠於後人之口亦猶今之視昔則豈不休哉豈不偉哉.

<崇情後癸卯季春上浣 薪島病累識>

[식영정즉고임석천유지야석천당명조을사지사화장작절의유관퇴귀남중구일소정어창평성산지하편지식영작기이견지정지북유서하당구기우유방초주자미탄노자암금헌월호등제승경여하서제봉급아송강선조장이상종어일동지중기유적역력지금인능전송송강유고중역재식영정잡기유신장자진곡수리소평과급만고창태석산옹작와송등구기풍영고풍원조지의가이상상의금기자성영찬지유외예약간인불능보수구업전전위타인물여족질민하석기전현유지몰위전부야노지거수매취이중수지료여사기여위이능모전현지유촉점구지수즙지기지가상연단지애기천석원림지승이불모기제현문장덕업지의칙부기어취기말이유기본호지영인걸고어가징산천기무고금지이칙인재기유금석지수금이역능연방일시수행지사강복이우보인지훈거고인지소거행고인지소행사오지장덕업파영어후인지구역유금지시석칙기부휴재기불위재.

〈숭정후계묘계춘상완 신도 병누식〉

식영정은 바로 옛 임석천의 유지이다. 석천이 명종 을사년을 당하여 장차 사화가 일어날 것을 알고 벼슬을 버리고 호남으로 돌아와 창평 고을인 성산아래에 조그마한 정자를 지어 이름을 식영이라 하고 기를 지어 그 뜻을 밝혔다. 정자 북쪽에는 서하당의 옛터가 있고 또 방초주, 자미탄, 노자암, 금헌, 월호 등 여러 절정이 있다. 하서와 제봉 그리고 우리 선조 송강이 서로 함께 한 동리 가운데 같이 놀았으므로 그 유적이 역력하여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전송한다. 또한 송강유고 중에 식영정에서 읊은 다음의 시가 실려 있다. "몸은 자진의 곡조 속에 감추고 손으로는 소평의 오이를 심었도다. 만고를 지내 온 푸른 이끼 낀 돌 위에 산옹이 와송처럼 누었도다" 이러한 싯구에서 그 고상한 풍치와 원대한 지조를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이제 그 자손은 미약하고 다만 약간의 외손이 능히 그 구업을 지키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 내 족질인 민하는 옛 현인의 정자 터가 몰락되어 밭가는 시골 노인이 거처한 곳이 된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드디어 이를 사들여 중수하고 나에게 기를 청하였다. 그러기에 나는 말 하였다. 다만 그 천석과 원림의 아름다운 것만 사랑할 줄 알고 그 여러 현인들의 문장과 덕업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그 끝을 취함이요 그 근본을 저버림에 가까울 것이다. 인걸은 지령(地靈)이라는 옛 말을 가히 경험 하겠도다. 산천은 이미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데 인재가 어찌 금석의 다름이 있으랴 이제 네가 능히 한때 수신하는 선비들을 맞아 들여 벗으로서 어진 성품을 돕는다(輔仁)는 교훈을 강습하고 옛 사람이 거처하던 곳에 거처하고 옛사람의 행동에 따라 행하여 우리 문장과 덕업을 후세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게 하면 지금 옛날을 본 것과 같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며 위대하지 않으랴.

1723년 음력 3월

신도 병누가 자세히 말하다.

현판 4 息影亭記

息影亭記

嗚呼爾影 爾隨吾而游行者 今幾年所 吾行則爾行 吾止則爾止 吾動則爾動 吾靜則爾靜 七拾春秋 行止動靜 無所往而不從游 則嗚呼爾影 亦云困矣. 雖然 吾榮則爾榮 吾樂則爾樂 何以言之 彤庭玉階 爾隨吾而后至 咫尺天威 承玉音之丁寧 于時華筵照身 天香惹衣 此實不世之榮光 難遇之異數 苟非吾之所隨 則爾安得此榮乎 吾榮則爾榮者 此之謂也 且如風軒水閣 爾隨吾而登陟 携朋引盃 樂時華之佳勝 時或起舞罇前 爾影裴廻 此實一時之快樂 眼前之勝事 苟非吾之所游 則爾安得此樂乎 吾樂則爾樂者 亦此之謂也 嗚呼爾影 吾與爾 榮且樂者 極矣盡矣 此間雖或有爾影靡依驚頹蒼黃之日 而使爾猶未至艱險之域 爾亦幸矣 吾今白頭森森 而爾影婆娑疲骨稜稜 而爾影參差 欲趨則不趨 而爾亦不得趨 欲走則不走 而爾亦不得走 吾已休矣 爾亦休矣 吾已息矣 爾亦息矣

主人翁書

식영정기

오호이영 이수오이유행자 금기년소 오행칙이행 오지칙이지 오동칙이동 오정칙이정 칠십춘추 행지동정 무소왕이부종유 칙오호이영 역운곤의. 수연 오영칙이영 오락칙이락 하이언지 동정옥계 이수오이후지 지척천위 승옥음지정녕 우시화연조신 천향야의 차실부세지영광 난우지이수 구비오지소수 칙이안득차영호 오영칙이영자 차지위야 차여풍헌수각 이수오이등척 휴붕인배 락시화지가승 시혹기무준전 이영배회 차실일시지쾌락 안전지승사 구비오지소유 칙이안득차호 오락칙이락자 역차지위야 오호이영오여이 영차락자 극의진의 차간 수혹유이영미의경퇴창황지일 이사이유미지간험지역 이역행의 오금백두삼삼 이이영파사 피골릉릉 이이영참차 욕추칙부추 이이역부득추 욕주칙부주 이이역부득주 오이휴의 이역휴의 오이식의 이역식의

주인옹서

(국역)

아아, 너 그림자여, 네가 나를 따라서 돌아다닌 것이 지금까지 몇 년쯤인가.

내가 가면 너도 가고, 내가 멈추면 너도 멈추고, 내가 움직이면 너도 움직이고, 내가 고요하면 너도 고요했다. 칠십 나이 동안 다니고 멈추고 움직이고 고요함에 가는 곳마다 좇아다니지 않음이 없으니, 아아, 너 그림자 역시 피곤하였다고 말할 만하구나. 비록 그렇지만, 내가 영화

로우면 너도 영화롭고 내가 즐거우면 너도 즐거웠음을 무엇으로써 말할까. 궁궐의 붉은 정원과 계단에 너는 나를 따라 뒤에 이르러 지척에서 임금의 위엄을 뵙고 임금 목소리의 지극한 말을 받들었고, 때때로 좋은 연회 자리에서 몸을 비추었고 좋은 향기 옷깃에 배어들었으니, 이것은 실로 세상에 다시없는 영광이고 만나기 어려운 기이한 운수였다. 진실로 나를 따르지 않았으면 네가 어찌 이러한 영광을 누렸겠는가. 내가 영화로우면 너도 영화롭다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또, 바람 부는 정자나 물가의 누각 같은 곳에, 너는 나를 따라 올라가서 벗을 끌고 술잔을 당기며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겼고, 때로는 혹 일어나 술동이 앞에서 춤출 때 너 그림자도 배회하였다. 이것은 실로 한때의 즐거움이요 눈앞의 좋은 일이었으니 진실로 내가 놀지 않았다면 네가 어찌 이러한 즐거움을 얻었겠는가. 내가 즐거우면 너도 즐겁다고 한 것은 또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아아, 너 그림자여. 너와 내가 영화롭고 즐거운 것이 다하고 다하였구나! 이 사이에 비록 혹은 너 그림자가 쓰러지고 기대고 놀라고 무너지고 허둥지둥 당황한 날도 있었지마는, 너로 하여금 오히려 어렵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으니 너도 또한 다행이다.

나 지금 흰 머리 무성한데 너 그림자 늙었고, 지친 뼈가 앙상한데 너 그림자 들쭉날쭉 가지런하지 않고, 달리고 싶지만 달리지 못하니 너도 역시 달릴 수 없고, 달아나고 싶지만 달아날 수 없으니 너도 역시 달아날 수 없다. 나 이제 쉬련다, 너도 쉬려무나. 나 그만 쉬련다, 너도 쉬려무나.

주인옹 쓰다.
(한국고전번역원 번역)

현판 5 龍溪

次(차)
新交傾蓋舊(신교경개구)
새로 사귄 벗이 옛 벗인 듯 하고

頻上習家亭(빈상습가정)
자주 오르니 내 집 정자인 듯 해

溪壓親鷗鷺(계압친구로)
시내를 눌렀으니 갈매기와 해오라기를 친구했고

松高近日星(송고근일성)
소나무 높았으니 해와 별 가깝구나

淸心風北壑(청심풍북학)
구릉 북쪽 바람에 마음이 맑고

醒酒月前庭(성주전월정)
뜰 앞 달빛에 술기운 깨누나

瑞石雲相接(서석운상접)
서석산 구름과 서로 인접했으니

仙翁夜叩扁(선옹야고편)
신선이 밤마다 사립문을 두드리네

龍溪
嘉靖年間先祖出鳳陽有題斯亭建至萬曆丁酉詩板爲兵燹所毁迄于今幾數百載而且經桑滄世界宿恐來孫之無緣故刻而懸之以寓感慕之誠.

崇禎戊辰紀元後再周丙寅後孫關師夏 拜識

[가정년간선조출봉양유제사정건지만력정유시판위병선소훼흘우금기수백재이차경상창세계숙공래손지무연고각이현지이우감모지성.]

숭정무진기원후재주병인후손관사하 배식

가정(明나라 세종 연호 : 1522년~1566년) 년간에 선조께서 봉양에서 출행하여 이 정자 건립될 때 시를 쓴 것이 있었는데 만력 정유(1597년) 재난에 이르러 현판이 훼손되었다. 수백 년이 경과된 오늘날 또 이 세계는 상전이 창해되는 변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그 까닭과 연유를 알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이 사연을 새겨 느낌과 사모하는 정성을 담았다.

1746년(영조 22년)

현판 6 息影亭奉次主人 鄭達夫 敏河

(식영정봉차주인 정달부 민하)

君簫何似我歌聲(군소하사아가성)
그대의 퉁소가 내 노래 소리와 어떠한고

息影亭高山水淸(식영정고산수청)
식영정은 높고 산과 물이 맑도다

恐有俗人來竊聽(공유속인래절청)
속인이 와서 가만히 듣는 이가 있으면

曲中流入世間情(곡중류입세간정)
곡조 가운데 세상물정이 흘러들까 두렵네

丙辰臘冬 退漁 金鎭商
幾年南北阻音聲(기년남북조음성)
남과 북에서 소식이 끊어진지 몇 해 인고

此日相逢雪月淸(차일상봉설월청)
오늘날 서로 만나니 눈 아래 달도 맑도다

我弄玉簫君和唱(아농옥소군화창)
나는 옥 통소를 희롱하고 그대는 노래로 화답하니

風流今屬兩家情(풍류금속양가정)
풍류는 이제 양가의 정을 한층 돋아주네
(蕭隱) 敏河

歌 先祖關東別曲 五世孫 敏河 (松江의 5代孫)

高臥雲林送百年(고와운림송백년)
구름과 숲 사이에 높이 누어 백년을 보냈으니

不知人世有眞仙(부지인세유진선)
참 신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해

聞來詠罷關東曲(한래영파관동곡)
한가로이 찾아와 관동별곡 읊기를 마칠제

萬二千峰列眼前(만이천봉열안전)
일만이천봉이 눈앞에 펼쳐진 듯 하구나

현판 7 息影亭 二十詠(霽峯 高敬命)

飄空亂絮彈(표공란서탄)
허공에 날리는 구름 솜처럼 일더니

釋嶠脩眉斂(석교수미렴)
스님의 이마 긴 눈썹으로 모여드네

濃淡摠相宜(농담총상의)
짙었다 엷어졌다 함께 어울리니

詩材多不厭(시재다불염)
시재의 풍부함이 싫지 않네.
瑞石閑雲

映日光搖練(영일광요련)
햇빛 받아 흔들리는 빛나는 비단

涵虛界作銀(함허계작은)
맑고 깨끗하여 모두가 은빛 일세

夜來堪畵處(야래감화처)
밤이 되니 그림 속에 파묻혀

孤渡月中人(고도월중인)
달밤에 외로이 건너는 사람.
蒼溪白波

在藻相忘水(재조상망수)
물속의 물고기 물을 모르고

跳波逆上灘(도파역상탄)
물결을 가르면서 거슬러 올라가네

俯看風定處(부간풍정처)
굽어보니 바람 없는 잔잔한 곳에

濠上意俱閒(호상의구한)
못 위에 서있는 멋이 한가도 하다.
水檻觀魚

越石初劉矍(월석초유곽)
월왕석이 드러나 뵈니

靑門學種瓜(청문학종과)
청문과 심는 법을 배워야 겠다

聞君治小圃(문군치소포)
그대가 오이 심는단 말 듣고

幽興動烟簑(유흥동연사)
그 멋에 나도 도롱이 쓰고 만나러 간다.
陽坡種瓜

隱隱山銜月(은은산함월)
까마득한 묏부리가 산을 머금고

冷冷露滴松(냉냉노적송)
차디찬 이슬이 소나무를 적시네

胎仙冠爲鶴(태선관위학)
학두루미 제일먼저 옆에 앉으니

此景汝知夫(차경여지부)
이 경치를 내가 알고 우쭐대나
碧梧凉月

六出漫松頂(육출만송정)
육출(눈송이)이 소나무에 꽃을 이루니

瓊瑰亂倒傾(경괴란도경)
구슬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듯

開窓白頭仰(개창백두앙)
늙은이 창문 열고 올려 보다가

飛屑醉魂驚(비설취혼경)
날리는 눈에 취하여 혼이 빠졌네
蒼松晴雪

鶴髮暎蒼鬣(학발영창엽)
학의 깃이 푸른 솔잎에 비치니

風竿抽素鱗(풍간추소린)
낚싯대 한들한들 흰 고기 낚는다

二松誰對樹(이송수대수)
두 소나무가 서로 마주서서

烟雨摠宜人(연우홀의인)
사람처럼 비바람에 우뚝 서 있다.
釣臺雙松

白日喧雷雨(백일훤진우)
대낮에 우뢰와 같이 내리는 비

顚風簸釣船(전풍파조선)
낚시하는 조각배 바람에 파선할 것 같은데

村翁傳怪事(촌옹전괴사)
촌 늙은이 괴상한 소문을 듣자니

石竇老蛟眠(석두노교면)
돌구멍에 늙은 용이 졸고 있다네
環碧靈湫

松影低寒樹(송영저한수)
잎 진 나무에 솔 그늘이 낮게 지니

松根絡古磯(송근락고기)
솔뿌리가 넓은 바위를 더위 잡았네

褰蓬載琴鶴(건봉재금학)
봉창에 거문고 싣고 학을 벗 삼으니

如月小舟飛(여월소주비)
달 같은 조각배 나는 듯 빨리 가네
松潭泛舟

獨樹全迷頂(독수전미정)
저문 연기가 소나무를 휘감고

遙山淡抹腰(요산담말요)
어슴프레 산허리를 감도네

洞門深不見(동문심불견)
마을 어귀는 깊어서 보이지 않아

歸鶴危失巢(귀학위실소)
학이 제 집을 못 찾고 빙빙 도네
鶴洞暮烟

輕颸吹葉葉(경시취엽엽)
바람에 나뭇잎은 가볍게 지고

濃影布床床(농영포상상)
짙은 안개 땅에 얕게 깔렸네

散髮蒼苔上(산발창태상)
머리감고 이끼 낀 바위에 앉아

披襟滿壑凉(피금만학양)
가슴 풀고 선들바람 한껏 마시자
石亭納凉

牧牛在前郊(목우재전교)
송아지는 앞들에서 풀을 뜯는데

短蓑烟草裏(단사연초리)
풀밭에 도롱이 쓴 아이 가물거리네

迎風一笛豪(영풍일적호)
바람결에 들리는 피리소리

絶勝師襄指(절승사양지)
사양의 거문고 소리 보다 훨씬 좋구나
平郊牧笛

寺在烟蘿外(사재연라외)
절은 연기 속에 파묻혔는데

林深畏日曛(임심외일훈)
숲은 깊어 낮에도 무섭구나

溪橋飛一錫(계교비일석)
다리 위로 석장을 휘두르면서

瞥眠度行雲(별면도행운)
눈을 들어 가는 구름 헤아려 본다
短橋歸僧

蘋風吹纚纚(빈풍취이이)
마름 앞에 바람은 솔솔 부는데

沙雨洗娟娟(사우세연연)
모래 위엔 부슬부슬 비가 내린다

浴罷還相幷(욕파환상병)
비바람에 씻기어 모래도 희고 너도 희니

斜陽一霎眠(사양일삽면)
저녁나절 한잠 달게 잠이나 잘까
白沙睡鴨

西日照鸕鷀(서일조노자)
가마우지 바위에 해가 비치니

蒼巖晒翅處(창암쇄시처)
푸른 바위가 바로 날개 씻는 곳

亭上句垂成(정상구수성)
정자위에 글 읊은 소리에 깜짝 놀라서

人驚遠飛去(인경원비거)
사람소리에 놀라 멀리 날아가네
鸕鷀巖

天姿元富貴(천자원부귀)
타고난 모습 본디 빼어나니

寧待日邊栽(영대일변재)
어찌 양지쪽에 심어지길 기다리리

來岸紅霞漲(래안홍진창)
붉은 꽃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니

漁郎恐眼猜(어랑공안시) : 속된 사람의 눈에 띌까 두려워 하네
紫薇灘

細線縈雲迥(세선영운형)
오솔길 구름밖에 굽이져 있고

棠桃滿樹齊(숭조만수제)
복숭아꽃 온통 길을 덮었다

四圍紅綿障(사위홍섬장)
복숭아꽃 병풍인양 사방을 에워

人到路應迷(인도로응미)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이겠네
桃花逕

燒痕回嫩綠(소흔회눈록)
불 탄 잔디에 새 싹 돋으니

芳嶼草綿綿(방서초면면)
꽃다운 섬에 풀만이 야들야들

醉後爲茵臥(취후위인와)
취한 뒤에 등메 삼아 깔고 누우니

沙尊傍岸眠(사존방안면)
사촌어르신 언덕에 졸고 계시네
芳草洲

葉券弓灣袖(엽권궁만수)
연 잎은 휘청휘청 춤을 추고

花明照夜齊(화명조야제)
꽃이 피니 밤에도 환히 밝다

香風傳谷口(향풍전곡구)
향기로운 바람 골 어귀까지 풍겨 나오니

乘月訪耶溪(승월방야계)
달을 타고 야계로 찾아가 볼까
芙蓉塘

窈窕洞仙遊(요조동선유)
깔끔한 이 동천에 신선이 노니

依然玉壺裏(의연옥호리)
마치 옥호 속에서 노는 것 같네

蒼名之者誰(창명지자수)
선유동이란 이름 누가 지었나

荷衣老居士(하의노거사)
하의도인 바로 그 노인이지
仙遊洞

霽峯 高敬命

현판 8 息影亭 題詠 石川 林億齡

溶溶嶺上雲(용용영상운)
저 건너 뭉게뭉게 산마루에 이는 구름

纔出而還斂(재출이환렴)
나오는 듯 나타났다 금방 도로 걷히어 숨네

無事孰如雲(무사숙여운)
구름보다 한가한 벗 또 없을지니

相看兩不厭(상간양불염)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가 않네
右 瑞石閑雲

古峽斜陽裏(고협사양리)
석양 해 질 무렵 산골짜기에서

蒼龍噴水銀(창룡분수은)
푸른 용이 은물결을 뿜어대는구나

囊中如可拾(낭중여가습)
그 고은 물방울 주머니 속에 담을 수 있다면

欲寄熱中人(욕기열중인)
더위 속 지친 사람에게 전해 줄 텐데
右 蒼溪白波

吾方憑水檻(오방빙수함)
내가 물 난간에 기대어 섰노라니

鷺亦立沙灘(노역립사탄)
해오라기 또한 여울가에 서 있구나

白髮雖相似(백발수상사)
흰 머리는 너나 나나 서로 비슷하지만

吾閑鷺不閑(오한로불한)
나는 한가한데 해오라기는 그렇지 않구나
右 水檻觀魚

有陰皆可息(유음개가식)
그늘진 곳 어디나 쉴만한 곳

何地不宜瓜(하지불의과)
어느 땅인들 오이를 심지 못하랴

細雨荷鋤立(세우하서립)
가랑비 오는 속에 호미 들고 서 있노라니

蕭蕭沾綠簑(소소첨녹사)
가는 비 부슬부슬 도롱이를 적시네
右 陽坡種瓜

秋山吐涼月(추산토양월)
가을 산이 시원한 달을 토해내어

中夜掛庭梧(중야괘정오)
한밤중 뜰에 서있는 오동나무에 걸렸구나

鳳鳥何時至(봉조하시지)
봉황은 어느 때에 오시려는지

吾今命矣夫(오금명의부)
나는 지금 천명이 다 해 가는데
右 碧梧涼月

萬徑人皆絶(만경인개절)
모든 길은 사람 자취 끊겼고

蒼松盖盡傾(창송개진경)
푸른 솔은 눈에 눌려 기울어 졌네

無風時落片(무풍시락편)
바람 없는데도 눈송이 떨어지니

孤鶴夢初驚(고학몽초경)
나무에서 졸던 학이 놀라 꿈을 깨네
右 蒼松晴雪

雨洗石無垢(우세석무구)
비에 씻기어 돌에는 때가 없는데

霜侵松有鱗(상침송유린)
서리에 시달려서 소나무엔 비늘 돋아

此翁唯取適(차옹유취적)
이 늙은이 낚시꾼으론 잘 어울린다마는

不是釣周人(불시조주인)
곧은 낚시 드리우던 강태공은 아니로세
右 釣臺雙松

澄湫平沙浪(징추평사랑)
맑은 용추에 물결도 잔잔한데

飛閣望如船(등추평사랑)
나는 듯이 높은 정자 정말 배 같구려

明月吹長笛(명월취장적)
밝은 달밤에 길게 피리 불고 있으니

潛蛟不得眠(잠교부득면)
잠든 용이 잠 못 든다 투덜대네
右 環碧靈湫

明月蒼松下(명월창송하)
밝은 달 밤 푸른 소나무 아래

孤舟繫釣磯(고주계조기)
외로운 배 낚시터 옆에 매었구나

沙頭雙白鷺(사두쌍백로)
모래톱에 서 있는 한 쌍의 백로

爭拂酒筵飛(쟁불주연비)
다투어 떨치며 술자리 위로 날아가네
右 松潭泛舟

礙日松爲盖(애일송위개)
소나무를 일산삼아 햇빛을 가리고

搘頤石作床(지이석작상)
바위로 평상삼아 턱을 괴어본다

蕭然出塵世(소연출진세)
조용한 모습이 속세를 떠난듯하여

六月挾衣涼(육월겹의량)
삼복더위인데도 겹옷이 무색 하구나
右 石亭納涼

孤烟生野店(고연생야점)
한 줄기 연기 들 집에서 피어올라

漠漠帶山腰(막막대산요)
조용히 산허리를 감고 도누나

遙想松間鶴(요상송간학)
한가로이 소나무 사이에서 졸던 학이

驚飛不下巢(경비불하소)
놀라서 빙빙 돌며 둥지로 돌아오지 않네
右 鶴洞暮烟

牧童倒騎牛(목동도기우)
목동이 소를 거꾸로 타고서

平郊細雨裏(평교세우리)
가는 비 속에 들에서 돌아온다

行人問酒家(행인문주가)
길손이 주막을 물으니

短笛山村指(단적산촌지)
단적으로 산마을을 가리키네
右 平郊牧笛

深峽橫沙路(심협횡사로)
깊은 골짜기엔 모랫길이 비꼈는데

孤村照夕曛(고촌조석훈
외로운 마을에 저녁놀이 물든다

一節潭底影(일공담저영)
지팡이 그림자는 연못에 비치는데

雙眠嶺頭雲(쌍면령두운)
두 눈은 산마루의 구름을 바라보네
右 短橋歸僧

溪邊沙皎皎(계변사교교)
시냇가 세모래 희고 깨끗한데

沙上鴨娟娟(사상압연연)
모래 위에 서있는 오리 예쁘기도 하여라

海客忘機久(해객망기구)
떠도는 나그네 세상일 잊은 지 오래

松間相對眠(송간상대면)
솔 사이 마주 앉아 졸고 있네
右 白沙睡鴨

蒼石水中央(창석수중앙)
이끼 낀 바위가 물 가운데 있는데

夕陽明滅處(석양명멸처)
지는 햇빛 반짝이다 스러지는 곳

鸕鷀驚路人(노자경로인)
가마우지 길가는 행인 보고 공연히 놀라

飛向靈湫去(비양영추거)
영추를 향해 날아가네
右 鸕鷀巖

誰把中書物(수파중서물)
누가 가장 아끼던 것을

今於山澗栽(금어산간재)
지금 산골의 물가에 심었나 보다

仙粧明水底(선장명수저)
선녀 같은 모습이 물 아래 비치니

魚鳥亦驚猜(어조역경시)
물고기와 새들도 놀라서 시샘을 하네
右 紫薇灘

石徑雲埋小(석경운매소)
자갈밭 길을 구름이 반쯤은 덮고

桃花雨剪齊(도화우전제)
복숭아꽃 비에 떨어져 곱게도 깔렸네

更添今日寂(경첨금일적)
오늘따라 호젓하기 그지없으니

正似昔人迷(정사석인미)
옛 사람이 길 잃었던 곳 에 아닌지
右 桃花徑

晴沙明似雪(청사명사설)
고운 모래는 눈처럼 희고

細草軟勝綿(세초연승면)
애기풀은 솜보다 더 부드럽구나

中有白頭叟(중유백두수)
섬 가운데 머리 센 늙은이

閑隨黃犢眠(한수황독면)
송아지 따라 한가하게 졸고 있네
右 芳草洲

白露凝仙掌(백로응선장)
신선 손바닥 같은 연잎에 이슬이 엉켜

淸風動麝臍(청풍동사제)
맑은 바람이 사향 향기인양 코를 찌르네

微時可以削(미시가이삭)
하찮은 나의 시야 버려도 좋지만

妙語有濂溪(묘어유렴계)
주렴계의 말에는 아름다움이 넘친다네
右 芙蓉塘

蒼溪小洞天(창계소동천)
푸른 시내 곁의 작은 마을은

明月淸風裏(명월청풍리)
밝은 달 맑은 바람 사는 곳이지

時下羽衣翁(시하우의옹)
요즈음 깃털 옷 입은 늙은이 있는데

不知何道士(부지하도사)
어떤 도사인지 알 수가 없네.
右 仙遊洞
庚寅暮春 不肖後孫 奉錫 謹揭

현판 9 己巳夏重葺感吟(기사하중용감음)
歌隱公六世孫祚源

吾家別業有斯亭(오가별업유사정)
우리집안 별장으로 이 정자가 있으니

少小登臨白髮生(소소등임백발생)
젊어서 올라간 내가 백발이 났다네

月上霽梧今夜色(월상제오금야색)
오동나무에 오늘 밤 달빛이 떠오르고

洲傳芳草舊時名(주전방초구시명)
방초주 옛 이름이 지금도 전하여 오누나

遙瞻瑞嶽流雲氣(요첨서악유운기)
멀리 보니 서석산에 구름기운 흐르는데

俯聽靈湫積雨聲(부청영추적우성)
머리 숙여 들으니 영추에 빗소리 쌓였네

更喜風闌依古制(경희풍란의고제)
다시 기쁜 건 바람소리는 옛날 그대로인데

松濤不盡滿窓鳴(송도부진만창명)
소나무 물결 끝없이 창문을 울리는구나
가은(정민하)공 6세손 조원
崇禎五丙申春揭

현판 10 息影亭雜詠(식영정 잡영)
松江 (20수중10수만 편액됨)

蒼溪白石(창계백석)
細熨長長練(세위장장련)
길고 긴 명주 배 꼼꼼히 다림질하여

平鋪漾漾銀(평포양양은)
출렁이는 은물결로 넓게 펼치니

遇風時吼峽(우풍시후협)
바람을 만날 때면 골짜기를 불어 올리고

得雨夜驚人(득우야경인)
비 내리는 밤이면 사람을 놀라게 하네

水檻觀魚(수함관어)
欲識魚之樂(욕식어지락)
물고기의 즐거움을 알고 싶어서

終朝俯石灘(종조부석탄)
아침내 돌 여울을 내려다 보네

吾閒人盡羨(오한인진이)
사람들은 한가한 내가 부럽다지만

猶不及魚閒(유불급어한)
물고기의 한가함엔 미치지 못하네

陽坡種瓜(양파종과)
身藏子眞谷(신장자진곡)
정자진의 곡구에 몸을 숨겨서

手理邵平瓜(수리소평과)
소평이 심던 오이를 손수 심노라

雨裏時巡圃(우리시순포)
빗속에도 이따금 포전을 둘러보고

閒來着短蓑(한래착단사)
짧은 도롱이 입은 채 한가히 오네

環碧龍湫(환벽용추)
危亭俯凝湛(위정부응담)
아스라한 정자 깊은 못을 굽어보다

一上似登船(일상사등선)
올라가니 배 위에 오른 듯 하군

未必有神物(미필유신물)
신물이 꼭 있는 것도 아니지만

蕭然無夜眠(소연무야면)
숙연하여 밤에도 잠 못 이루네.

松潭泛舟(송담범주)
舟繫古松下(주계고송하)
해묵은 소나무 아래 배를 메어 놓고

客登寒雨磯(객등한우기)
찬 비 오는 물가에 길손 오르니

水風醒酒入(수풍성주입)
물결 스친 바람은 술을 깨우고

沙鳥近人飛(사조근인비)
모래사장 물새가 가까이 사람오자 날아가네

石亭納凉(석정납양)
萬古蒼苔石(만고청태석)
만고의 푸른 이끼 끼어있는 돌이

山翁作臥床(산옹작와상)
산옹이 누었는 평상되었네

長松不受署(장송불수서)
낙락장송은 더위를 아랑곳없어

虛壑自生凉(허학자생양)
빈 골짜기는 저절로 서늘한 기운이 나네.

平郊牧笛(평교목적)
飯牛烟草中(반우연초중)
연기 낀 풀밭에서 소를 먹이고

弄笛斜陽裏(농적사양리)
기우는 햇빛 속에 피리를 부네

野調不成腔(야조불성강)
서툰 솜씨라 곡조야 맞지 않지만

淸音自應指(청음자응지)
맑은 소리에 저절로 손가락이 움직이네

斷橋歸僧(단교귀승)
鷖鷖林鴉集(예예임아집)
어스름 깔린 수풀 갈가마귀 날아들고

亭亭峽日曛(정정협일훈)
쓸쓸히 산골 해 저물어 간다

歸僧九節仗(귀승구절장)
구절장짚고 돌아오는 저 중

遙帶萬山雲(요대만산운)
만 산의 허리에는 구름 둘렀다.

白沙睡鴨(백사수압)
風搖羽不整(풍요우부정)
바람이 치면 깃이 너울거리고

日照色增妍(일조색증연)
해 비치니 색깔은 더욱 더 곱네

纔罷水中浴(재파수중욕)
물속에서 목욕을 마치자마자

偶成沙上眠(우성사상면)
짝지어 모래 위에 잠이 들었군

仙遊洞(선유동)
何年海上仙(하년해상선)
어느 해 바다위 신선이

棲此雲山裏(서차운산리)
구름 서린 산 속에 깃들었던고

怊悵撫遺蹤(초창무유종)
남긴 자취 어루만지며 슬퍼하노라

白頭門下士(백두문하사)
어느덧 머리 하얀 문하의 선비가

松江

현판 11 息影亭 雨後 手筆(芝山)
(식영정 우후 수필 지산)

江天百態雨後生(강천백태우후생)
강물과 하늘에 온갖 형태 비온 뒤 생겨나니

老眼疲於左右迎(노안피어좌우영)
좌우경치 바라보느라 늙은 눈이 피곤하다오

渚草野秧難辨色(저초야앙란변색)
물가 풀 빛 들에 모 빛은 분별하기 어렵고

幽魚惟鳥不知名(유어괴조부지명)
깊은 물고기 괴상한 새는 이름을 알지 못하겠어

簫歌一斷雲無跡(소가일단운무적)
퉁소와 노래 한 번 끊기니 구름 가는 자취 없는데

詩句長留永有聲(시구장유영유성)
싯구가 장시간 머무르니 물 흐르는 소리가 있구나

鯨背千年人未返(경배천년인미반
고래 등 타고 천 년 전에 떠난 사람 돌아오지 못하니

高樓誰復一椎鳴(고루수복일추명)
높은 다락에 누가 다시 큰 방망이를 울릴까

老我詩情不肯低(노아시정불긍저)
늙은 나의 시 감정 어찌하여 낮아지지 않은데

名亭又在郭之西(명정우재곽지서)
유명한 정자가 담 서쪽에 또 있구나

蟬吟斷續朱絃咽(선음단속주현인)
매미소리 끊겼다가 이어지니 붉은 줄 울어대고

茸氣熏濃翠毯迷(용기훈농취담미)
부들 꽃기운 짙으니 푸른 담요가 희미하다

驟雨忽過灘響急(취우홀과탄향급)
소나기 갑자기 지나가니 여울물 소리 급해지고

輕風乍歇樹梢齊(경풍사헐수초제)
실바람 잠깐 멈추니 나뭇가지 가지런해

三庚高臥淸凉界(삼경고와청량계)
한밤중 서늘한 곳에서 시원하게 누으려고

一屐兼將一枕携(일극겸장일침휴)
신발 신고 겸하여 베개 하나 갖고 왔어!

芝山(지산)

현판 12 題息影亭(제식영정)

散步登臨雨霽天(산보등임우제천)
걷고 걸어 올라가니 하늘에 비 멈추고

紫微花爛意欣然(자미화란의흔연)
자미꽃은 활짝 피어 기뻐하는 뜻 일세

樹陰裊裊蟬鳴後(수음뇨뇨선명후)
매미가 울어댄 뒤에 나무 그늘 간들거리고

江色粼粼鷺住邊(강색인인로주변)
해오라기 머무른 가에 물 빛 맑아 바닥 돌 보이네

座上故人無慾客(좌상고인무욕객)
자리 위 고인은 욕심 없는 손님이었는데

世間何處有眞仙(세간하처유진선)
이 세상 어느 곳에 참 신선 있을까

淸軒盡日簫歌咽(청헌진일소가인)
깨끗한 집에 해 지고 퉁소 노래에 목매이니

好事幸從勝地傳(호사행종승지전)
좋은 일이 다행히 명승지를 따라 전해 오네

縹緲江樓泛水聲(표묘강루범수성)
아득하고 넓은 강루는 물소리에 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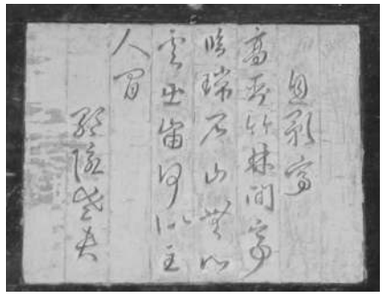
溪山依舊竹林淸(계산의구죽림청)
산수는 옛날 그대로인데 대나무 숲은 맑구나

浮雲百載簫歌斷(부운백재소가단)
뜬 구름 백년 세월에 퉁소 노래 끊겼으니

悽愴那禁感泣情(처창나금감읍정)
서글픈 감정에 흐르는 눈물 어찌 막을 손가

歌隱公五世孫 海承 謹稿

현판 13 息影亭(식영정)



高對竹林間(고대죽림간)
높은 대나무 숲 사이에서 마주보니

亭臨瑞石山(정임서석산)
정자는 서석산에 가깝구나

無心雲出岫(무심운출수)
무심한 구름은 산 밑에서 솟아나니

何叹主人閒(하이주인한)
이다지도 주인 모습 한가로워

歌隱老夫(가은노부)

식영정 일원이라 함은 식영정 정자와 서하당, 부용당 등을 합하여 식영정 일원이라고 하며 2009년 9월에 문화재청으로 부터 명승 제57호로 지정을 받았다.

棲霞堂은 김성원의 號이자 건물이름으로 김성원은 金璹(1504년 문과 급제 대사헌, 찬성, 병사 역임)의 손자로 서하당은 식영정과 함께 1560년에 처음 조성하였다고 한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내실이다. "棲霞 '란'노을이 깃을 들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자연과 합일 물아일체를 표현한 말이다. 그는 1558년 생원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대과에는 응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풍류를 즐기며 살다가 1597년 정유재란 때 노모를 업고 화순 동복 모후산으로 피난 도중 왜적들이 노모를 해치려하자 보호하려다 함께 죽어 순효비가 세워졌는데 주암호의 축조로 수몰되어 지금은 충장사 앞에 옮겨져 있다.

현재의 서하당은 1998년에 담양군에서 복원 신축하였으며 10개의 계단을 올라가 무등산 쪽으로 몸을 돌리면 대청 창방에 송강 정철의 星山別曲이 편액되어 있다.

이 성산별곡은 송강 정철이 이곳에서 수학하던 25세 때 지은 최초의 가사로 식영정에서 바라 보이는 서석산(무등산), 자미탄(창계천), 환벽당, 평무들 등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4계절로 나누어 노래한 자연전원서정가사이다.

성산별곡을 송강집 별집에서 채록하여 실었다.

성산별곡 현판

棲霞堂雜詠 石川(서하당잡영 석천)

岑寂空山月(잠적공산월)
산 적적 공산월 휘영청

扶疎影入窓(부소영입창)
성긴 그림자 창문에 든다

濤聲撼幽夢(도성감유몽)
파도소리 단꿈을 뒤흔드니

風雨浪翻江(풍우낭번강)
비바람이 물결을 뒤집어엎네.

右 松窓(우 송창) : 솔 그림자 비치는 창

山翁淸小睡(산옹청소수)
산옹이 잠은 적어

長嘯鶴來應(장소학래응)
길게 휘파람 부니 학이 벗 하자네

對影人何在(대영인하재)
그림자는 있는데 사람은 없어

看天一問曾(간천일문증)
하늘에나 물어 볼거나

右 月戶(우 월호) : 달빛 비치는 창문

我有震焚琴(아유진분금)
나에게 좋은 거문고 하나 있어

中含鳳鸞音(중함봉난음)
그 소리 봉난을 머금었네

旣令山月白(기령산월백)
산에 떠오르는 달 휘영청 밝게하고

又使石灘深(우사석탄심)
돌여울의 물까지 깊게 한다네

右 琴軒(우 금헌) : 거문고

玉笈三山記(옥급삼산기)
구슬로 장식한 책은 삼산기(신선의 책)이고

靑苔五岳篇(청태오악편)
푸른 이끼낀 오악편도 있네

高聲讀月夕(고성독월석)
달밤에 높은 소리를 내어 읽으니

桂子落窓前(계자락창전)
계수나무 열매 창 앞에 떨어지네.

右 書架(우 서가) : 책꽂이

瀟灑書窓畔(소쇄서창반)
깨끗하고 맑은 서창 넘어 밭두둑에

裁培細雨餘(재배세우여)
가랑비 온 뒤에 약초를 심었네

病身須藥物(병신수약물)
병든 몸에 모름지기 약물이 필요하여

閑坐閱方書(한좌열방서)
한가히 앉아서 의약서를 본다네
右 藥圃(우 약포) : 약초 밭

山雨無端打(산우무단타)
산에 비가 억수로 내리니

空堂皆野喧(공당개야훤)
빈 집이 밤새도록 시끄럽네

猶嫌俗客到(유염속객도)
혹시 속객이 올까 두려워

新葉漸遮門(신엽점차문)
새 잎이 사립문을 가리는구나
右 蓮池(우 연지) : 연꽃 핀 연못

方丈三韓外(방장삼한외)
방장산은 우리나라 밖에 있다는데

崎峰千萬重(기봉천만중)
기이한 봉우리는 천만겹이라네

波衝餘瘦骨(파충여수골)
파도에 부딪혀 파리한 뼈만 남았으니

來對古仙翁(내대고선옹)
마치 옛 신선을 마주한 것 같구나.
右 假山(우 가산) : 인공으로 만든 산.

岸上長長柳(안상장장유)
언덕위에는 늘어진 버들이요

巖邊短短桃(암변단단도)
바위위에는 조그마한 복숭아라네

近來人不到(근래인부도)
근래에 사람들 찾아오지 않으니

水沒武陵橋(수몰무능교)
무릉도원 다리가 물에 잠겼구나
右 小蹊桃花(우 소혜도화)

沙岸微風日(사안미풍일)
모래 언덕엔 실바람 부는 날이요

山陰暮雪天(산음모설천)
산 북쪽엔 늦은 눈 내리는 하늘일세

荷翁興不淺(하옹흥부천)
하옹의 흥 작지 않아서

直欲進漁船(직욕진어선)
곧 바로 고기 배에 오르려 하는구나
右 長汀柳絮(우 장정유서)

秋天零白露(추천영백로)
가을하늘에 흰 이슬 떨어지고

平野滿黃雲(평야만황운)
평야에는 누런 구름 가득하네

日夕西風起(일석서풍기)
낮에나 밤에나 서풍이 일어나니

微香路上聞(미향노상문)
길 위까지 향기 살며시 풍기네
右 村畦晩稻(우 촌휴만도)

流水匯成潭(유수회성담)
흐르는 물 굽이쳐 못을 이루고

夕陽明似鏡(석양명사경)
저녁노을 밝아서 거울 같구나

游魚出復潛(유어출복잠)
노니는 고기는 나왔다가 다시 잠기니

應로行人影(응로행인영)
아마도 길손의 그림자에 놀랬는가 봐
右 節山長湫(우 절산장추)

幽花何窈窕(유화하요조)
그윽한 꽃 이다지도 아름다워

國色淡瞞脂(국색담연지)
그 빛깔 담백하면서도 기름지구나

照水如臨鏡(조수여임경)
물에 비치니 거울 앞에 서있는 것 같고

偎林似隔帷(외림사격유)
숲이 가까우니 장막이 가로 막힌 것 같네
右 丹崖紫薇(우 단애자미)

松竹本同族(송죽본동족)
소나무와 대나무는 본래 같은 종족이기에

松間又種竹(송간우종죽)
소나무 사이에 또 대나무를 심었네

誰云夷叔故(수운이숙고)
누가 백이숙제가 죽었다고 했는가

萬古風生谷(만고풍생곡)
천만년 맑은 바람을 골짜기에서 내 보낸다오.

右 竹塢淸風(우 죽오청풍)
대나무 언덕에 맑은 바람

半畝方塘水(반무방당수)
반 무 두덕에 모난 연못 물은

連筒玉井分(연통옥정분)
대통을 연결하여 옥정으로 나누어 흐르네

猶嫌南澗遠(유혐남간원)
남쪽 시내에서 멀어지기 싫은 듯

別向柳邊聞(별향유변문)
특별히 버들가를 향하여 소리 들려 주누나.

右 石井靈源(우 석정영원)
석정에서 솟아난 물 근원

棲霞堂 八詠(서하당 팔영) 主人

最愛蒼髯叟(최애창염수)
나는 푸른 솔을 사랑한다

長身俯北窓(장신부북창)
큰 소나무 북창에 굽어있어

風來聽天籟(풍래청천뢰)
바람 불어오면 하늘의 퉁소 소리 들리고

濤起殷秋江(도기은추강)
물결 일면 가을 강이 한창입니다.
松窓(송창 : 솔 그림자 비치는 창)

桂子低堪摘(계자저감적)
계수나무 낮아서 열매 딸만한데

姮娥喚欲應(항아환욕응)
항아는 부르면 금방 대답할 듯

仙蹤來幾許(선종래기허)
신선의 족적도 찾아오기 어려운데

俗跡到何曾(속적도하증)
속인들의 발자취가 어찌 이르겠는가
月戶(월호 : 달 비치는 창가에서)

良宵撫古琴(양소무고금)
달밤에 옛 거문고 타고 있으니

松月是知音(송월시지음)
소나무에 걸린 달이 내 마음을 아는 듯

長嘯悄終曲(장소초종곡)
긴 휘파람 잦아들고 노래도 마치니

雲林深復清(운림심부청)
깊은 숲속이 다시 적막에 잠기네.
琴軒(금헌 : 거문고)

室中無長物(실중무장물)
방안에 쓸 만 한 것 하나도 없고

架上有殘編(가상유잔편)
시렁위에 책 몇 권 얹히어 있다.

卷裏對賢聖(권이대현성)
그 책 속의 스승들과 대하노라면

嚴師長在前(엄사장재전)
엄한 스승 내 앞에 앉아 계신 듯.
書架(서가 : 책꽂이)

辛苦十年疾(신고십년질)
십년 앓은 고질 고쳐 보려고

栽培一畝餘(재배일무여)
밭 한 뙈기에 약초를 심었어라

自能知對病(자능지대병)
스스로 자기 병을 알만도 한데

何必對方書(하필대방서)
어찌하여 처방서만을 대 하였나.
藥圃(약포 : 양초밭)

丁寧戊叔設(정영무숙설)
주무숙의 알뜰한 애련설은

百載口從喧(백재구종훤)
오랜 세월 인구에 회자 되었지

欲得無窮意(욕득무궁의)
깊고 깊은 그 뜻을 알고자 하면

空山獨閉門(공산독폐문)
빈 산에서 문 닫고 홀로 있게나.
蓮沼(연소 : 연꽃 핀 못)

片石當階立(편석당계립)
조각들을 층층으로 세워 맞추어

層巒翠幾重(층만취기중)
묏부리가 몇 겹으로 둘려 싸였다

深思夢爲鶴(심사몽위학)
이 몸이 꿈속에서 학이 되어서

飛人訪仙翁(비인방선옹)
날아가서 신선을 찾아가 볼까
假山(가산 : 인공으로 만든 산)

山下有源泉(산하유원천)
산 아래 원천이 있는데

分流開小井(분류개소정)
이 물이 흘러흘러 샘이 되었네

清明徹玉壺(청명철옥호)
맑은 물이 옥 항아리에 있는 듯

作我照心鏡(작아조심경)
내 마음 비추는 거울 만들자.
石井(석정 : 돌을 쌓아서 만든 우물)

霞堂雜詠(하당잡영)
松江 (8首중 4首만 편액되어 있음)

倦客初驚睡(권객초경수)
게으른 나그네 잠이 설레어

中宵獨倚窓(중소독의창)
한 밤중에 홀로 창에 기대었노라

無端萬壑雨(무단만학우)
끝없이 쏟아지는 만 골짜기 비가

十里度前江(십리도전강)
십리라 앞 강변을 지나가누나.
右 松窓(송창)

仙家靑玉案(선가청옥안)
신선의 집이라 청옥안이 있고

案上白雲編(안상백운편)
안상위에는 백운편이 있어

盥手焚香讀(관수분향독)
손 씻고 향 피우고 글을 읽는다

松陰竹影前(송음죽영전)
소나무 그늘 대 그림자 어울린 곳에서
右 書架(서가)

君有一張琴(군유일장금)
그대가 타고 있는 거문고 한 장

聲希是大音(성희시대음)
드문드문 소리내는 대음이로세

大音知者少(대음지자소)
대음을 알아듣는 이 없어

彈向白雲深(탄향백운심)
흰 구름 깊이 싸인 곳에서 타네
右 琴軒(금헌)

造化生生意(조화생생의)
낳고 낳고 또 낳은 조물주의 뜻은

春天一雨餘(춘천일우여)
봄 하늘 비 지나간 나머지서 보네

從來有道骨(종래유도골)
예부터 내려오는 도골이 있으니

不必養生書(불필양생서)
반드시 양생의 서적만이 아니야.
右 藥圃(약포)

부용당은 서하당과 함께 건립하였으나 소실되어 담양군에서 1972년에 복원 신축하였다. 이곳에는 마름모형의 연못이 있으며 가을이면 연꽃이 피어 이 일대에 향기로 쌓인다고 한다. 이 부용당에는 "부용당"이라는 1개의 현판이 있으며 이를 해석한다.

白露凝仙掌(백로응선장)
신선 손바닥에 이슬이 엉켜

淸風動麝臍(청풍동사제)
청풍에 사향 향기인 양 코를 찌르네

微時可以削(미시가이삭)
시시한 글은 깎아 버리고

妙語有濂溪(묘어유렴계)
잘된 것만 골라 주렴계에 보내 볼까
石川

菡萏高於丈(함담고어장)
연꽃 줄기는 한 길이 넘고

池塘深沒臍(지당심몰제)
못의 깊이는 배꼽에 차네

微微杳入袖(철철묘입수)
은은한 연꽃 향기 코에 스미고

皎皎月分溪(교교월분계)
달도 밝다 시내에 아른아른
棲霞堂

葉卷弓彎袖(엽권궁만수)
연잎은 휘청휘청 춤을 추고

花明照野濟(화명조야제)
꽃이 피니 밤에도 환하게 밝다

香風傳谷口(향풍전곡구)
향그런 바람 골 어귀까지 풍겨오니

乘月訪那溪(내월방나계)
달을 타고 야계로 찾아가 볼까
霽峯

龍若閟玆水(용약비자수)
용이 만약 이 물속에 숨어있다면

如今應噬臍(여금응서제)
이제와선 응당히 후회할거야

芙蓉爛紅白(부용란홍백)
연꽃송이 활짝 피어 희고 붉으니

車馬簇前溪(거마족전계)
거마가 앞 시내에 모여드누나.
松江

又題(우제)
山雨無端打(산우무단타)
산에 오는 비 무단히 두드리니

空堂皆夜喧(공당개야훤)
빈 정자가 온통 떠들썩 하구나

猶嫌俗客到(유혐속객도)
오히려 속객이 올까 저어하여

新葉漸遮門(신엽전차문)
새 잎이 사립문을 가리는 구나

石川

丁寧茂叔設(정영무권설)
무숙이 틀림없이 설파한 말씀

千載口從喧(천재구종훤)
천년이라 입으로만 전하여 왔다네

欲得無窮意(욕득무궁의)
깊고 깊은 그 뜻을 알고자 하면

空山獨閉門(공산독폐문)
공산에서 문을 닫고 생각하여라

棲霞堂

山中畏逢雨(산중외봉우)
산중에서 비 만날까 두려워하네

淨友也能喧(정우야능훤)
정우(연)가 소란을 부리겠기에

漏泄仙家景(누설선가경)
신선의 집 경치를 누설시키어

淸香滿洞門(청향만동문)
맑은 향기 동구에 가득하구려

松江

藏書閣

이 장서각은 서하당 왼쪽에 있어 송강의 유고 등이 소장되어 있었으나 후손 정구선 선생이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한다.

가정생활 예절

김 중 환
사단법인 한국전례원 광주북구지역원 원장

제1절 친척관계와 계촌법

1. 가정예절의 의미

1) 가정은 영원하다

가정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혼인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가정의 탄생이라고 만은 할 수 없다. 가정은 조상(祖上)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나로부터 다시 자손에게로 이어지는 영원한 혈연(血緣)의 기초 집단이다.

한 뼘 밖에 안 되는 목화의 섬유가 서로 엇물려 끝없는 실이 되듯이 한 인간의 평생은 짧지만 부모, 부부, 자녀로 엇물려 이어짐으로써 가정(家庭)은 영원무궁하게 이어진다.

2) 가정의 역사와 전통

그 가정은 시조에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연면(連綿)이 이어져 온 오랜 역사가 있고, 대대로 이어지는 나라와 사회라는 방대(尨大)한 조직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며, 인간들이 최초로 대인관계(對人關係)를 갖는 사회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밝힌 기본예절과 개인예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예절은 직장예절 사회예절의 모체(母體)가 되는 것이다.

3) 가족의 범위

가정 예절이란 가족 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예의범절이므로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 가족은 법률적으로 형식을 갖추어 같은 호적에 실려 있고 실제적으로 한 솥밥을 먹는 구성원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한 핏줄이고 한 살붙이인 모든 친척을 의미하기도 한다.

4) 가족법상의 가족

현행 가족법상으로 볼 때의 가족은 큰아들 큰손자로 이어지는 혼인한 직계와 그에 딸린 혼인하지 않은 방계혈족이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와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기와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동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자매다.

2. 근친(近親), 당내간(堂內間)의 유복지친(有服之親)

1) 근친 · 당내간 · 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 함은 자기로부터 고조(高祖)할아버지 4대조(四代祖) 이하의 조상을 직계로 하는 8촌 이내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근친간은 한 집안에서 산다는 뜻으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도 했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의미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2) 핏줄 · 혈족(血族) · 동성동본 일가

남자 조상이 같은 집안을 핏줄 또는 혈족이라 하고, 흔히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一家)라고도 한다. 직계 존속여자, 즉 어머니, 할머니, 증조할머니와 직계 비속남자의 아내, 즉 며느리 손부는 핏줄은 아니지만 핏줄과 같이 간주해 혈족의 범위에 속한다.

혈족은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로 나뉜다. 자기와 직접 이어지면 직계 혈족(아버지 · 아들 · 손자), 가지를 뻗어 이어지면 방계 혈족(형제 · 자매, 백숙부 · 조카)이다.

3. 촌수 따지는 법

1) 대(代)와 세(世)

◎ 대 : 격간(隔間)

아래와 위의 사이를 뜻해 아버지와 아들이 1대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 증조할아버지와 증손자는 3대이고, 고조할아버지와 현손은 4대가 된다. 즉 시조부터 33세라면 시조는 당연히 32대조가 되고 자신은 32대 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세와 대가 달라서가 아니요, 뒤에 조(祖)나 손(孫)을 붙였기 때문에 한 대가 줄었음을 알아야 한다. [예: 중시조(中始祖)까지 20세라면 당연히 19대조(祖)가 되고 자신은 19대 손(孫)이라 한다.]

◎ 세 : 상하 합산

아래와 위를 모두 합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2세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3세가 된다. 즉 세는 위에서 아래로, 시조(1세)부터 자신까지 합한 세를 ㅇㅇ세라 한다.(예 : 시조부터 자신까지 합해서 33세라 한다.)

(위대와 세에 대해 문의한 내용을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성백요 교수의 글이 게재된 지 꼭 10년이 되는 2009년 7월 15일 성균관유교신문에 다시 게재하였다. 또한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에서 재차 정리된 내용이다.)

◎ 직계 가족과의 촌수

자기와 대상까지의 대수(代數)가 촌수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1대니까 1촌이고, 할아버지와 손자는 2대니까 2촌이다.

◎ 방계 가족과의 촌수

자기가 그 대상이 어떤 조상에게서 갈렸는지를 먼저 알고 자기와 그 조상의 대수에 그 조상과 대상의 대수를 합해서 촌수라 한다. 즉 형제자매는 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자기와 아버지는 1대이고 아버지와 형제자매는 1대니까 합해서 2촌이고, 백 · 숙부와 자기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렸는데 할아버지와 백 · 숙부(백부=큰 아버지, 숙부=작은 아버지)는 1대이고 할아버지와 자기는 2대니까 합해서 3촌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부모(父母)와 자녀(子女)는 한 세대 차이니까 1촌이고 형, 동생, 누님, 누이동생은 한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부모까지가 1세대, 부모에게서 그들까지가 1세대이니까 합해서 2촌이 된다.

가까운 친족(親族)을 동고조(同高祖) 8촌간이라고 하는데 나에게서 고조(高祖)까지가 4대이고, 고조(高祖)에게서 4대가 되는 형제(兄弟) 항렬(行列)까지를 합치면 8촌이

되는 것이다.

이 근친(近親)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이라고 하고 죽으면 상복(喪服)을 입는 친척(親戚)이라는 뜻으로 유복지친(有服之親) 이라고도 한다.

시집온 며느리의 촌수(寸數)는 그 남편과의 촌수(寸數)로 따진다.

4. 근친(近親) 촌수(寸數)와 계보(系譜)

친척간의 멀고 가까운 친소(親疎)를 말하려면 촌수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친척 관계로 말한다.

(예) 형제자매는 몇 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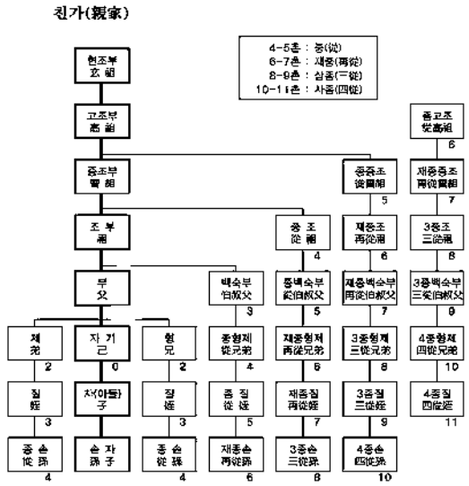
☞ 형제자매는 아버지에게서 갈라진 자손이다. 나와 아버지는 1대, 아버지와 자매도 1대이므로, 1대+1대=2대, 즉 2촌이다.

(예) 나와 백 · 숙부는 몇 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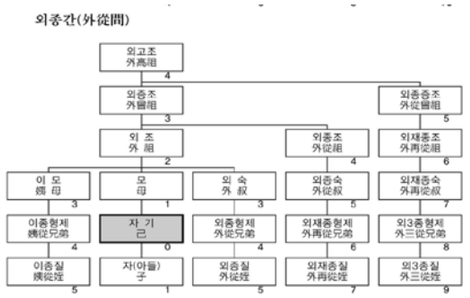
☞ 나와 백 · 숙부는 할아버지에게서 갈라진 자손이다. 나와 할아버지는 2대, 할아버지와 백 · 숙부는 1대이므로, 2대+1대=3대, 즉 3촌이 된다.

근친간의 촌수(近親間의 寸數)와 갈려진 상태(狀態)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굵은 선은 직계(直系)(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이고 가는 선은 방계(傍系)이며 숫자는 촌수(寸數)이다.

5. 친가(親家)의 계보(系譜)



6. 외가집의 계보(외종간)



제2절 칭호(稱號) : 호칭(呼稱)과 지칭(指稱)

1. 호칭(呼稱)과 지칭(指稱)

호칭의 언어예절은,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첫 번째 언어이며, 언어로 하는 대화는 상대를 부르는데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1) 칭호(稱號):호칭과 지칭 모두 말할 때 칭호라 한다.
2) 호칭(呼稱):어떤 사람을 직접 부를 때의 말을 호칭이라 한다.
3) 지칭(指稱):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의 말이다.

2. 친척에 대한 칭호

1) 자기에 대한 칭호

○ 저, 제:웃어른이나 여러 사람에게 말할 때(제가 – '저가'는 잘못임)
○ 나:같은 또래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근친 어른에게 쓰기도 한다)
○ 우리, 저희:자기 쪽을 남에게 말할 때. '저희'는 낮춤말.
○ 상대가 부르는 칭호:자기를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가 나를 부르는 호칭으로 말한다(손자에게 할애비 · 할미, 자녀에게 애비 · 어미, 제자에게 선생님).

2) 부모(父母)에 대한 칭호

○ 아버지 · 어머니:자기의 부모님을 직접 부르든가 남에게 말할 때.
○ 아버님 · 어머님:남편의 부모를 직접 부르고 지칭하거나 남에게 말 할 때와 남에게 그 부모를 말할 때.
○ 애비 · 어미:부모의 어른에게 자기의 부모를 말할 때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를 지칭할 때, 그리고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그 부모를 말할 때.
○ 아빠 · 엄마 : 말 배우는 아이가 자기의 부모를 부르거나 말할 때.

3) 아버지 형제간에 대한 칭호

○ 백부(伯父)님:큰 아버지(아버지의 첫 번째의 형님) (伯:맏형 백)
○ 중부(仲父)님:둘째 작은아버지(아버지의 둘째 형님 또는 둘째 아우)
○ 숙부(叔父)님:셋째 작은아버지(아버지의 셋째 형님 또는 셋째 아우)
○ 계부(季父)님:넷째 작은아버지(형제중 제일 끝을 말함)
※ 큰아버지 · 큰어머니, 몇째 아버지 · 어머니, 작은 아버지 · 어머니:아버지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부르거나 말할 때, 맏이는 '큰–', 막내는 계부(季父) '작은–', 기타. 중간은 '몇째'를 붙인다.

4) 부부간의 칭호

○ 여보 · 당신:부부가 서로 부르거나 지칭할 때.
○ 사랑(舍廊):시댁의 어른이나 동서에게 자기의 남편을 말할 때.
○ 제 댁(宅):자기 집이나 처가의 윗대 어른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ㅇ ㅇ서방(西房) : 친정의 어른에게 자기의 남편을 말할 때.
ㅇ 안[內室] : 자기 집이나 처가의 같은 세대 어른 또는 제수 · 처남댁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ㅇ 안사람 · 집사람 · 아내[內子 · 內室] : 남에게 자기의 아내를 말할 때.
ㅇ 주인 · 바깥양반 · 남편 : 남에게 자기의 남편을 말할 때.
ㅇ 주인어른 · 바깥어른 · 부군 : 남에게 그 남편을 말할 때.
ㅇ 안어른 · 부인(夫人) · 영부인(令夫人) : 남에게 그 아내를 말할 때.
ㅇ 대통령 부인(夫人) : 영부인(領夫人)이라 한다.

5) 아들에 대한 칭호

ㅇ 애 · 너 · 이름 : 직접 부를 때와 지칭할 때.
ㅇ 아들 · 자식(子息) : 남에게 자기의 아들을 말할 때.
ㅇ 애비 : 자녀를 둔 아들을 그 아내나 자녀에게 말할 때.
ㅇ 아드님 · 자제 · 영식(令息) : 남에게 그 아들을 말할 때 '영랑(令郎) · 영윤(令胤)'도 같은 뜻. 남의 아들을 존칭한 말.
ㅇ 망자(亡子) : 지방이나 축문에 자기의 죽은 아들을 쓸 때.
ㅇ 네 남편 : 며느리에게 그 남편인 아들을 말할 때.

6) 딸에 대한 칭호

ㅇ 애 · 너 · 이름 : 시집가지 않은 딸을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ㅇ ㅇ실 · 집 : 시집간 딸은 남편의 성(姓)을 붙여서 부르거나 말한다.
ㅇ 딸(아가 딸 : 미혼인 딸) · 여식(女息) : 자기의 딸을 남에게 말할 때.
ㅇ 따님 · 영애(令愛) : 남에게 그 딸을 말할 때, '영양(令孃), 영교(令嬌)'도 같음. 남의 딸을 존칭한 말(특히 혼서지를 쓸 때 영애(令愛))
ㅇ 어미(에미) : 자녀를 둔 딸을 그 남편이나 자녀에게 말할 때.

7) 며느리에 대한 칭호

ㅇ 애 · 며느리 · 너 :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ㅇ 네댁 · 네 아내 : 아들에게 그 아내인 며느리를 말할 때.
ㅇ 어미(에미) : 자녀를 둔 며느리를 직접 부르거나 그 자녀에게 말할 때.
ㅇ 며느님, 자부님 : 남에게 그 며느리를 말할 때.

8) 사위에 대한 칭호

ㅇ ㅇ서방(西房) · 너 · 이름 : 장인이 사위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ㅇ ㅇ서방(西房) · 자네 : 장모가 사위를 직접 부르거나 지칭할 때.
ㅇ 네 남편 · ㅇ서방 : 딸에게 그 남편인 사위를 말할 때.
ㅇ 사위님 · 서랑(壻郎)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9) 시댁 가족에 대한 칭호

ㅇ 아버님 · 어머님 : 남편의 부모를 부르거나 말할 때.
ㅇ 아주버님 : 남편의 형을 부르거나 가족 간에 말할 때.
ㅇ 시숙 : 남편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
ㅇ 형님 : 남편의 형수나 누님을 부를 때.
ㅇ 도련님 : 남편의 장가 안든 동생을 부를 때.
ㅇ 서방님 : 장가간 시동생을 부를 때.
ㅇ 동서 · 자네 : 시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ㅇ 작은아씨 : 시집가지 않은 손아래 시누이를 부를 때와 가족 간에 말할 때.
ㅇ 모(某)서방댁 : 시집간 손아래 시누이를 부를 때와 가족 간에 말할 때.
ㅇ 시누이 : 남편의 자매를 남에게 말할 때.
ㅇ 모(某)서방님 : 시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

10) 처가 가족에 대한 칭호

ㅇ 장인(丈人)어른 · 장모(丈母)님 : 아내의 부모를 부를 때.
ㅇ 빙장(聘丈) · 빙모(聘母) : 아내의 부모를 남에게 말할 때.
ㅇ 처남댁 · ㅇㅇ어머님 : 처남댁을 부를 때.
ㅇ 처형 · ㅇㅇ어머님 : 아내의 언니를 부를 때.
ㅇ 처제 · ㅇㅇ어머님 : 아내의 여동생을 부를 때.
ㅇ 처남 · 자네 : 아내의 오빠와 남동생을 부를 때.

11) 형제간의 칭호

ㅇ 언니 : 미혼의 동생이 형을 부를 때.
ㅇ 형님 : 기혼의 동생이 형을 부를 때.
ㅇ 형 : 집안의 어른에게 형을 말할 때.
ㅇ 백씨 · 중씨 · 계씨(伯氏 · 仲氏 · 季氏) : 자기의 형을 남에게 말할 때.
ㅇ 사형(舍兄) · 가형(家兄) : 남과 말할 때 자

ㅇ 언니:여동생이 여형을 부를 때.
ㅇ 백씨장 · 중씨장 · 존 형장 · 자네 형님:남에게 그 형을 말할 때.
ㅇ 애 · 이름 · 너:미혼이나 10년 이상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ㅇ 사형(舍兄):남과 말할 때 자기 형을 겸손하게 일컫는 말. 가형(家兄)
ㅇ 동생 · 자네 · 이름:기혼이나 10년 이내 연하인 동생을 부를 때.
ㅇ 사제(舍弟) · 가제(家弟):남에게 자기의 아우를 겸손하게 말할 때.
ㅇ 아우: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동생을 말할 때.
ㅇ 아우님 · 제씨:남에게 그 동생을 말할 때.

12) 자매간의 칭호

ㅇ 언니:여동생이 여형을 부를 때.
ㅇ 애 · 너 · 이름:언니가 여동생을 부를 때.
ㅇ ㅇ실 · ㅇ집:시집간 여동생을 부를 때(남편의 성을 위에 붙인다).
ㅇ 형:집안의 어른에게 여형을 말할 때.
ㅇ ㅇㅇ에미:집안의 어른에게 자녀를 둔 여동생을 말할 때.

13) 남매간의 칭호

ㅇ 오빠:미혼 여동생이 남자 형을 부를 때.
ㅇ 오라버님:기혼 여동생이 남자 형을 부를 때.
ㅇ 오라비:여동생이 집안 어른에게 남자 형을 말할 때.
ㅇ 누나:미혼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ㅇ 누님:기혼 남동생이 손위 누이를 부를 때.
ㅇ 애 · 너 · 이름: 손위 누이가 미혼인 남동생을 부를 때와 오라비가 미혼인 누이동생을 부를 때.
ㅇ 동생 · 자네 · ㅇㅇㅇ아버지:손위 누이가 기혼인 남동생을 부를 때.
ㅇ ㅇ실 · ㅇ집:오라비가 기혼인 누이동생을 부를 때.

14) 형제자매의 배우자 칭호

ㅇ 아주머니 · 형수님: 시동생이 형의 아내를 부를 때.
ㅇ 형수씨:남에게 자기의 형수를 말할 때.
ㅇ 제수씨 · 수씨:동생의 아내를 직접 부를 때.
ㅇ 제수:집안 어른에게 제수를 말할 때.
ㅇ 제수씨:남에게 자기의 제수를 말할 때.
ㅇ 언니:시누이가 오라비의 아내를 부를 때.
ㅇ 올케 · 새댁 · 자네:시누이가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ㅇ ㅇㅇ댁:집안 어른에게 남동생의 아내를 부를 때.
ㅇ 매부(妹夫) · 자네:누이의 남편을 부를 때와 남에게 말할 때.
ㅇ 매제(妹弟):누이동생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ㅇ 자형(姊兄) · 매형(妹兄):누님의 남편을 말할 때와 남에게 말할 때.
ㅇ 형부(兄夫):여동생이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와 말할 때.
ㅇ 제부(弟夫):여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
ㅇ 매서 · 제랑(妹壻 · 弟郎):여동생의 남편.
ㅇ 넛손 · 리손:누님의 손자.

15) 기타 친척간의 호칭

ㅇ 대부(大父) · 대모(大母):자기의 직계존속과 8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를 때.
ㅇ 아저씨 · 아주머니:아버지와 4촌 이상인 아버지 세대의 어른과 그 배우자를 부를 때.
ㅇ 고모 · 아주머니 · 고모부 · 아저씨:아버지의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ㅇ 족대부(族大父) : 대부 뻘이 되는 동성(同姓)의 먼 일가 어른.
ㅇ 족대모(族大母) : 족 대부의 아내.
ㅇ 족숙(族叔) : 유복지친[(팔촌(八寸)] 이외의 아저씨 항렬이 되는 남자.
ㅇ 족장(族丈) : 유복지친[(팔촌(八寸)] 이외의 위 항렬이 되는 남자 어른.
ㅇ 족장(族長) : 유복지친[(팔촌(八寸)] 이외의 아래 항렬이 되는 남자 어른.
ㅇ 족제(族弟) : 유복지친[(팔촌(八寸)] 이외의 아우뻘이 되는 남자, 족형
ㅇ 족질(族姪) : 유복지친[(팔촌(八寸)] 이외의 조카뻘이 되는 남자.
ㅇ 족손(族孫) : 유복지친[(팔촌(八寸)] 이외의 손자(孫子) 항렬이 되는 남자, 족대부(族大父)
ㅇ 비조(鼻祖) : 자기 성씨의 태초의 시조(始祖). 원조(元祖).
ㅇ 시조(始祖) : 자기 성씨의 맨 처음되는 조상(祖上).
ㅇ 비족(鄙族) : 자기 일가를 타인한테 말할 때의 겸칭.
ㅇ 당신(當身) : 웃어른을 높이어 일컫는 말. : 존대(尊臺) : 존경하는 당신.
ㅇ 자기(自己) 할아버지 할머니만, 할아버지이지. 남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할아버지 해서는 안 된다. 어르신이다.
ㅇ 외숙 · 아저씨 · 외숙모 · 아주머니: 어머

니의 형제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ㅇ 이모 · 아주머니 · 이모부 · 아저씨: 어머니의 자매와 그 배우자를 부를 때.
- ㅇ 외종(外從) : 외종 사촌(어머니의 친정 오빠나 남동생 아들 딸.)
- ㅇ 외종숙(外從叔) : 어머니의 사촌 오빠나 아우.
- ㅇ 외종숙모(外從叔母) : 외종숙의 아내(어머니의 사촌 오빠나 아우 부인)

16) 기타 처가 가족에 대한 칭호

- ㅇ처백부(妻伯父):아내의 백부. 아내의 큰아버지.
- ㅇ 처백모(妻伯母):아내의 백모. 아내의 큰어머니.
- ㅇ 처숙(妻叔):아내의 숙부. 처삼촌 처숙부.
- ㅇ 처숙부(妻叔父):아내의 숙부, 처숙.
- ㅇ 처숙모(妻叔母):아내의 숙모.
- ㅇ 처장조(妻丈祖):처조부. 아내의 친정 할아버지.
- ㅇ 처장조모(妻丈祖母):아내의 친정 할머니.
- ㅇ 처질(妻姪):아내의 친정조카. 처조카.
- ㅇ 처질녀(妻姪女):처조카딸. 아내의 친정 질녀.

3. 사돈(査頓)에 대한 칭호

ㅇ 사돈(査頓)의 뜻:사돈이란 여자가 시집갔을 때 여자의 친정 가족과 시댁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한다. 사돈 간에도 사행(査行)이라 해서 세대의 상하를 엄격히 가려야 하고, 사용하는 칭호도 매우 엄정해야 한다.

- 사형(査兄):바깥 사돈사이에 상대편을 높이어 일컫는 말.
- 사장(査丈)어른:윗세대 사돈 남녀에 대한 칭호이다. 윗세대 사돈이란 며느리의 친정 조부모, 딸의 시조부모, 형수나 제수의 친정부모, 자매의 시부모 등과 같이 자기보다 윗세대인 사돈을 말한다.
- 사돈(査頓):같은 세대의 동성끼리의 사돈으로서 연령이 10년 이내 연 상까지를 말한다. 여자의 친정과 시댁의 아버지끼리 서로를 말할 때.
- 사돈(査頓)어른:같은 세대의 이성(異性)간의 사돈이나 동성이라도 자기보다 10년 이상 연상일 때 말한다. 여자의 친정아버지를 말할 때.
- 사돈양반:아래 세대의 기혼 이성인 사돈을 말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오라비,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올케나 형, 친정아버지가 딸의 시누이나 동서, 친정어머니가 딸의 시숙이나 시동생을 말할 때.
- 사돈도령 · 사돈총각:미혼 남자인 사돈을 말할 때.
- 사돈처녀 · 사돈아가씨:미혼 여성인 사돈을 말할 때.
- 사돈아가씨 · 사돈아기:어린 사돈에 대한 칭호.

4. 직장(조직 사회)에서의 칭호

1) 상급자에 대한 칭호

ㅇ 부장님 · 과장님:자기가 소속된 부서의 상급자는 직급 명예 '님'을 붙인다.

ㅇ 서무부장님 · 총무과장님:다른 부서의 상급자는 부서명을 위에 붙인다.

ㅇ ㅇ부장님 · ㅇㅇㅇ과장님:같은 직급에 여러 사람이 상급자가 있을 때는 성이나 성명을 위에 붙인다.

ㅇ 부장 · 과장:상급자에게 그 하급자이면서 자기에게는 상급자를 말할 때는 '님'을 붙이지 않고 직책과 직급 명만을 말한다.

5. 학교에서의 칭호

1) 선생님에 대한 칭호

ㅇ 교장선생님:정규학교의 가장 어른인 선생님을 부를 때와 말할 때.

ㅇ 교감선생님 · 행정실장님:자기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특별한 직책을 가진 어른을 부를 때는 그 직책을 붙인다.

ㅇ 원장선생님:명칭이 학원으로 된 교육기관의 가장 어른인 선생님을 부를 때.

ㅇ 선생님: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자기가 다니는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부르거나 말할 때.

2) 학생에 대한 칭호

ㅇ 너 · 이름:선생님이 미성년인 자기 학교 학생을 부를 때(고등학교까지 적용된다).

ㅇ 자네 · ㅇㅇㅇ군:선생님이 성년인 자기 학교 학생을 부를 때(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ㅇ 학생 여러분 · 제군(諸君):선생님이 학생을 집단적으로 말할 때.

ㅇ 학생:일반적으로 학생을 부를 때.

6. 친구 부모님에 대한 칭호

○○의 아버님, 어머님:친구, 남의 부모를 직접 부르든가 다른 사람에 게 말할 때는 누구의 아버님, 어머님이라 한다.

○ 친부모님:아버님 어머님:
편지 · 일기 · 제사(祭祀) · 지방(紙榜) · 축문(祝文) 등 문자로 기록할 때.

7. 압존법(壓尊法)

어른이나 윗분에 대한 공대(恭待)가 그분보다 더 웃어른 앞에서 합석 (合席)시 직접 부르는 호칭 외 지칭시 존칭을 줄인다.

합석시:아버지 · 어머니 · 형님 , 지칭시 : 애비 · 에미 · 형이라 함.

※ 조부모(祖父母)님 앞에서 부모를 지칭할 때 애비 · 에미라 하고, 큰아버지 고모, 촌수가 먼 방계 어른 앞에서는 아버지 · 어머니(호칭 지칭)라 한다.

※ 부모(父母)님께 편지봉투 서식

주소:부모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157번지
자기성명 본가(本家) 또는
본제입납(本第入納)

※ 선생님께 편지봉투 서식

성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157번지
홍 길 동 올림
선생님 주소: 전남○○군 ○○면 ○○리
신 봉 순 선생님 귀하(貴下) 또는 좌하(座下)

※ 편지를 받은분 지위 고하(高下)에 따라 귀하(貴下) 또는 좌하(座下), 존 하(尊下)라 쓴다.

후면 안쪽에 넣고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양한 해외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예절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은 개인주의 성향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해외 풍조에 길들여져 질서와 형식을 중요시하는 우리의 전통가치(傳統價値)를 외면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예의범절(禮儀凡節)을 배우고 익혀 실생활에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예절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유교 이념에 입각한 전통예절은 보존가치가 높은 생활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바른 예절생활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밝고 따뜻하게 하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지리학의 근원 (地理學의 根源)

유 덕 종
풍수지리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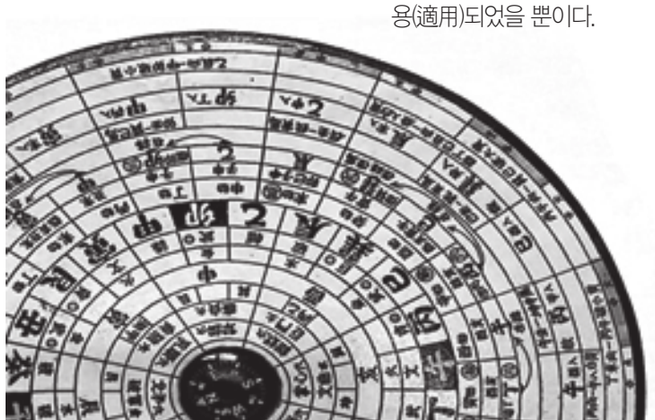
지리학은 원래 고대중국(元來古代中國)에서 발상(發祥)한 것으로 인류문화(人類文化)가 시작하면서부터 풍수문화(風水文化)를 기초(基礎)로 하여 집터를 잡고 가정생활(家庭生活)을 시작하였다.

그 다음에는 마을과 마을이 생겨 이를 통괄하는 면(面) 소재지 터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생활여건이 확대되어 군청(郡廳) 소재지가 생기고 나아가서 도청(道廳) 소재지가 조성되고 일국의 수도(首都)가 생길 때 풍수사상(風水思想)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만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풍수문화의 원천을 살펴보면 이는 중국의 진(秦)나라 때에 주선도(朱仙桃)라는 사람이 땅의 이치를 기본으로 하여 풍수를 응용(應用)하며 수산기(搜山記-산에서 명당을 찾는다)라는 저서를 만들었는데 신비(神秘)하게도 인류생활에 미치는 영향(影響)과 적중(的中)하므로 이 사실이 조정(朝廷)에까지 알려져 진시왕(秦始王)은 이를 압수(押收)하여 왕실에서만 이 비결(秘訣)을 사용토록 하고 일반인(一般人)에게는 이를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 지리학(地理學)에 의하여 아무나 묘를 잘 써서 왕(王)이 나오면 왕실(王室)의 전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防止)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 한(漢)나라 때에는 청오자(靑烏子)라는 사람이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응용(應用)하여 청오경(靑烏經)이라는 경전(經典)을 만들었는데 이것 역시 왕실(王室)에서만 적용(適用)되었을 뿐이다.



1. 풍수지리의 의의

풍수지리학은 음택(陰宅)와 양택(陽宅)으로 구분되는데 음택은 묏자리, 양택은 집터와 건물을 말한다. 음택과 양택이 인간에게 미치는 길흉화복(吉凶禍福)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풍수지리학이다.

음택이란 사람이 죽어서 태아나기 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땅속의 유택(幽宅)을 말하고, 양택은 넓게는 대지 · 공장 · 사무실 · 점포 등 모든 건조물이 해당되지만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양택이란 가족과 같이 생활하는 주택을 말한다. 풍수지리라면 음택이 전부이고 양택은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숭조사상(崇祖思想)과 발복(發福)이라는 음덕(蔭德)을 중요시한 데서 기인한 것이다.

풍수지리학을 음택 · 양택 · 지리(地理) · 감여(堪輿), 또는 도참설(圖讖設)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풍수지리학으로 음택과 양택의 길흉화복을 판별하는 사람을 지관(地官) · 지사(地師) · 지가사(地家師) · 풍수(風水) 등이라 일컫는다. 지방에서는 지관으로 통칭되기도 하나 지금은 일반적으로 풍수라고 부르고 있다.

– 음택에서는 땅이 좋은 묏자리를 명당(明堂) · 혈(穴) · 길지(吉地) · 대지(大地)라고 말하고, 땅이 나쁜 묏자리를 비혈(非穴) · 망지(亡地) · 흉지(凶地)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풍수지리에서는 좋고 나쁜 땅을 장법(葬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 양택도 음택과 마찬가지로 지기(地氣)가 중요시되지만, 양택에서는 공기 · 바람 · 일광 · 물 등의 기운이 더 중요시된다. 양택도 음택과 같이 매립지나 토질이 나쁜 사토질(沙土質) 같은 데에서 생기를 받지 못한다. 양토의 집터와 주위에 있는 지세(地勢)가 음택에서 말하는 사신사(四神砂)와 같이 보국(保局)이 병풍이나 성곽처럼 감싸주면 장풍(藏風)이 되어 기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장풍이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防風)이 아니라 바람을 감춰 주는 것을 말한다.

2. 동기감응(同氣感應)

동기감응이란 동질의 기는 서로 감응한다는 뜻으로서, 명당(明堂)과 발복(發福)의 인과관계를 말한다. 사람이 죽어 명혈(明穴)에 매장되면 뼈가 황골로 변한다는 것은 위에서도 말한 바 있다. 뼈가 혈에서 생기를 타면 기운이 자손과 감응(感應)이 되어 그 영향을 받은 자손은 번성하고 부귀(富貴)를 누리게 된다는 음덕(蔭德)

을 말한다.

풍수의 목적은 첫째가 혈이므로 혈에서 발복이 되어야 풍수의 꽃이 될 수 있다. 만일 혈에서 발복이 없다면 허화(虛花)와 같은 것이다.

명당과 인간, 즉 명당과 발복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檢證)할 수는 없으나, 선인(先人)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면 충분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동기감응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고사(故事)가 있다.

(1) 동산서붕령종동응(銅山西崩靈鍾東應 : 동산과 구리로 만든 종은 동질이므로 서로 감응이 된다)

동산(銅山)이란 중국의 서촉(西蜀)지방에 있는 구리가 많이 나는 산을 말하고, 영종(靈鐘)이란 중국 한나라 때의 궁성에 있는 구리로 만든 종을 말한다.

어느 날 궁성에 있는 종이 사람이 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종소리가 났다[自鳴]. 하도 이상하여 황제가 종이 스스로 울리는 원인을 묻자 대답하기를, "서촉지방에 있는 동산(銅山)이 무너졌는데, 구리가 많이 나오는 동산과 궁성에 있는 종과는 같은 동질(同質)이기 때문에 서로 감응이 되어, 즉 서로 교감(交感)이 되어 그렇다."고 하였다.

이렇듯 물건도 기가 같으면 동기감응이 되는데 하물며 동질인 조상과 자손 사이의 동기감응은 당연하다는 뜻의 고사이다.

– 실제적인 결과가 분명한 것은 명당이라고 하는 길지(吉地)에 시신(屍身)을 매장하면 생기를 받은 뼈가 황골이 되어 수백 년간 보존되며, 같은 혈족인 자손은 번성하고 잘 살게 된다는 사실이다.

– 반면에 비혈망지(非穴亡地)에 시신을 매장하면 부골(腐骨)이 되고 바람과 물, 벌레 등이 침범하여 뼈가 녹아 없어지며, 그 자손은 각종 질병과 손재를 당하거나 요수(夭壽)하게 된다. 이는 많은 장사(葬事)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3. 풍수의 이해

풍수지리의 목적은 생기와 동기감응으로 발복을 받는 데 있으나, 발복을 위한 수단으로만 삼는다면 본말(本末)를 모르는 발살이 아닐 수 없다.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살았을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 다시 말하면 부모에 대한 효는 무덤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한다.

명당을 구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며, 그것만이 대효(大孝)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비록 혈은 없다 하더라도 풍수지리의 목적과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맥(生脈)을 찾아 물과 바람을 피하고 양지바른 생토에 시신을 안장하여 영혼이 편안하게 영면(永眠)토록 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고향이 되며 진정한 효가 되는 것이다

명당(明堂) 찾는 비결(秘訣)

◈ 대자연(大自然)과 인간관계(人間關係)

1. 인간(人間)은 자연(自然)에서 와서 자연(自然)속에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2. 바람(風)도 이(利)로운 바람이 있고 해(害)로운 바람이 있다.
3. 물(水)도 맛좋은(甘味)물과 맛나쁜(辛未)물이 있다.
4. 방위(方位)와 좌향(坐向)도 좋은(吉地)곳과 나쁜(凶地)곳이 있다.
5. 수맥(水脈)이 지나는 집터(陽宅)나 묘터(陰宅)는 모두 나쁘다.
6. 자연(自然)은 우리에게 유리(有利)하게 하고 불리(不利)하게 한다.
7. 고(故)로 유리(有利)한 곳은 취하고 불리(不利)한 곳은 피(避)해야 한다.

◈ 땅의 비밀(秘密)을 소개(紹介)한다.

1. 땅은 길지(吉地)와 흉지(凶地)로 나누어져 있다.
2. 집터(陽宅)와 묘터(陰宅)는 좋은(吉地)터와 나쁜터(凶地)가 있다.
3. 좋은(吉地)터는 땅기운(氣運)이 모이고 바쁜 터는(凶宅) 땅기운이 흩어진(氣散)다.
4. 나쁜 집(凶宅)터에서 살면 각종질병(各種疾病)이 발생한다.
5. 그러므로 땅에는 명가(名家)와 흉가(凶家)가 있다.
6. 우리는 땅에서 나온 식물(植物)의 열매를 먹고 산다.
7. 그러므로 땅은 만물(萬物)의 어머니이다.

특집 Ⅰ | 북구, 문화로 멀리 뛰기

– 꽃잎과의 동행 "화전놀이의 유래" / 김정희(시인, 지역문화교류재단 「창」편집장)
– 골드 Gold로 살기"황금씨앗으로 저물어가기" / 전 숙 (시인, 전, 나주금안 보건소장)
– 중외공원에 다시 건립된 안중근의사 숭모비 / 노성태 (국제고 수석교사)

꽃잎과의 동행

화전놀이의 유래

김 정 희(시인)
지역문화교류재단 『창』 편집장

화전놀이는 삼월삼짇날을 전후하여 집안의 여성들, 특히 시집온 며느리들이 함께 모여 놀이를 위해서 장막을 세우고 참꽃으로 지짐을 지져 먹으며, 가무를 즐기던 여성 놀이에서 유래했다. 화전놀이는 화류(花柳), 또는 회취(會聚)라고도 하는데 16세기의 시인 임제(林悌)는 홍만종의 『순오지(旬五志)』 상권(上卷)에 시 한편을 남겼다. 이 시를 읽어 보면 당시에는 남성들도 낭만적인 화전놀이를 즐겼던 것으로 보인다.

"작은 개울가에 돌 고여 솥뚜껑 걸고,
기름 두르고 쌀가루 얹어 참꽃[杜鵑花]을 지졌네.
젓가락 집어 맛을 보니 향기가 입에 가득,
한 해 봄빛이 배속에 전해지네."

화전놀이의 전통은 신라시대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신라의 궁인들은 송화(松花)가 가득한 골짜기에 모여서 꽃을 꺾으며 봄놀이를 하였다. 송화 골짜기의 입구에 초막을 얽어 놓고 꽃과 송화로 지짐을 지져 먹으며 꽃놀이를 즐겼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 초막을 송화방(松花房)이라고 불렀다고 나온다. 이런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도성의 남녀들이 떼 지어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기록과 "매양 한번 술자리를 베풀면 반드시 음악을 하였고 해가 저물어서야 헤어져 돌아갔다"고 나온다. 귀가(貴家)의 부인들도 장막을 설치하고 며느리들과 진달래꽃이 필 때 화전 놀이를 자주 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후기에는 여성들이 화전놀이의 과정과 소회를 담은 화전가(花煎歌)를 창작하여 즐기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여 밖으로 나가 꽃싸움이나 꽃단치기를 하고, 두견화전을 부쳐 먹었다. 젊은 새댁이나 처녀들이 화전을 두고 각기 가사를 지으면 좌상노인이 장원을 뽑았으며 노소가 참석하여 1명이 한 구절씩 불러서 장편가사인 〈화수가 花隨歌〉를 짓기도 했다. 이날은 여성들에게 1년 중 가장 즐거운 날의 하나였다. 간송미술관 소장의 신윤복 그림 「상춘야흥」이나 「연소답청」 등을 보면 경치 좋은 계곡에서 선남선녀가 음악과 놀이, 음식 등을 즐기는 것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다. 고려말기의 문신 이승휴는 여름철 장미가 피면 열리는 「장미연」이라는 연회에 참석한 뒤 이에 대한 시구를 남기기도 했다.

"사관(史館)의 뜰 가운데 장미가 한 그루 있는데 줄기와 둥치가 무성하여 마치 일산을 펼쳐 놓은 듯하다 꽃이 흐드러지면 관각(館閣)의 한림들이 반드시 모여 술을 마시고 감상하는 것을 대계 상례로 삼았는데 이를 장미연(薔薇宴)이라 하였다 (중략) 승휴가 운에 의거하여 한 수를 지어 올린다"

규장각 교양총서 〈놀이로 본 조선〉을 보면 조선 선비들은 계절에 따라서 각자 다른 꽃놀이를 즐겼다. 봄에는 상화회, 여름에는 피서음, 가을에는 황국음, 겨울에는 난로회가 있었다. 연회 이름이 전부 다른 것처럼 감상하는 꽃의 종류와 노는 방식도 제각각이었다. 그 중에서도 여름의 피서음과 가을의 황국음은 독특한 형태를 띤다. 피서음에서는 벽통음이라 하여, 연잎에 술을 담은 다음 연밥과 연잎 사이에 구멍을 내어 술이 통하도록 한 뒤 그 끝을 구부려서 마시는 것이 크게 유행했다. 가을 황국음에는 국화 그림자놀이라는 것이 있었다. 해가 진 뒤 어두워지면, 선비들은 방 안의 물건을 전부 치운 뒤 등불을 켜고 흰 벽에 비춰지는 국화 그림자를 감상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이에 대해 [국화 그림자 놀이]라는 제목의 글을 짓기도 했다.

이외에도 선비들은 운치 있는 꽃놀이를 위한 규약을 정해두었다. 꽃놀이를 나갈 때 날씨를 개의치 않기로 하고, 옷과 신발을 아까워해 가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내렸다. 이동할 때는 모두 보조를 맞췄으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주었다. 꽃구경을 할 때 꽃을 꺾는 사람에게도 벌칙이 있었다. 또 술을 마실 때의 규약도 정해져 있었다. 전원이 술을 마시되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은 꽃 아래에 술을 붓고 "삼가 꽃의 신이시여 주량을 살피소서. 주량이 정말 적으니, 이 때문에 술을 땅에 붓습니다"라고 사죄해야 했다. 그러나 술을 남겨둔 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벌칙을 받았다. 이런 꽃놀이 문화에는 선비들만이 즐길 수 있는 우아미가 깃들어 있다.

화전에는 진달래꽃만 넣는 것이 아니라 계절마다 좋은 꽃을 넣었다. 봄에는 진달래 꽃잎으로 두견화전(杜鵑花煎)을 부치거나 배꽃으로 이화전(梨花煎)을 부치고 여름에는 장미꽃으로 장미화전(薔薇花煎), 가을에는 황국화와 감국 잎으로 국화전(菊花煎)을 부쳐 먹었다. 꽃이 없는 겨울에도 붉은 대추와 까만 석이버섯을 오려 떡 위에 꽃처럼 붙인 화전을 만들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흩날리는 꽃잎과의 동행으로 우리 조상들은 어쩌면 그토록 아름다운 놀이를 즐기며 담장 밖 세상과 소통을 하였는지. 가끔 스스로 물들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색깔과 물들며 그만큼 많은 색깔을 지우기도 했다. 아마 계절마다 다르게 피어나는 꽃과 꽃잎을 좋아하는 탓이 아닐까. 주변을 돌아보면 꽃은 지면서 다시 피어난다. 이제 잠시 꽃잎 멈춘 겨울 긴 밤에 붉은 대추 몇알 송송 다져 흰 쌀가루 반죽위에 꽃잎 모양 오려 붙여 화전을 부친다. 가끔 우리가 잊고 지내던 옛 사람의 지혜를 떠올려 보자. 지나 온 길이지만 다시 걷고 싶은 길이 분명 있다.

골드Gold로 살기

황금씨앗으로 여물어가기

전 숙(시인)
전 나주금안 보건소장

서쪽 하늘의 노을이 이글거리는 겨울 저녁참이다. 눈가는 곳마다 삽상하다. 억새는 갈빛으로 물들어 제 목숨의 가장 아름다운 빛을 뿜어내고 있다. 활엽수들은 잎을 떨구고 나목으로 서서 돋을무늬를 펼쳐내고 있다. 드문드문 웅크리고 통증을 토해내는 나무의 옹이를 안아주고 싶다. 옹이라는 흉터를 온몸에 거느린 나무의 수고에 눈물겨워진다. 그러나 나무는 상처인 옹이를 통해 가장 진한 향을 뿜어낸다고 한다. 어느새 나와 내 주변도 푸른 잎을 떨군 돋을무늬 같은 주름살로 바뀌고 있다. 주름살마다 옹이 같은 향기 한 줌씩 품고 묵언수행의 정진 중이다. 옹이처럼 향기 나는 시간이 노년기다.

데자뷰 현상이란 게 있다. 생전 처음 접하는 장소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눈에 익고 예전에 똑 같은 현상을 겪어본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데자뷰는 프랑스어로 이미(Deja) 보았다(vu))는 뜻이고 또는 '기시감(旣視感)'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매우 신비한 느낌을 준다. 나이 들어 살다 보면 너무 많은 데자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언젠가 본 것 같고 언젠가 경험한 것 같은 상황들에 맞닥뜨릴 때마다 당황스럽다. 그리움이랄까? 아쉬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 것만 같다.

퇴직 이후의 삶을 노년이라 부르기에는 어쩐지 거부감이 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낀 세대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최선을 다한 정말 열심히 산 6 · 25 이후의 베이비붐세대가 바야흐로 노년기에 진입하고 있다. 어려서 고생했지만 유사 이래 우리나라 세대 중에서 가장 잘산다는 경제력 있는 세대다. 어떻게 해야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라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 노년은 이제 씨로 돌아가는 과정이니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다. 기도하듯 살아가야 한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정화수의 시간이다.

'노인'이라는 말은 우선 어감에서 부정적이다. 그리고 노인들이 노인이라는 말을 싫어한다. 노인(老人)은 평균 수명에 이르렀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end of human life cycle)이다. 어르신이라고도 부르나, 그 외에도 늙은이, 고령자(高齡者), 시니어, 실버 등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한 나라나 지역에 노인이 많으면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분류가 된다. 노인만을 위한 시설로는 경로당, 노인정, 노인 대학 등이 있다.(위키백과)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인구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시 고령화 현황 및 노인복지지설 진단'을 한 결과 광주는 2030년에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가 초고령사회 기준인 전체의 20%를 넘어선 21.9%를 기록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5명 중의 1명이 노인인 사회에 직면해 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 광주도 노인문제가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의 6 · 70대가 자기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선 노인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 아니 노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바꿔야한다. 늙을 노老자에 흙토土자가 들어 있는 걸 보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지금 65세가 흙으로 돌아갈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노년기란 인생의 휴가기라고 생각한다. 80이 넘어서 한글을 배워 평생 한이었던 까막눈에서 벗어난 어르신들이 당신들의 이야기를 시로도 쓰고 자서전도 쓰면서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지금껏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멈춘 것이다. 지금부터의 시계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노년기는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것들을 해낼 제2의 인생의 황금기, 휴가기, 보너스의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노년'을 '황금년'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다. 노인이 사회의 짐이 될 것인가? 사회의 보배가 될 것인가는 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정년이 없다. 그러기에 정년 이후의 삶이 사회문제가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자기가 감내할 정도의 일을 하면서 노년기를 보낸다. 얼마 전 미국의 모 햄버거회사에 70이 넘어 취업을 해서 90이 넘어 퇴직한 노인의 뉴스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 회사 같으면 어림없는 이야기다. 우리도 정년 이후에 자신의 본업과 상관없는 직종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90 넘어서까지 취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김종 시인은 그의 시집『궁금한 서쪽』에서 살아가는 일을 젖고 마르는 일이라고 한다. "꽃은 씨앗이 되기 위해 제 몸을 말리고 씨앗은 꽃이 되기 위해 물기 적셔 몸을 불린다." 김종 시인은 이어서 그의 시「지상의 얼룩」에서 "다음 세상으로 옮겨 씨앗이 되어라"고 주문한다. 그렇다. 노년기는 씨앗으로 잘 여물어가야 할 시기다. 자신을 담금질해서 어디에서든 노을처럼 아름답게 불타고 황금씨앗으로 여물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년기 아니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야할까? 황금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건강이나 경제력, 친구, 이웃, 종교, 취미, 봉사 등이 있을 것이다. 일단 노인 스스로가 즐겁고 보람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노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을 응원하고 있다.

참고로 북구문화원의 문화강좌는 풍수지리, 생활영어, 전통고전한문, 판소리민요교실, 수묵화, 예절지도사 양성교육(전통문화), 노래교실, 하모니카, 오카리나, 전통 고전무용, 나만의 사진 찍기 등이 있고 서구문화원의 문화강좌는 광주마을인문학, 한땀한땀 규방공예, 우쿨렐레, 하모니카, 부모가 배우는 사자소학+명심보감, 연극, 사진, 오카리나, 시낭송, 캘리그라피, 문예창작, 팬플룻, 영화로 배우는 영어, 웃음치료 등이 있다. 비슷비슷한 강좌로 노인들을 응원하고 있지만 무언가를 배우고 펼쳐나가는데 필요한 취미활동이 대부분이다.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고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꼭 필요한 보배가 되기는 어려운 강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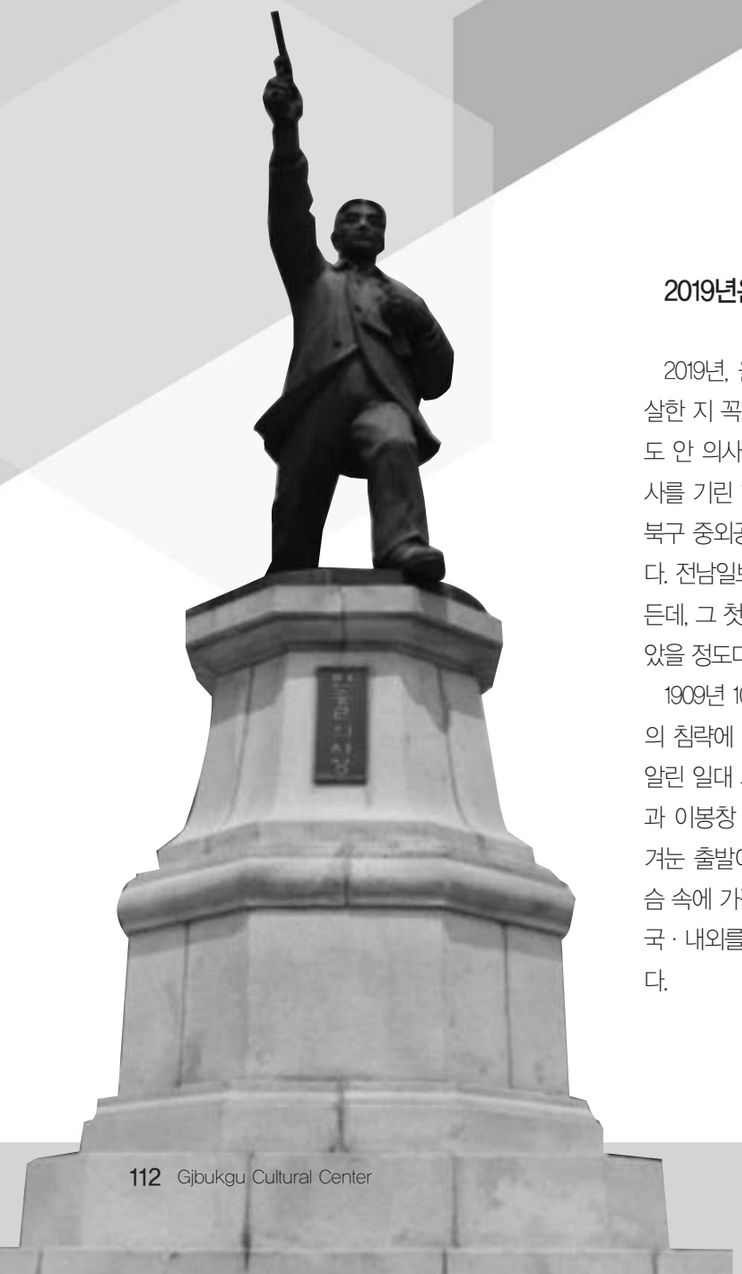
나는 여기에 공익을 끌어들였으면 한다. 골드자원봉사대를 만들어 지역의 청소나 불우 청소년 상담, 장애인 차량봉사 등 그 영역은 무궁무진 할 것이다. 가정의 배출 쓰레기가 쓰레기봉지로 일원화 되면서 쓰레기통이 사라진 거리는 쓰레기장이 되어간다. 시내에서 조금만 떨어져 청소원이 없는 공원이나 거리 야산 등은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다.

개인적으로 동네 쓰레기를 주우려하나 금방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물론 말없이 실천하는 개인도 많지만 그 수많은 노인 강좌에 자원봉사를 넣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구문화원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펼치는 환벽당, 풍암정, 취가정 등의 정화활동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동네공원 하나 내 공원으로 점 찍어두리/아침이면 차양 넓은 모자를 쓰고 잡풀을 뽑다가/어린 풋것들은 설핏 눈감아주리/함부로 쓰레기를 버린 이에게 속소리로 지청구 하며,/내 나이든 뜨락을 마음껏 가꾸리(전숙의「노을이 되어」).

중외공원에 다시 건립된 안중근의사 숭모비

노 성 태
국제고등학교 수석교사/역사



2019년은 안중근 의거 110주년의 해

2019년,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지 꼭 110주년이 되는 해다. 100주년에 이어 올해도 안 의사를 기리는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렸다. 안의사를 기린 행사 중 단연 압권은 10월 25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외공원에 재 건립된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다. 전남일보는 2019년 광주 · 전남 10대 사건을 선정했든데, 그 첫 번째 사건으로 '안의사숭모비 재건립'을 꼽았을 정도다.

1909년 10월 26일 안 의사의 하얼빈 역 의거는 일제의 침략에 맞선 한국인의 기개와 당당함을 전 세계에 알린 일대 사건이었고, 봉오동 · 청산리의 독립군 대첩과 이봉창 · 윤봉길 의사 등이 일제의 심장을 총칼로 겨눈 출발이 되었다. 오늘 안중근의사가 한국인의 가슴 속에 가장 뜨거운 인물로 남아 있는 이유다. 때문에 국 · 내외를 막론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물이 많다.

나주 채석상에서 우연히 발견된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

안 의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대표적인 장소는 그가 태어난 황해도 해주와 삼흥 · 돈의학교를 세워 애국계몽운동을 벌였던 진남포, 연추의병을 결성하고 단지를 잘라 이토 격살을 다짐했던 연추하리(지금 크라스키노), 의거지인 하얼빈, 순국지인 뤼순 감옥 등이다.

삼흥 · 돈의학교를 운영했던 진남포에는 '애국열사 안중근선생기념비'가 서 있고, 1909년 3월 단지를 잘라 이토 격살을 다짐했던 연추 하리에는 단지동맹비가, 의거지인 하얼빈 역내에는 별 7개 문양이 새겨진 삼각형 모양의 의거지 표석이, 그리고 하얼빈 역사에는 안중근의 일생을 정리한 안중근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내 죽으면 묻어달라고 했던 하얼빈 공원(지금 조린공원)에는 '푸른 풀이 돋아나는 언덕'이라는 독립의 희망을 쓴 '청초당(靑草塘)'이라는 글씨와, 이백의 시를 차운한 그의 시 '망여산오로봉(望廬山五老峰)'에 나오는 '연지(硯池)'를 앞뒤로 새긴 뒤 단지된 모습의 수인(手印)이 새겨진 비가 서 있다. 그리고 그가 순국한 뤼순 감옥에는 1909년 11월 3일 밤부터 1910년 3월 25일 밤까지 144일 밤을 지낸 감방이 '조선애국지사 안중근을 구금한 감방'이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다. 뤼순감옥 가까이에는 안 의사가 열한차례의 심문과 여섯 번의 공판 끝에 사형선고를 받은 관동법원도 남아 있다. 관동법원 법정은 안 의사가 이토 격살의 죄목을 만천하에 고한 장소다.

감방 안은 침대 하나가 놓여있고 '국가안위노심초사(國家安危勞心焦思)' 등 200여 점의 유묵과 '안응칠 역사', '동양평화론'의 서(序) 부분을 집필한 책상 하나가 당시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안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교수형을 당했던 장소에는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하얀 한복 수의(囚衣)을 입은 안 의사 영정이 놓여있다. 이곳에서 안 의사는 공소(항고)를 포기 한 채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대한의 남아답게 순국한다.

그런데, 일제가 안 의사를 교수형에 처한 시간

이 10시였다. 10시, 그것은 이토가 9시 30분 안 의사의 총을 맞고 죽은 10시, 그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일제의 치졸한 보복이었다.

안중근 의사숭모비, 중외공원에 다시 건립되다

1961년 12월 3일 광주공원에 건립된 전국 최초의 안중근의사 숭모비는 1971년 4월 성거사지 5층 석탑 위쪽으로 옮겨졌다가, 1987년 중외공원으로 다시 옮겨지는 수모를 당한다.

1987년 중외공원으로 이전된 안 의사 숭모비는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광복 50주년이던 1995년, 전국적인 일제 잔재청산 및 항일열사를 기리기 사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이때 행해진 친일청산의 상징은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였다.

광주에서도 곡성 출신인 안학선을 회장으로 안중근 의사 동상 추진위가 구성되었다. 동상은 조각가인 전남대학교 미술대학의 김대길 교수가 권총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제작하였고, 조각상의 글자 '안중근의사상'은 서예가인 장전 하남호가 새겼다. 국내에 제작된 권총을 든 안 의사 동상은 최초다.

재 건립된 안중근 의사 숭모비(중외공원)

그런데 동상 건립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예산이 부족하여 새로운 기단을 만들 수 없었던 동상 추진위는 안중근의사숭모비의 기단과 좌대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래서 좌대 위에 서 있던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가 내려지는 수모를 당했고, 안 의사 숭모비가 내려진 자리에 권총을 든 안의사 동상이 올라갔던 것이다. 안의사 숭모비는 내려진 후 동상 뒤 언덕에 세워두었다고 하는데 이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리고 24년이 흘렀다.

전남일보는 2019년 2월 25일자 1면에 안중근 의거 110주년을 맞아 '2019년 대 역사의 해 전남일보 특별 기획'으로 "전국 제1호 '광주 안중근 숭모비'가 사라졌다"는 제목을 뽑고, 잃어버린 안의사 숭모비를 되찾아 다시 건립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다. 그리고 지난 3월, 24년 전 사라진 후 행방이 묘연했던 '전국 제1호 안중근의사숭모비'가 전남 나주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됐다. 자칫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숭모비를 다시 찾기까지는 '매의 눈'을 가진 나주 다시면에 거주하던 이근준(47)씨의 공이 컸다.

이근준씨는 3년 전 고향인 나주 다시면에 주택을 신축하던 중 조경석이 필요해 금천면의 한 석재상을 찾았다. 조경석으로 쓸 돌을 구하기 위해 석재상 뒤 야적장을 살피던 이씨는 돌무더기 속에 반듯이 누어있는 큼지막한 비석을 발견했다. 이씨는 돌무더기에 가려진 채 일부 모습을 드러낸 비석에서 한문 전서체로 '안중근'이라고 새겨진 이름을 발견했다. 순간 예사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이네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3년이 훌쩍 지나갔다. 비석을 기억 속에서 잊고 있던 이씨는 2월 25일 식사를 하기 위해 찾은 나주의 한 식당에서 '사라진 안중근 의사 숭모비를 찾는다'는 전남일보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근준씨는 3년 전 본 비석이 안 의사 숭모비일 것으로 확신하고 다시 나주 금천면의 석재상을 찾았다. 3년이 흘렀지만 다행히도 안 의사 숭모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농사를 지으며 부업으로 틈틈이 비문 글씨를 컴퓨터로 옮겨주는 일을 하고 있는 이씨는 석재상에서 비석을 꼼꼼하게 다시 살폈다. 비석에서 '大韓義士 安公重根 崇慕碑'(대한의사 안공중근 숭모비)라는 비명을 확인한 이씨는 안중근 의사 숭모회로 사진을 보냈고, 안중근 의사 숭모회는 '잃어버린 숭모비가 맞다'고 답신을 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 안의사 숭모비가 나주 금천면의 석재상으로 옮겨졌는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근준씨는 돌무더기 속에 비석이 계속 방치돼 있으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비로 숭모비를 매입한 후 광주광역시에 기증의사를 밝힌다.

나주에서 잃어버린 안의사숭모비가 발견되고 이근준씨가 광주광역시에 기증의사를 밝히자, 광주광역시는 "안중근의사 숭모비 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숭모비가 마지막 위치했던 중외공원 안중근 동상 곁에 재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1961년 광주공원에 건립된 최초의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는 안중근 의거 하루 전인 2019년 10월 25일 중외공원에 재 건립되었다. 중외공원에서 사라진지 24년만이었다.

왜 남도인들은 안중근을 가슴에 품고 살까

국내에도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기념 시설이 많다. 1971년 개관한 서울 남산의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안 의사 동상과 기념비, 유묵비 등이 서 있다.

그런데 안 의사 기념시설이 광주 · 전남, 즉 남도에 유독 많다. 1957년 우리나라 유일의 안중근 사당인 해동사(海東祠)가 장흥군 장동면에, 이미 소개한 것처럼 심산 김창숙 선생이 주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안의사 숭모비(崇慕碑)가 전남인이 앞장서고 전 국민이 호응해서 1961년 광주공원에 세워진다. 전국 15개 안중근 동상 중 5개가 광주 · 전남에 있다. 5개 중 최초의 안중근 동상은 처음 남산에 건립되었다가 광주 상무대로 옮겨진 후,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할 때 또 옮겨진다. 안중근 동상은 광주 중외공원과 상무공원, 함평 김철 기념관과 정동진에도 서 있다.

안중근 의사는 살아생전 한 번도 남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무장독립운동의 출발을 알린 안중근을 기리는 기념물이 남도에 집중되어 있을까? 이는 안 의사의 시대정신과 남도인들의 정체성이 맞닿아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남도는 박상이 목숨을 걸고 '신비복위소(愼妃復位疏)'를 올려 정의로움의 깃발을 든 이후, 항일과 독립, 민주화를 쟁취해 낸 실천지였다. 임진왜란 3대첩은 호남인들에 의해 이룩되었고, 호남은 반외세를 부르짖은 동학의 최대 거병지였을 뿐 아니라, 한말 최대 의병항쟁지였다.

2019년 10월 25일 재 건립된 안의사 숭모비와 안중근 동상(중외공원)

1909년의 경우 참여전투의 47.1%, 참여의병수의 60%가 호남인이었음은 그 증거다. 또한, 광주는 3 · 1운동 이후 최대 항일독립운동인 광주학생항일운동이 불붙은 발원지였다. 그리고 해방이후에는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당당함'과 '정의로움'이라는 정체성을 실천한 지역이었다.

왜 남도인은 안중근의사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안 의사가 추구한 '정의로움'과 '당당함'이 우리 지역민의 정체성과 딱 맞아 떨어진 때문은 아닐까 싶다.

24년 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극적으로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전국 최초로 광주공원에 건립된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大韓義士安公重根崇慕碑)'가 지금 북구 중외공원에 안중근 동상, 광주3 · 1운동기념탑, 하서 김인후 동상과 함께 당당하게 서 있다.

지금 북구 중외공원은 남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최고의 기념 장소가 되었다

특집 Ⅱ | 해외 문화탐방

– 잉카의 숨결을 따라 걷다 / 최희동 (칼럼니스트, 여행가)

잉카의 숨결을 따라 걷다

최 희 동
컬럼니스트, 여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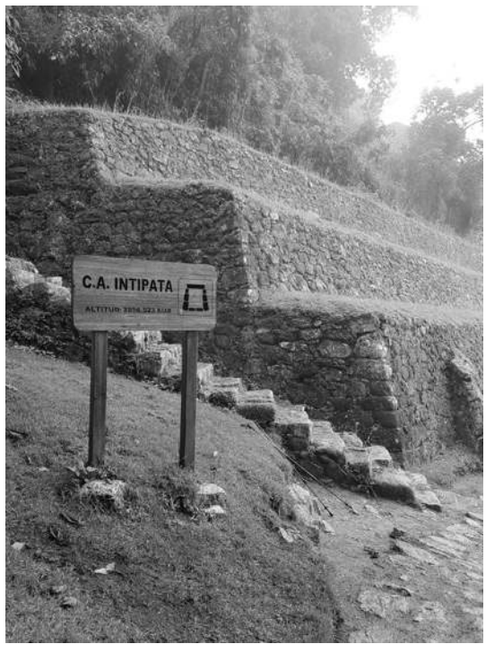
잉카는 12세기 쿠스코를 수도로 하여 안데스 고원지대에 잉카족이 세운 나라로 가장 번성했을 때는 50여 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1,200만 명의 부족이 살았던 대제국이었다. 1532년 스페인의 피사로에 의해 멸망했으나 잉카문명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다. 잉카제국하면 마추픽추를 먼저 떠올린다. 마추픽추는 사라진 잉카의 공중도시(해발 2,300m)로 1911년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하이럼 빙험(Hiram Bingham)에 의해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진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다.

잉카트레킹을 위해서는 페루의 쿠스코로 가야 한다. 쿠스코(Cuzco)는 해발 3,400m에 위치한 도시로 잉카의 옛 수도이며 마추픽추를 가기 위해서는 꼭 들려야 할 도시다. 잉카인들은 이곳을 그들의 언어인 '께추아어'로 '세상의 배꼽'이라는 뜻의 쿠스코라 이름 짓고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했다. 당시 가장 번성했던 도시이자 태양신을 숭배하는 황금도시였다. 지금은 안데스의 전통과 페루의 현대적인 삶이 혼재된 도시가 되었지만, 쿠스코 곳곳에는 잉카의 유적들이 화려했던 과거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쿠스코여행의 출발점은 '아르마스광장'이다. 아르마스광장은 유럽의 광장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아름다움과 빼어남을 자랑하는 콜로니얼형태다. 사실 이곳은 스페인 침략 이전, 잉카시대 통치의 중심지였다. 현재의 아름다움은 잉카신전이나 왕궁을 모두 파괴하고 피로 물든 폐허 위에 세운 것이다. 100년에 걸쳐 완성된 대성당과 잉카궁전 터에 지었다는 '라꼼바니아성당'이 있다.

시내 지도를 구해 광장 가는 길에 잉카제국 시절 잉카인들이 숭배했던 태양을 모셨다는 '코리깐차신전'과 그 신전건물을 부수고 신전의 견고한 기초와 외관 벽을 이용해 지었다는 '산토 도밍고성당'을 보고, 잉카인들이 쌓았다는 '로레토길'이라는 정교한 돌담길을 걸었다.

2일째, 오늘은 가는 도중 원주민마을을 구경하고, '성스러운 계곡'과 '피삭'을 관광한 후 '오얀타이탐보'까지 가는 일정이다. 도시 북쪽 삭사이와망(쿠스코 시내에서 2km 떨어진 곳에 있는 잉카유적인데 엄청나게 큰 돌을 정교하게 성벽처럼 쌓은 유적) 옆에 커다란 예수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쿠스코 전체 시내를 조망하고, 겐꼬(삭사이와망 인근의 제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유적)와 뿌까뿌까라(쿠스코 북쪽 끝의 방어를 담당했던 유적으로 추정)를 스치듯 지나쳐 원주민마을을 구경했다.



3일째, 08시 출발하여 가는 도중 6명을 더 태워 찰리라는 다른 한 명의 가이드까지 12명이 한 팀이 되었다. 미니버스로 비포장길을 40여 분 가서 내린 곳은 잉카트레일의 시발점인 피스카쿠초였다(Km82, 2,606m). 그곳에는 트레킹을 함께 할 포터와 요리사들을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잉카트레일 시작점(Camino Inka - Inka Trail)이라고 써진 큰 간판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체크포인트에서 여권과 입산허가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다리를 건너 트레킹을 시작했다. 잉카트레킹은 매년 2월 한 달은 길과 야영장을 보수하기 위해 입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2월 외에는 매일 트레킹이 가능하나 하루 포터와 요리사, 가이드를 포함하여 500명으로 출입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이드를 동반한 트레킹만 허용하고 있다.

성스러운 계곡은 쿠스코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해발 2,800m에 위치한 협곡으로 오얀타이탐보까지 이어지는 길이다. '리틀 마추픽추'라 불리는 '피삭'을 돌아보고 가장 큰 마을인 우루밤바를 지나 고원 길을 한참 달려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마지막 마을이자 마추픽추 가는 기차역이 있는 오얀타이탐보에 도착했다. '오얀타이탐보'는 돌로 만든 길과 벽, 수로와 전체적인 구획 등 잉카시대에 만든 마을 형상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마을 안길이 좁아 교통 혼잡이 극심했다. 이곳은 스페인군에 대한 마지막 격전지였던 만큼 가파른 산에 유적지들이 요새로 추정되었지만 최근 다양한 신을 모시기 위한 종교적 구조물임이 밝혀졌다.

길은 비교적 평탄했다. 약 1km쯤 걸으니 오른쪽으로 소규모의 잉카유적이 보였다. 이어 길은 약간씩 오르막으로 이어지며 숨이 턱에 찰 때쯤 작은 규모의 마을에 쉼터가 있어 우리는 준비해 간 간식을 먹으며 숨을 돌렸다. 여기서 길은 왼쪽으로 돌아 한참을 올라간다. 오른쪽 옆은 협곡인데 길고 깊다. 계속된 오르막을 오르자 전망이 터지면서 우리 앞과 오른쪽 절벽 아래로 제법 큰 유적이 있는데 '숨은 장소가 있는 도시'라는 뜻의 '약타파타(2,650m)'라는 곳이다. 약타파타는 단순한 마을이 아닌 주요 생산물을 모아 관리하는 곳으로 추측되며, 앞의 유적은 약타파타를 지키기 위한 요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타라욕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유칼립투스 숲의 가파른 산길을 1시간 반쯤 올라가니 높은 산

에 둘러싸인 분지에 마을이 있고, 왼쪽 잔디밭에 우리가 숙박할 텐트 6~7동을 친 야영장이 있었다(와이나밤바). 야영장에서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니 하얀 모자를 쓴 베로니카 산(5,750m)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주변 언덕 위로는 성처럼 생긴 유적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4일째, 잉카트레킹은 고소에 적응해야 하고 날씨의 변덕이 심해 순간순간 의류의 선택이 중요하다. 쿠스코도 고소적응에 따른 문제가 있지만 트레킹하는 도중에도 4,000m를 넘는 고개를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반 팔만 입어도 될 만큼 덥다. 하늘이 맑다가도 갑자기 비가 내리고 또 순간에 폭우가 내린다. 특히 1월은 대표적인 우기여서 트레킹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다. 야영장을 출발하여 마을 위로 10분쯤 올라가니 체크포인트가 있어 신분확인을 다시 했다.

이곳에서부터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죽은 여인의 고개(Dead Woman's Pass, 4,215m)'까지는 계속 오르막길이다. 유유차강을 건넌 후 강을 따라 숲길을 2km쯤 걸으니 아야파타라는 곳이 나와 잠시 숨을 돌리고 다시 숲속 가파른 길을 2시간 정도 올라 야영장이 있는 유유추팜파에 도착했다. 건물 몇 채가 있는 이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온 음료와 간식을 팔고 있었다. 오늘 우리가 오를 해발고도는 1,150m인데 걷고 있는 해발고도가 3,000m가 넘어 고소증세로 인해 빨리 걸을 수 없다. 나 역시 아침을 못 먹은 데다 잠도 거의 자지 못해 고소증세를 덜어준다는 코카 잎을 씹으며 천천히 힘든 걸음을 옮겨야 했다.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 좋은 점도 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할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긴다. 유유추팜파에 도착하여 왔던 길과 주변을 감상하며 숨을 돌리고 게토레이와 초콜릿을 사서 먹으니 힘이 났다. 출발 때는 날씨가 맑았으나 이곳은 고

산이라 정상은 이미 구름이 짙게 끼었고, 곧이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옷을 껴입고 오름길을 힘들게 오르는데 어디선가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엘 콘도르 파사'가 들려온다. 최근 카톡을 통해 봤던 영상이 떠오른다. 마추픽추의 산상에서 잉카의 악기로 연주된 그 노래, 본래 페루의 전통민요곡에 기타리스트인 '로블리스'가 편곡한 멜로디에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노랫말을 붙여 유명해진 곡, "길보다는 숲이 되고 싶다"던 노래를 들으니 갑자기 힘이 솟았다. 스페인의 정복군에 의해 폐허가 된 도시 마추픽추를 향해 걸어가는 나는 침략군이 아니라 잉카인이 마음으로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을 향해 길을 걷고 있다.

고개에 가까워지자 비가 더 세차게 내린다. 정상 오르는 길은 아무리 가팔라도 성취감이 있어 힘들지 않다. 드디어 정상이다.(1시간 40분 소요) 왜 이 고개는 '죽은 여인의 고개'라 불릴까? 잉카트레킹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높은 지점이다. 비가 세차게 내려 기념사진만 찍고 하산했다. 하산길은 매우 가파르고 긴 내리막길(4km)인데다 비까지 내리니 땀과 비에 젖고 배는 고파 그 고통을 형언할 수 없다. 내리막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걸음이 빠른 내가 지칠 정도로 지루한 내리막길에 짜증이 날 즈음, 갈림목에 기다리던 포터들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 오늘 우리가 쉴 '파카이마우(3,500m)야영장'이다. 미리 설치한 내 텐트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식당 텐트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뒤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렸다. 30분쯤 지나 점심을 먹었는데 아직도 세 사람이 도착하지 않았다. 이 비에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짠한 생각이 들었다.

5일째, 주변이 소란스러워 짐을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니 다행스럽게 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아 야영장 앞으로 '빌카밤바산맥'이 웅장하고 아름답게 펼쳐졌다. 식사를 마치고 계곡 위 작은 다리를 건너 1시간쯤 올라가니 원형유적(룬쿠라카이 3,760m)이 있다. 룬쿠라카이 유적은 작은 크기로, 군사초소이자 왕의 메시지를 전하던 전령인 '차스키'의 쉼터였다고 하는데 주변의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좋은 위치였다. 어제 잤던 야영장이 바로 아래로 보이고, 그 옆 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계곡물이 폭포를 이루며 흔들리듯 떨어지고 있었다.

이후 길은 가짜 정상이라 불리는 고개를 지나고, 작은 호수 두 군데를 지나 3,950m의 두 번째 정상에 오르게 된다. 고개를 넘어 길은 급경사 내리막으로 이어지는데 지리산 천왕문과 비슷한 굴도 지나고 작은 호수들도 있는 매우 멋진 전망의 아름다운 길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 아래 산자락에 생김새가 빼어난 잉카유적(사약마르카)이 있다. 작은 산자락에 빽빽하게 건설된 사약마르카는 '높이 솟은 마을'을 뜻하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갈림목에서 길은 아래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건너편에 야영장이 보인다. 내리막길을 따라 아오밤바강 지류를 건너 약간 오름길을 오르니 조금 전에 봤던 야영장이다.

이곳에서 점심을 먹을 장소인 3,670m의 세 번째 정상까지는 5km 거리다. 그 길은 산허리 길로 완만한 오름길이 이어지다 자연동굴을 지나면서 내리막으로, 다시 완만한 오르막으로 이어지는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다. 오르막을 돌아 오르자 앞이 훤히 터지는데 포터들이 반갑게 맞이한다. '지차모라다'라는 주스를 건네며 수고했다는 인사를 한다. 이곳은 사방이 훤히 터진 제법 넓은 곳이어서 마추픽추의 방향도 가름할 수 있었다.

점심을 먹고 급경사 길을 20여 분 내려가니 아름답게 잘 보존된 '푸유파타마르카 유적'이 나왔다. 물이 흐르는 전례용 욕조 여러 개가 있고, 수로가 잘 연결되어 있었는데 3,600m의 높은 곳에 있어서인지 '구름의 도시'라 불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적을 뒤로하고 급경사 길을 20여 분 내려가니 초소 같은 유적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놀라울 정도로 잘 설계된 잉카 계단 수백 개가 이어지면서 우림으로 길은 곤두박질친다. 자연 굴을 지나고 길은 지그재그로 이어지다 갈림길이 나오는데 '인티파타'로 향하는 왼쪽 길을 택해 내려갔다. 1941년 발견된 인티파타는 마추픽추와 가까워 '태양의 장소'라 불린다. 인티파타는 우리의 계단식 논처럼 돌로 축조된 그런 곳이다. 아마 태양신의 제사에 사용할 곡식을 재배한 곳이 아니었을까?

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니 오늘 쉴 '위나이 와이나 캠프'가 보인다. 비는 그치고 앞산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펼쳐졌다.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며

잠시 발길을 멈추고 그동안의 발자취를 순간 되돌아봤다. 정신을 가다듬고 곧장 내려서니 포터들이 박수로 반긴다. 이곳에서는 온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샤워장이 있어 그동안의 피로와 함께 땀으로 범벅된 몸을 씻으니 행복이 꼭 큰 것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야영장 가까운 곳에 '위나이 와이나 유적'이 있어 다녀왔다. 서남쪽 산기슭을 따라 오목하게 누워있는 공간인데 나름 잘 활용하여 규모를 갖춘 건축물들을 배치했다. '영원한 젊음'을 뜻하는 토종 난의 이름을 빌린 이곳은 상당히 정교한 설계에 의한 건축물로 마추픽추와 가까운 곳에 있어 군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녁 식사 후 포터와 요리사들 모두 함께 모여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성의껏 마련한 팁을 전달하며 이별의 아쉬움을 달랬다.

6일째, 마지막 날이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3시 30분 일어나 따뜻한 차를 마시고 출발준비를 했으나 검문소가 5시에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여 기다리다 5시 반경 검문소를 통과했다. 40여 분을 완만한 길을 걷다 문처럼 생긴 유적을 지나면서부터 오름길로 이어지는데 20분 정도 지나니 '선 게이트'가 나왔다. 선 게이트에서는 마추픽추가 보인다고 하는데 비가 내려 안개만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아쉬웠다.

선 게이트를 지나면서 길은 넓어진다. 길옆 유적을 지나 1시간 정도 가니 드디어 안개 사이로 마추픽추가 보였다. 죽기 전에 꼭 와 보고 싶었던 곳, 해발 2,600~4,200m의 고소를 견디고 텐트에서 자며, 43km의 거리를 3박 4일 동안 걸어온 목적지. 잠시의 기다림, 마추픽추는 드디어 우리에게 자신의 속살을 거침없이 내보였다. 감격스럽다.

마추픽추에 취하고, 입구로 내려와 입장권을 사서 2시간여 마추픽추 곳곳을 관람하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아랫마을인 '아구아스 깔리엔떼'로 내려왔다. '아구아스 까리엔떼'는 마추픽추 아래 깊은 협곡에 자리하고 있는데, 높은 석벽과 깊은 우림 그리고 두 개의 강으로 둘러싸인 섬이나 다름없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 마추픽추의 베이스 캠프 같은 곳으로 대부분이 숙소나 식당 그리고 기념품점이다. 중심가 카페에서 맥주로 4일간의 피로를 풀고 '완주증명서'를 받아 기차로 오얀타이탐보로 돌아와 버스로 갈아타고 쿠스코로 돌아왔다.

인터뷰 | 북구의 예술인 탐구

희망문화협동조합 임준형 이사장을 찾아서

서 승 현
시와사람 편지부간

고된 삶의 여정에서 한 부분이나마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가치가 귀하고 보배로울 것이다. 자신의 연극을 통하여 관객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행복감과 인생의 여러 감동들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면 연극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존재 이유가 충분히 된다. 희망문화협동조합 임준형 이사장이라는 현재의 그를 있게 한 원동력은 연극을 통한 희망의 전파이다. 그에게 연극은 삶 자체이자 희망이다. 연극인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정립시키는 임준형 이사장이 희망문화협동조합을 창립한 시기는 2013년 6월이다.

희망문화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은 협동조합 앞에 문화를 위치시킴으로써 문화로 연대하는 하나의 열린 단체라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80년대 당시 유명세를 떨치던 전남고 연극반에서 연극 활동을 시작한 임준형 이사장은 지천명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외길을 가고 있는 중이다. 연극은 운명이자 삶이라고 말하는 그에게서 연극인으로 생의 의미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졌다. 그의 연극사랑은 일찌기 전남고등학교 동아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의 권유로 연극에 입문한 그는 선배들의 혹독한 질타를 도리어 고맙게 수용하고 운명적으로 연극을 받아들이게 된다. 동아리 시절, 시내버스 안에서 연극반 축제 홍보를 하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한창 감수성 강한 나이에 시내버스 노선을 돌며 연극 공연 홍보를 하고 나니 자신감이 부쩍 생겼다.

졸업 후 시립극단의 단원 모집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연구단원으로 합격하였으나 일 년 후 사소한 사건으로 해체 되는 바람에 애꿎게 직장을 잃게 되었다. 88년도에는 뜻 맞는 사람끼리 전대 후문 근처에 예술극장 '터'를 설립하고 공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부친이 건설업을 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연극계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극과 함께 하는 삶은 녹록치 않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 연기 연습은 물론 공연 포스터를 붙이고 티켓을 파는 일도 함께 해야 했다. 항상 자금과 일손이 부족한 극단을 꾸려나가느라 힘든 가운데도 배고픈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선배연극인들을 보면서 몸을 사릴 일이 아니었다. 이 모두가 연극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연극만으로는 현실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여러 직장들을 거쳤다. 영화관 근무, 언론생활 등 다양한 직업들이 연극으로 인해 연결되었다. 연극은 그의 삶에서 운명이자 원동력이었다. 송암 극장의 총감독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지금의 인맥들이 그때 당시에 형성된 관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준형 이사장의 사람과 삶에 대한 끈끈한 정과 신의에 대한 진면목을 말해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연극은 운명이자 삶의 원동력이며 미래의 꿈이다.

북구에서 태어나 북구를 떠나 본 적이 없는 그에게는 북구를 문화의 구로 만들고 싶은 희망이 있다. '북구북구 – 부끄부끄 – 불끈불끈' 으로 이어지는 말놀이를 통하여 북구를 불끈불끈 힘이 넘치는 문화의 구, 나아가 북구문화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간결하게 내비쳤다.

누문동에서 태어나 북동에서 성장했으며, 현재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준형 이사장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건물을 하나 갖고 싶은 꿈이 있다. 문화협동조합이 연극 장르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문화로 희망을 주고 희망을 나누고 싶다는 희망이 반영된 꿈이다. 따라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북구에 개인 건물을 소장해서 연극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은 물론, 문화에 관계되는 모든 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문화 향유와 창조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술인들이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고,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을 운영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곧 연극을 통하여 찾는 희망이다. 희망문화협동조합은 이 같은 그의 꿈에 한발 다가선 실천체이기도 하다.

청소년 연극교실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가 중요한 시기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도 중요하다. 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사회생활을 잘 한다는 면에서 인성을 중요시하는 임준형 이사장의 지론이다. 연극 수업도 시키고 인성 교육도 시키며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에 방점을 찍는다. 디지털시대, 인터넷 시대에 메마르고 거칠어지는 심성들이 좀 더 인간다운 훈훈함과 인간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준형 이사장은 2013년 문화협동조합 창립 후 지방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연극을 3년 동안 연속으로 하여 청소년 연극에 대해 환기 시키고 이슈화 시켰다. 국립극단 청소년극 '레슬링 시즌'으로 전국투어를 하는가 하면 국립극단 초청공연, 결식아동초청공연 등을 하였으며, '꿈다락 문화학교', '청소년생활연기 및 영상제작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생활연기 및 영화제작 현장을 체험하고 참여함으로써 직업체험의 기회를 가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 폭력 예방 근절 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뮤지컬 제작,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인형극 '토끼 뺑튀기' 등을 공연하였다.

시민 연극교실 〈연극여행〉

그동안 광주에서는 시민들이 연극을 배우고 나아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다. 누구나 자신을 새롭게 찾아가는 연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배우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설렘을 주기에 충분하다. 임준형 이사장은 희망문화협동조합에서 스토리 구상에서부터 연기훈련, 연습, 최종 무대 발표, 공연에 이르기까지 창작단계를 모두 섭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가을에는 '연극여행'의 아마추어 시민배우들이 2019년 광주여성재단에서 후원한 성 평등에 관한 연극 '우송씨의 주부일기' 를 각색하여 호평 속에 무대에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문화를 통한 상생

연극을 통해 새롭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는 임준형 이사장 자신도 포함된다. 그는 휴먼코메디 극인 '목욕탕집 남자들'을 통해 자신에 꼭 맞는 연극 장르를 새롭게 알아가는 중이다. 가족들 사랑이야기, 사람 냄새나는 휴먼 코메디가 그의 적성에 가장 맞다는 것이다. '목욕탕 부르스', ' 학문외과' 등의 작품에서 이거였구나! 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재미와 감동을 함께 맛보고 있다. 이러한 재미와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특히 영호남연극제에 '목욕탕 부르스'가 초청받았다. 타 지방은 물론 해외와의 문화교류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 글로벌 시대, 함께 소통하

며 살아가야 하는 지구촌 시대에 각국의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여 문화적 교류를 나눈다면 서로 이해하고 차별을 극복하여 평화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과 함께 좋은 연극을 만들고 소통하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좀 더 따뜻하고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 가는 상생의 미학을 강조하는 임준형 이사장은 현실에서도 욕심을 버리고 베풀고 사는 정신을 추구한다. 회원들에게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는 그는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과 연습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항상 개방하고 있다. 비록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지만 연극에 대한 순수성과 진정성으로 뭉친 연극교실 회원들이 큰 힘이 되고 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것이 곧 재산이라는 그는 사람 욕심이 많다.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꿈꾸는 그에게 예술을 사랑하고 예술을 통해 따뜻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함께 만드는 예술인들의 공동체, 희망문화협동조합은 문화를 통한 상생이자 목표가 되는 것이다.

제25회 무드리 그리기 · 글쓰기 대회

| 입상자작품 |

그리기 부문

수상내역	이 름	학 교	학년반	훈 격
대 상	송 은 별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3-1	광주시교육감상
최우수상	채 윤 서	은빛초등학교	5-4	광주문화원연합회장상
"	정 혜 린	지산중학교	1학년	〃
"	정 은 채	장덕중학교	1-5	〃
우 수 상	변 다 율	풍향초등학교	5-3	북구문화원장상
"	정 동 하	일곡초등학교	2-1	〃
"	서 재 범	본촌초등학교	3-4	〃
"	하 예 은	연제초등학교	5-5	〃
"	허 예 진	나주중학교	2-3	〃
장 려 상	배 예 원	신용초등학교	2학년	〃
"	손 수 연	신용초등학교	2학년	〃
"	정 소 이	불로초등학교	1-1	〃
"	조 시 은	신용초등학교	2학년	〃
"	정 의 진	서강중학교	1-5	〃
가 작	주 하 늘	연제초등학교	1-3	〃
"	최 유 진	대자초등학교	2-1	〃
"	박 은 찬	우산초등학교	1-2	〃
"	신 서 율	나무와미술학원	6세	〃
"	김 채 연	동림초등학교	4-1	〃

글쓰기 부문

수상내역	이 름	학 교	학년반	훈 격
대 상	김 하 영	문산중학교	2-2	광주시교육감상
최우수상	박 동 영	일신중학교	2-2	광주문화원연합회장상
"	강 다 윤	마지초등학교	3-1	〃
우 수 상	전 대 진	목포덕인고등학교	2-5	북구문화원장상
"	박 하 윤	무등초등학교	2-2	〃
"	오 민 화	연제초등학교	4-2	〃
장 려 상	최 보 경	문우초등학교	3-3	〃
"	김 예 린	광주서초등학교	6-1	〃
"	정 온 유	매곡초등학교	3-3	〃
"	김 리 우	연제초등학교	5-1	〃
"	임 채 은	하백초등학교	4-1	〃
가 작	심 서 윤	어룡초등학교	4-2	〃
"	김 준 석	광천초등학교	5-2	〃
"	이 영 우	하백초등학교	4-1	〃
"	정 시 은	남평초등학교	4-1	〃
"	마 예 진	동신여자고등학교	2-8	

대 상 송 은 별 (조선대학교 여자고등학교, 3–1)

최우수상 채 윤 서 (은빛초등학교, 5–4)

최우수상 정 혜 린 (지산중학교, 1–8)

최우수상 정 은 채 (장덕중학교, 1–5)

우수상

변 다 율 (풍향초등학교, 5–3)

우수상

정 동 하 (일곡초등학교, 2–1)

우수상

서 재 범 (본촌초등학교, 3–4)

우수상

하 예 은 (연제초등학교,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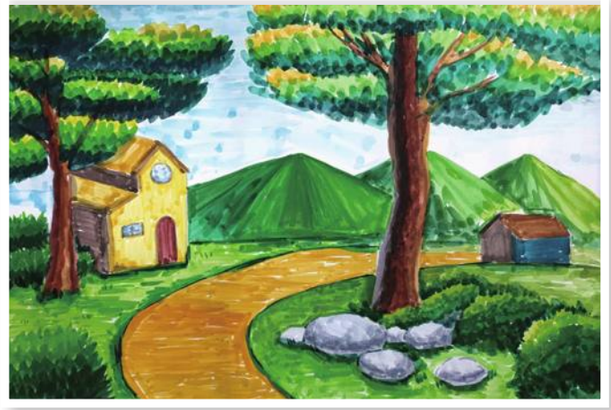
우수상 허 예 진 (나주중학교, 2–3)

장려상 배 예 원 (신용초등학교, 2학년)

장려상
정 소 이 (불로초등학교, 1–1)

장려상 손 수 연 (신용초등학교, 2학년)

장려상 조 시 은 (신용초등학교, 2학년)



장려상
정 의 진 (서강중학교, 1–5)

가 작 주 하 늘 (연제초등학교, 1–3)

가 작 최 유 진 (대자초등학교, 2–1)

가 작 박 은 찬 (우산초등학교, 1–2)

가 작

신 서 율 (나무와미술학원, 6세)

가 작

김 채 연 (동림초등학교, 4–1)

대 상

환경오염

김 하 영 (문산중학교, 2–2)

세상은 날이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다. 일회용컵을 사용한 다음 세척해야 한다는 귀찮음 없이 버리기만 하면 되고 아침에 바쁘게 움직일 때에는 매장에서 햄버거로 쉽게 끼니를 떼우면 그만이다. 그러나 그만큼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다. 일회용컵을 만들기 위해 셀 수 없는 많은 나무를 베어 환경이 파괴되고 심지어 일회용컵을 쓰고 제대로 버리지 않아 길거리는 쓰레기투성이다. 또 햄버거매장을 들이기 위해 숲을 파괴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도로를 포장하여 이제는 숲을 찾아 보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왜? 나하고는 관련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공장들을 대폭 건설하면서 환경오염과 함께 대기오염도 심각해지고 있다. 대기가 오염되면 지구의 대기막이 얇아지면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는 아주 뜨거운 불구덩이가 될 것이다. 에어컨을 틀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에어컨을 틀면 지구의 에너지는 줄어들어 더위가 더욱 증폭할 것이다. 이 더위는 천년빙하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어떤 학자가 한 말에 따르면 우리가 지속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천년빙하가 모두 녹기까지는 100년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지금도 천년빙하는 녹아내리고 있으며 만약 천년빙하가 모두 녹아 없어진다면 바다의 해수면이 매우 높아져 여러 섬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다면 우리 한국이 잠길 확률이 아주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만 하여도 일회용컵을 만들기 위해 베어지는 수 많은 나무들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길에 버려지는 쓰레기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 한국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는 경우 머그컵을 사용하여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이후 조사 대상이었던 1052개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컵의 사용량은 20%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다 쓴 물건을 재활용 하는 것이다. 같은 사례로 미국 힐튼호텔에서 고객

이 쓰다 남긴 비누를 글로벌 보건기구 '클린 더 월드'와 함께 '세계 손 씻기의 날'까지 재활용 비누를 만든 적이 있다. 부서지고 녹으면서 깨끗이 세척된 비누들은 가난하거나 환경이 좋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가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목표 100만개를 넘어 4800만개의 재활용 비누를 만들었고 2009년 이후, 120개국 10000만명 이상에게 보내주었다고 한다. 사례와 같은 재활용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짜리몽땅해진 연필들을 다 쓴 볼펜이나 긴 막대기와 엮어 쓰거나 목이 늘어져 못 입는 옷들은 안에 솜을 넣어 베개로 쓰거나 손수건으로 쓰는 등 한 사람당 하나씩 가볍게 실천만 하여도 섬 하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에 버릴 곳이 없고 들고 다니기에 찝찝해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 하지만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다수 설치 한다면 길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다. 바로 까마귀 쓰레기통이다. 까마귀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봉투들을 모두 찢어 헤쳐 놓아 환경오염이 더욱 악화되었던 문제를 까마귀가 지능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까마귀 쓰레기통의 원리는 이러하다. 캔 같이 무게가 있는 쓰레기를 까마귀쓰레기통에 넣으면 땅콩이 나온다. 그러면 까마귀들은 땅콩을 먹기 위해 쓰레기를 까마귀쓰레기통에 계속하여 넣게 될 것이다. 이 실험은 까마귀들이 돌을 넣어 실패하였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확연히 줄어들어 반쯤 성공하였다고 한다. 비록 우리는 땅콩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환경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까마귀와 같은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잘 버리도록 하자 환경오염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빠르게 오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할 속도로 조금씩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마치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말이다. 끓는 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는 너무 뜨거워 바로 튀어나온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점점 끓어오르는 물속에 있는다면 개구리는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우리도 머지않아 개구리처럼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아끼고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면서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잘 하도록 하자.

최우수상

자연을 돌려주세요

박 동 영 (일신중학교 2-2)

현재는 서기 2019년, 전세계인들, 기상학자들, 여러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그게 무엇일까? 그건 바로 '환경오염'이다. 환경오염이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오염'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직면한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 무엇일까? 나는 잔디 위에 버려진 종이컵, 비닐봉지, 음료수병들… 또한 꽃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위로 꽃을 꺾어대는 사람들… 푸릇푸릇한 잔디 위를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잔디와 다른 식물들을 괴롭게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인다. 그렇다면, 인간들은 정말 자연이 겪는 고통을 모르고 있을까?…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연'이라는 요소에 의존하며 살아왔다. '자연'에서 먹을 식량을 구하고 집을 건축할 재료를 구하고, 입을 옷을 제작할 다양한 원료들을 추출해 왔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고,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왔다. 이 때 '자연'은 마치 유명한 동화책 중 하나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좋은 것들은 인간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었고, 인간들의 삶과 일생을 보다 가치 있게 보내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부분에서 해석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이들은 자연 없이 생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시대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착함과 아리따움을 악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들이 자연의 곱고 착한 마음씨를 악용하고 이를 마구 더럽히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과연 나 혼자 뿐일까? 이렇게 자연에 목메듯이 의존하며 살아온 인류는 1700년때부터 조금씩 자연을 오염시키고 더럽히기 시작하였다. 1789년에 일어난 산업혁명에 의해서 인간들은 지구 곳곳에 많은 공장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공장들에서 나오는 증기에는 숨이 턱턱 막히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산염을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유해한 기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공장들에서 배출

된 폐수와 하수는 강가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유발시켰다. 자연환경이 이러한 유해한 오염원에 노출되었을 때, 대기는 점차 상태가 악화되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하수로 인하여 수질도 점차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인간에게 좋은 것들은 아낌없이 줘 왔던 자연은 그때부터 조금씩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900년대 즉, 20세기가 되었다. 인간들은 자연에게 더 많은 피해를 끼치는 자동차, 중기기관차, 공장들을 마구마구 만들어 내었고, 드디어 일이 터지고서야 말았다. 20세기 중후반쯤 과학자와 기상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바로 '지구온난화'를 말이다. 북극의 얼음 총면적이 이상고온에 의해 급속도로 줄어들고, 중국의 사막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또한, 북극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증가함에 따라, 바닷물에 의해 물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섬들도 생겨났다. '투발루'가 그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예이다. 이와 같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점점 더 진행속도가 가속화 되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다. 이러게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을 연구해보니 그 결과, 가장 큰 원인으로 '환경오염'이 나왔다. 이제 자연은 인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게 되었다. 자연의 몸이 안 좋을대로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이다. 아! 불쌍한 자연이여! '환경오염'은 자신들의 이익만 고집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인류가 야기 시킨 최후의 결과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자연파괴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그 결과, 이대로라면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은 시간이 흘러 2020년대, 2030년대, 2040년대 까지 계속 심각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인 중국은 시도때도 없이 시종일관 자연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증기를 펑펑 내뿜는 공장을 지어오고 있다. 올해 겨울 우리나라 국민들의 숨통을 꽉 막아놓고 여러 농작물들의 생장을 저지시킨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공장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아닌가? 또, 일본은 예전까지 청명하고 맑았던 태평양에다가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태평양을 쓰레기바다로 만들어서 자연환경을 오염시켰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내가 사는 고장인 광주에서도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2014년 북부순환도로 공사 계획안이 나왔을 때, 일곡동 주민들이 끈질기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공사를 감행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위협하였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 첫 부분에서 말하였듯이,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연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다. 자연은 인간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입을 것을 주고, 살 터전을 제공해 주었다. 아마 '자연'이라는 요소가 없었더라면 인류는 그리 길게 생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해 오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자연에게 인간들은 은혜를 갚긴 커녕 더 괴롭히고 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가? '환경오염'이라는 것이 심하면 심해질수록 그 피해가 인간에게 되돌아 온다는 것을? 한 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 인류가 18세기부터 자연을 계속 파괴해오고 환경을 오염시켜왔던 결과, 결국에는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이 일어났고, 그 지구온난화는 폭우, 쓰나미, 해수면 증가, 사막화, 미세먼지 등 각종 자연재래로 인간의 목숨을 위협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자연에게 끼쳤던 피해가 그대로 다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자연을 무분별하게 손상시켜왔지만, 그 때 자연환경이 받았던 피해와 고통은 머지않아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되었다. 결국은 이러한 자연재해들도 인간들이 자초한 셈이다. 인류는 가능한 빨리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을 예전부터 돌봐주고 생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을… 그게 바로 '자연환경'이다. 나는 자연환경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인류를 크게 비방 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나는 인류가 그 것을 빨리 알아차려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그 동안 상처를 많이 입은 자연환경에게 위안을 주고 다시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인간들이여!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글을 쓴 이후부터 환경을 생각하여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시작할 것이다. 일회용품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거나, 물을 낭비하지 않거나, 전기를 아끼는 일 등부터 말이다. 또한, 나는 어른이 되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직업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보호활동가'라는 직업을 말이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선행을 함으로써 나는 자연을 보호해주고 자연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꼭, 반드시 나는 그 꿈을 이루어 낼 것이다. 내가 자연환경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정말 고마운 자연씨, 저는 당신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테니, 힘내십시오. 예전부터 우리 인류를 위해 희생해 왔던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연씨! 자연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고 고마운 존재이다. 나는 우리 인류에게 바라는 단 한가지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은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아름다움이 서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세상은 정말 멋지고 화려한 세상일 것 같다. 자연과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움 세상을 꿈꾸며 이 글을 씁니다.

최우수상

환경지킴이가 되고 싶은 나

강 다 윤 (마지초등학교, 3-1)

"다윤아! 우리 바다 갈까?"

주말 아침 아빠가 늦잠 자려는 나를 깨웠다. 잠결이지만 너무 좋아 나는 벌떡 일어났다.

"아빠~~최고! 좋아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더운 여름에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바다를 너무 좋아한다. 왜냐하면 푸른 바닷물이 출렁이는 파도 소리도 좋고, 모래 위를 밟으며 걸어다니는 것 또한 너무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바다를 좋아하는 더 큰 이유는 갯벌에 들어가면 물컹한 느낌, 끈적한 느낌, 또한 미끄러우면 미끄러지고 발이 쑥쑥 빠지면 빠지는 대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한 내 호기심을 자극하며 눈에 띈 생명체들은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나의 친구가 되어 너무 좋다.

동생과 나는 딱딱한 도로와 우뚝 선 건물들만 모여 있는 삭막한 도시를 일단 벗어나 시원하게 뚫린 넓은 바다를 보니 흥분되고 너무 신이 났다.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바다에 도착했다.

순간~나를 설레게 하고 기대했던 바다가 아닌 온갖 쓰레기와 지독한 하수구 냄새가 내 코를 찌르는게 아닌가! 또한 쓰레기를 헤집는 갈매기떼들, 마음이 너무 아팠다. 갯벌 사이로 깨진 병과 쓰레기들이 나를 더욱 실망하게 만들었다. 우리 사람들로 인해 바다가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되어 위협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구 온난화로 점점 가물고 사람들은 놀러 와서 재밌게 놀고는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들로 환경이 오염되어 바다가 그대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잔잔하게 밀려오는 저 파도 소리가 슬프게 들렸다. 저 갯벌 사이로 생물체들은 자꾸 나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너무 미안했다.

내 힘은 작지만 나부터 훌륭한 환경지킴이가 되고 싶어졌다.

우리는 항상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느껴지던 것이 사라져야 비로소 소중함을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더했다. "다윤아? 이번에 바다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온 거 같구나!" 아빠가 말씀해 주셨다. 앞으로 나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연이 우리에게 소중한 걸 주는 만큼 나도 보호하고 아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 담날 엄마는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해 좀 더 체험 할 수 있는 곳에 우리들을 데려가셨다. 그곳은 집과 가까운 환경공단 환경사랑홍보관 교육관이였다. 홍보 영상도 보고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방법이랑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충격적인 사실 또한 알게 된 건데,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북태평양 어느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쓰레기 산이 있다는 거…

정말 썩지 않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고 이미 북극곰은 몇 년 후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며 해수면이 높아 없어진 섬이 생긴다니 환경 문제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인 것 같았다.

그리고 깨진 유리는 재활용도 안 될뿐더러 100만년간 썩지 않는다고 했고 플라스틱도 정말 많이 쓰이는 물건인데 일회용품을 쓰기 시작한지가 16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썩는데 500년 걸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보다 더 오랜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말 나를 놀라게 했다.

지금도 환경이나 쓰레기 때문에 문제라 하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 심각해지는 거 아닐까 걱정스러웠다. 이 체험을 하고 난 후 나는 더욱 지구 온난화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녹색 생활 실천의 중요함을 느끼게 됐고,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놀이터가 되어주니 자연이 아프지 않게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을 위해 모두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지켜주고 아껴줘야겠다고 다시금 생각했다.

우수상

지구

전 대 진 (목포덕인고등학교, 2-5)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 많은 별 중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있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름이다.

우리가 마음 놓고
숨 쉬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구가
어느 날부턴가
얼굴 잔뜩 찡그린 채
사람들을 향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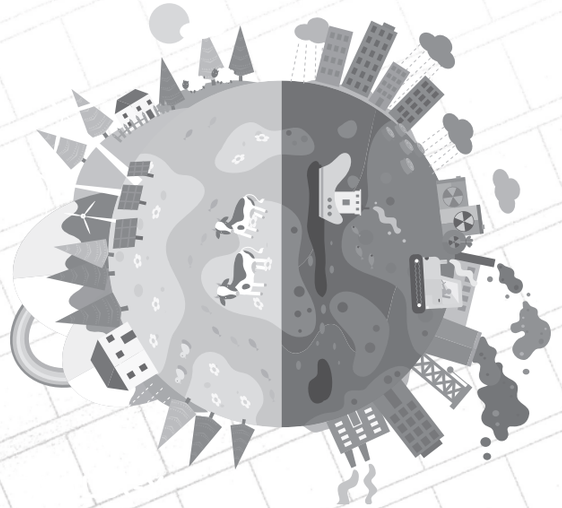
제발 조금만 덜 쓰고
환경을 아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며 부탁 했건만
지구의 온도 높이는 온난화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오늘도 깊은 한숨을
자꾸 내쉰다.

서구에서 시작된
도시화와 산업화의
거센 물결에 밀리고
개발이란 두 글자에 중독된
사람들로 인한
갖가지 기상이변이
꼬리 물고 찾아와
하나뿐인 생명을 위협한다.

동그란 지구에서
발 딛고 살면서
동식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방법 무시한 채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사람들로 인해
나날이 병들어간 지구는
날이면 날마다 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아무리 세계 던져도
다시 되돌아오는 부메랑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알려진
사람 향해 되돌아오는
지구 온난화의 화살을
우리는 아무도
피해 갈 수가 없다.

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없기에
병든 지구 되살리는
환경 사랑 실천에
내가 먼저 앞장서
다시 건강 찾은 지구가
웃음 지며 반겨 줄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우수상

내가 너무 미안해

박 하 윤 (무등초등학교, 2–2)

먼 바다에 큰 쓰레기 산
우리가 버린 쓰레기

물고기 뱃속 각종 비닐
거북이 코에 꽂힌 빨대
죽은 고래 몸속의 쓰레기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바다 친구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 미안해

마구 쓴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바다가 아파!

난 힘이 적지만
조금씩 노력할게
쓰레기도 분리수거
음식 안 남기기

자연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게.

우수상

미세플라스틱과 지구

오 민 화 (연제초등학교, 4–2)

플라스틱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금껏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것도 단점이 있는 법이다. 지구를 위협하는 플라스틱, 그중에서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알아보자. 미세플라스틱은 5mm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그것들이 하수구로 간다면? 하수처리시설에 분리가 되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유입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미세플라스틱이 대기를 통해 정정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예를 들어 정정지역이었던 피레네산맥은 날려 온 미세플라스틱에 의해 1제곱미터당 약 365개의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 이제는 미세먼지 걱정에 미세플라스틱 걱정까지 해야 할 참이다. 이제는 가장 피해가 큰 바다를 들여다보자. 플라스틱통, 비닐에 의해 쓰레기 섬이 형성되었다는 뉴스를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쓰레기 섬보다 더 위급한 것은 미세플라스틱이다! 이것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독성물질을 가득 흡수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작은 물고기가 먹게 되고, 또 큰 물고기가 먹고, 마침내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 몸에도 들어온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몸에 미세플라스틱이 쌓여있다고 한다. 조그마한 조각인데 뭐 어떠겠냐구? 이것들은 다이옥신과도 같다!

해마다 8백톤의 플라스틱이 버려진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이 된다. 현제 우리나라 12개 해안의 미세플라스틱 밀도는 다른 나라의 13배, 방대한 수준이다. 심지어 세계경제포럼에 의하면 2050년에는 물고기 수보다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오기도 했다.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는 바다라, 충격적인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는 의외로 많은 플라스틱이 있다. 화장품, 스크럽제, 치약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고, 합성섬유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졌다. 그렇다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예로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법을 실행하고 있다. 비닐봉지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하고 카페에서도 텀블러를 가져오면 값을 깎아준다. 또 네덜란드에는 플라스틱 포장재가 없는 매장이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포장재였는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여나가면 좋겠다.

도움을 주었지만 그 만큼의 피해를 준 플라스틱,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닐 한 봉지, 플라스틱 하나라도 줄여 지구를 보살펴야 한다.

장려상

아픈 친구들

최 보 경 (문우초등학교, 3–3)

지구가 울어요
“아앙”
아름다운 지구가
펑
구멍이 났어요

북극곰이 울어요.
“아앙”
얼음이 녹으면서
집이 사라졌어요

새들이 울어요
“아앙”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집과 먹이가 없어졌어요

물고기들이 울어요.
“아앙”
썩은 냄새,
쓰레기로
몸이 아프대요

아이들이 울어요
“아앙”
나쁜 미세먼지들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요.

아픈 친구들이
다시 밝아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더 이상
울지 않을거에요.

장려상

EARTH

김 예 린 (광주서초등학교, 6–1)

야! E 요원! 일어나!”
걸걸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다.
“누…누구야! 나의 잠을 깨운 사람이?”
꿈속에서는 시원한 산들 바람을 맞으면서 강가에 앉아 낚시 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산들바람? 외출을 하려면 산소마스크가 있어야 하며, 마스크 없이 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공기 청천기가 설치된 건물 안에서나 가능하다. 이미 233년 전부터 산소 탱크 없이는 외출 할 수가 없다. 낚시는 어느 책에서 본적이 있다. 야외 강물에는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강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지? 강물은 짙은 갈색이거나 초록빛이다. 발을 담갔다가는 일주일 내내 피부염으로 고생하게 될 텐데, 그 물속에 어떻게 살아 있는 물고기가 산단 말인가? 수질 정화기가 24시간 돌아가는 수족관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런 꿈을 꿨다. 공기청정기에서 나온 바람과는 달랐다. 달달한 꽃냄새가 섞여서, 살랑살랑 거렸다. 분명 꿈이었는데, 아직도 내 손에 팽팽하게 당겨진 낚싯줄 느낌이 선명했다. 막 찌를 당기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꿈이었지만 참 아쉽다 어떤 물고기가 올라왔는지 보고 싶었는데.
나는 실눈을 떴다.
“E 요 · 원 · 일 · 어 · 나 · 야 · 지?”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E 요원, 크리스미스에게 말 잘 듣기로 했잖아?”
우리 팀의 리더 A요원이다.
“흐억!”
나는 A요원이 나를 들어 올린 것에 개의치 않는다. 나를 흔들어 깨울 때마다 하는 짓이니까. 내가 놀란 것은 A요원 옆에 서 있는 긴 생머리를 찰랑 거리는 요원의 눈과 마주쳤기 때문이다. 어깨에 있는 [R] 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 왔다.
“치이익…치익… EARTH 요원 응답하라, 큰일이다. 쓰레기 괴물 쓰리로 세 마리가 나타났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 빨리 출동하도록.”

스피커에서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서 빨리 무기를 챙겨.E"

"저… 오늘은 제가 비번이라서요. 대기하라는 말 없었는데요?"

"넌, 내 보조잖아! 잊었어?"

A요원이 윙크를 보인다. 항상 이런식이다.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다니. R요원이 새로 개발한 무기를 내 손에 안겨줬다. H요원이 개발한 무기는, 뭐랄까 세기말 골동품 전시장에서 봤던 그 물건과 모양이 비슷하다. 이름이 '빗자루?' 갈색 같으면서도 주황빛이 도는 물건 이였는데 콧수염처럼 숱이 있어서 세기말에 주로 쓰레기를 쓸어내는 도구였다고 한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R요원은 말수가 적어도 상당히 센스가 있다. R요원이 같이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러 가지 핑계를 내어서라도 출동을 피했으리라. 라돈 침대 중화제 개발팀 회식이라든지, 공기정화 처리장 출장과 같이 늘 써먹는 내용으로 말이다. 하지만 A요원은 나보다 한수 위가 맞다. 내가 R요원한테 쩔쩔 매는 것을 벌써 알아 챈 것 같다.

"모두 준비 되었지? 출발하자."

"얼쓰!"

나 빼고 다른 요원들은 여유가 있다. 나의 손은 땀이 흥건했다. 검주황빛 빗자루? 신무기로 땀이 흘러 내릴 것 만 같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아주 없진 않다. 우리의 주 임무는 쓰리로를 쓸어버리는 것이니까? 역시 우리 R 이라니까.

"긴장 하지마."

T요원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저쪽이다! 조심해!"

"크으엉! 크으엉!"

엄청난 덩치의 '쓰리로'다. 덩치만큼이나 큰 소리로 울어댔다. 쓰리로는 사실 우리 인류의 최대 인공지능 쓰레기 처리 로봇이었다. 왜 저렇게 변종했을까? 우리의 밥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쓰리로를 처리할 때마다 마음이 씁쓸하다. 처음에는 쓰리로가 이상행동을 하지 않았다.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를 능숙하게 처리를 했다. 천연? 지금은 고대어가 되었지만 천연 효모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숙성시켜 거름으로 만들어 천연 흙 자원으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펄프를 뽑아내 옷감이 되기도 하고, 유리를 뽑아내 조명을 만들어 내기도 한 부지런한 인공지능 로봇이었다. 재주도 좋아서 생각하지도 못한 자원으로 되돌려 놓기에 열정을 다했다. 그러다가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이 시작되었다. 쓰레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차피 쓰리로가 알아서 처리 할 것이니까. 쓰리로가 경고를 하긴 했었다. 쓰리로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쌓여 가면서 악취가 생기기도 하고, 이상한 생명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항문이 없는 개구리가 고통 받아서 수술을 하던 박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더랬다. 하지만 이럴 때 마다 쓰리로의 생산량을 늘리면 된다고 했었다. 어느날 갑자기 쓰리로들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많은 쓰리로의 폐기물이 쌓이면서…. 더 이상 상상하고 싶지 않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어쩌나, 쓰리로의 변종으로 더 이상 아름다운 들풀들은 디지털백과에서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E 정신차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는 건데?"

A요원은 나를 밀쳐내고 무기를 들어 레이져를 쏘았다.

"에잇! 재활용 빔 발사!"

나는 쓰리로가 쏟아내는 오물에 매몰될 뻔 했다.

"아 미안, 내가 잠을 푹 못 잤잖아."

"실명되고 싶어? 잘 피하라고!"

쓰리로의 오물은 각종 폐기물들이 섞여 이상 화학반응으로 독극물이나 다름없다. 큰일이다.

"야! 너 그렇게 할 거야?"

"조심해요. E!"

R의 따듯한 말이 아니었으면 나는 울컥한 마음으로 집중하지 못했으리라. 역시 R.

"미안해, 집중할께!"

나는 R을 보며 말했다. 절대로 A에게 한 말은 아니다.

"R 뒤쪽에 쓰리로야!, 재활용 빔 발사."

이런 R의 어깨 마크위로 쓰리로가 튀긴 오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러다가 그녀의 여린 어깨에 화상이 생기겠어.

"천연 세제 거품 스프레이 작동!"

얍삽한 A가 어느새 R의 어깨를 씻어내고 있었다. 생각보다 동작이 빠른 A요원을 나는 따라갈 수가 없다. 분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E 괜찮았어! 좋은 순발력이야! R 뒤에 있는 쓰리로를 보다니."

A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분한 마음인데 얼굴이 제멋대로 웃고 있다. 에이 그래서 내가 조수 따위를 못 벗어나는 거라고. R이 보고 있을까봐 재빨리 얼굴을 돌렸다.

"재생 에너지 흡수!"

마지막으로 H요원이 흡입기를 통해 쓰리로를 빨아 들였다. 이것도 H요원이 수개월 내내 연구한 성과다. 거대 쓰리로를 압축하여 그때 발생한 거대 열에너지를 흡입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것도 꼭 '청소기'모양이다. H는 박물관에서 아이디어를 항상 구상하나 보다.

"오늘도 임무 성공!"

T요원과 R요원이 쓰리로를 큐브에 정리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 함께 박수를 쳤다.

본부로 돌아왔다.
"모두들 회의실로 오도록"
손목에서 지령이 울렸다.

"항상 위험이 생긴 뒤에 뒷정리만 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쓰리로 대장을 찾아서 없애야 해."
R이 상처가 난 어깨에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쓰리로의 이름이 '쓴' 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한번도 본적이 없잖아."
T의 말이 맞다. 형체를 알아야 처단하기라도 할 텐데.
"쓰리로들을 모조리 없애면 '쓴'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뒷 수습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존재를 지워버리자구!"
A가 의욕이 넘쳐서 이야기를 했다.
"이러다간 지구가 곧 쓰레기 행성이 되고 말겠어."
R이 울먹이며 말을 했다.
"이게 쓴 때문인 것 같지? 너도 잘 알잖아. 쓴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바로 인류 때문이라고,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 인류가 아무렇지도 않게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들을 만들어 갔지. 강에다가 바다에다가 버리고, 흙속에다가 파묻고, 심지어 공기중으로 날려 보내기도 했어. 쓰레기를 불태운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주 사라 졌다고 생각한 것이야."
"인류?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쓰리로만 믿고 마구 낭비했던 것은 왜 나 몰라라 해?"
T의 말에 R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치이익 칙 치이익 칙 EARTH 요원 응답하라, 큰일이다. 쓴이 모습을 드러냈다."
"머라구!"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튕겨지듯 일어났다.
"치이익 칙 쓴이 보낸 메시지를 전송한다."
손목에서 영상신호가 떴다.

"나는 너희들이 찾는 [쓴]이다!"

장려상

바닷가의 쓰레기

정 온 유 (매곡초등학교, 3-3)

제주도 바닷가에 갔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수영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경치를 구경하면서 걸었다. 그런데 발에 뭔가가 밟혔다. "부시럭 부시럭" 바로 다 먹고 남은 과자 봉지였다. 주으려고 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줍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라도 할 걸… 후회가 된다.
왜냐하면 그 쓰레기들이 바다에 실려 광주까지의 물도 다 오염이 되니까 말이다. 그리고 또 어릴적 내가 물놀이를 하던 그 계곡물도 오염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때의 그 물은 깨끗했었다. 지금은 오염이 되어있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되면 아주 더러워 질 것 같다. 그래도 난 이 푸른 제주도 바다만은 꼭 지키고 싶다. 그래서 바다를 지키기 위해 방법을 생각해 봤다.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절대 규칙을 세워 지켜보는 것이다. 깨끗한 물로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으며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한결아, 은찬아 너희들 누나랑 같이 쓰레기 주울래?" 하지만 그럴때마다 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쓰레기는 더러운데…" 하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조금 속상하다. 이 더러운 쓰레기들이 물로 흘러들어 오염이 되는 건데…당장 내 손에 묻히기 싫어서 자연을 보호하지 않는 다는 것이 슬프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당장 손에 묻은 더러운 것들도 깨끗한 물이 없다면 씻을 수 없는데 결국 깨끗한 물을 사용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나 말고도 내 주변에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모들에게도 같이 실천하자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또 바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물이든 깨끗하게 지켜주고 싶다. 여름에 시원한 계곡에서 놀다 계곡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들을 봤다. 수 많은 사람들이 놀다가는 곳에 많은 쓰레기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는 각자 챙겨서 돌아가면 아름다운 자연이 유지될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었었다. 작은 연못가에도 또 저수지에도 그리고 계곡물도, 강물도, 모두 깨끗하게 지켜야 바다도 오염되지 않고 깨끗할 것 같다. 올해 여름, 휴가철에는 바다나 계곡에 반드시 내가 가져간 쓰레기를 들고 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난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의 예쁜 모습이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남아 있으면 정말 좋겠다.

장려상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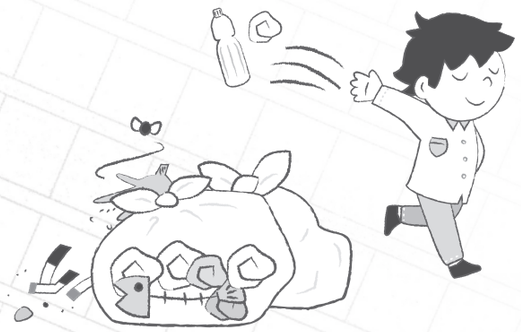
김 리 우 (연제초등학교, 5–1)

쓰레기 하나를 버릴 때마다 나는 소리

식물을 한 송이 꺾을 때마다 나는 소리

하나쯤이야, 뭐 어때.
다른 사람이 잘 하겠지.

작지만 큰 하나가
지구의 신음을 불러옵니다.



장려상

지구야, 지구야

임 채 은 (하백초등학교, 4–1)

지구야, 지구야 어디가 아프니?
나는 나는 더러운 매연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지구야, 지구야 어디가 아프니?
나는 나는 오염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아파.

지구야, 지구야 어디가 아프니?
나는 나는 자동차의 소리 때문에 귀가 아파.

지구야, 지구야 어디가 아프니?
나는 나는 냄새나는 담배연기 때문에 코가 아파

지구야, 지구야 어디가 아프니?
나는 나는 쓰레기를 사람들이 나에게 버려서 가슴이 답답해서 아파.

지구야, 지구야 어떻게 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니?
나는 나는 매연과 오염된 물, 자동차 소리,
쓰레기와 담배연기를 줄여주면 안 아플거야.

가 작

아름다운 푸른지구

심 서 윤 (어룡초등학교, 4–2)

동글동글한 지구!
지구에는 날마다 다양하고 수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깊이를 알수 없는 바다에
꿈틀꿈틀 움트는 대지에
맑고 푸른 하늘에
저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초록별이에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푸른 지구!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고 있는 지구!
지구의 햇빛
지구의 빛깔
지구의 소리
가만히 느끼고 다 같이 들어 보아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한결같이
모나지 않는 동그란 지구와 함께
아름답게 푸르게 같이 웃어 보아요.

가 작

환경 지킴이 단원 납치 사건

김 준 석 (광천초등학교, 5–2)

"뉴스입니다. 며칠 전 푸른산씨가 실종된데 이어서 어제 밤 시공기씨가 실종되었습니다. 두 분은 환경 지킴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유명한 분들입니다. 경찰은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다하며 증거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때 이 뉴스를 보던 탐정 재활용씨는 사건 현장을 찾아갔다.

사건 현장 근처만 가도 악취가 나는 데다 음식물이 묻은 비닐과 깡통, 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사건으로 힘든 하루를 보낸 재활용 탐정은 녹초가 됐다. 더군다나 악취 냄새로 인해 머리가 아팠다.

"납치범들의 그 다음 목표로는 환경 지킴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맑음수 박사일 가능성이 높아, 납치 된 그 둘처럼 환경지킴이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 맑음수 박사를 보호해야 돼." 어두운 밤 어디선가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이 마구 이용하고서는 우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래. 또 자기들이 잠깐 관심 주다 버려 지구 여러 곳에 버려져 있어."

"맞아,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태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쓸모가 없대. 난 이런 삶을 살기 싫어."

"나도 불만이 많아, 사람들이 아픈 이유가 다 우리 잘못이래. 또 우리를 많이 이용하다가 나중에는 중금속이 들어있다고 위험하대. 자기들이 우리를 만들었으면서."

"나는 다시 태어나면 재활용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

"나도 다시 태어나면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오래 사람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

그 때 그들을 대화를 듣고 있던 환경 수호양은 재활용씨에게 지금 당장 깡똥씨의 고물상으로 오라고 연락을 했다.

납치범인 플라투틱씨, 비닐라양, 깡똥씨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쓰레기가 거리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 쓰레기로 인해 악취가 나고 벌레까지 모여 들어 말하고 숨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거나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고 있어 병원마다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쓰레기 대란입니다. 환경 오염을 직접 경험해 보니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다가는 인류는 결국 멸종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대란 속 취재 기자 아껴씀 기자였습니다.

그 때 재활용 탐정이 문을 열고 들어가 무술 솜씨로 납치범들을 제압했다.

"왜 납치했지?"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싶었어. 이렇게 해야 우리 같이 소외되고 버림받는 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지."

"그래, 사람들은 환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싶었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줄 알아?"

"우리도 재활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 억울해. 그래서 납치했어."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으니 우리도 반성할게."

재활용씨는 경찰에게 사정을 말하고 범인들을 넘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람들은 환경 선언문까지 만들었다.

환경선언문

1.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2. 분리수거는 생활화하기
3. 음식물 남기지 않기
4. 세제는 적당히 쓰기
5. 종이를 아껴 쓰기
6. 환경마크 인증 제품 쓰기
7. 에너지 아껴 쓰기
8.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기
9. 아나바다 운동을 전개하기
10. 자연을 사랑하기

이 환경 선언문을 실천하는 모습을 본 재활용 탐정은 흐뭇하게 웃었다.

가작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이 영 우 (하백초등학교, 4–1)

길가에 있는 나무와 풀들, 작은 동물들, 매일 등교하면서 보는 것이다. 내가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나무와 풀이 여기 있는 게 당연하고, 좀 볼 때마다 짜증났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지금에 나로선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로 변했는지는 기억이 난다.

2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1달 뒤쯤이었다. 그 일덕에 내가 자연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날은 비가 마치 폭포처럼 왔다. 내가 학교 끝나고 교문을 나오고 있었는데 한 방울씩 비가 떨어지더니 상상도 못한 비가 온 것이다. 울면서 뛰어가던 그때의 내 눈에 어른 은행나무가 보였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라서 은행나무를 껴안고 비를 피했다. 작은 아기 고양이도 은행나무 밑에서 바르르 떨고 있다가 나를 보고 바짝 웅크렸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고양이로부터 한 발짝 떨어졌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빠르게 뛰어가며 생각했다.

'평소에 하찮게만 생각했던 은행나무가 빗속에서 날 구하는구나. 아기고양이는 우산을 가질 수도 없는데, 정말 불쌍하다.'

이 날로 나는 지금까지 나무나 풀, 동물들에 대한 것을 찾고 자주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지구가 숨도 못 쉬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사실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께서 지구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난 자주 잊어버렸다. 그래서 2학년이 내 인생 반환점이 되었을 수도 있다.

요즘에는 식물 심는 것도 자주 한다. 그게 취미생활이 되어 버렸다. 나무들은 참 불쌍하다. 아픈데도 호소하지 못하고 아프면서 모든 것을 엄마인 지구가 아픈 것을 보고만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나도 사람이지만 이상한 건 참을 수 없다. 짧은 거리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은 1분 정도의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것이 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왜 자동차를 타며 환경을 더럽히는 걸까? 얼마 전, 학교 앞에서 화단에 쓰레기를 버리고 짓밟는 사람들을 봤다. 이해가 안 된다. 환경이 안 좋아지고 나무가 죽어 가면 그건 결국 사람들에게 돌아온다. 왜냐하면 나무 풀들이 죽으면 먹을 게 없어서 초식동물이 죽고, 초식동물이 없으니, 육식동물도 죽는다. 모든 먹을 것이 사라지니, 마지막엔 사람도 죽는다. 그걸 모르고 마구 뽑거나, 짓밟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그것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을까? 아마 그 작은 초록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피해는 아나요? 우리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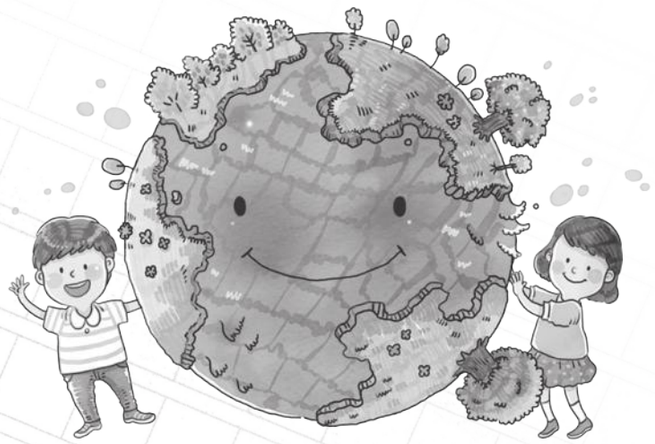
우리가 한 번도 그것들에게 '사랑'이라는 눈길을 보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초록이들의 말을 못 들은 것이다. 초록이들을, 우리 세상의 어머니를 지키려고 요즘에 자주 하는 것은 양치컵 사용하기, 단거리 자전거 타고 가기, 쓰지 않는 코드는 뽑기, 일회용 컵 대신 더 아담하고 귀여운 머그컵 사용하기이다.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모두 다 쉽고 빠르게 힘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들중에 하나라도 하면 우리 초록이들과 세상의 어머니, 지구는 행복해질 텐데.

이것처럼 내 꿈은 '동물과 식물,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조화롭게 어울려 살게 하는것'이다. 이것으로 내 인생을 바칠 것이다. 내 덕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모두 행복해진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세상은 이런 것을 알면서도 0.1초가 아깝다고 안하고 있다.

모든 것이 슬퍼하고 죽어가는 게 그리 즐거운 것일까?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싫은 것일까?

묻고 싶다.

"이 쉽고 아름다운 작은 행동을 언제까지 안 할건가요?



가 작

아픈지구

정 시 은 (나주남평초등학교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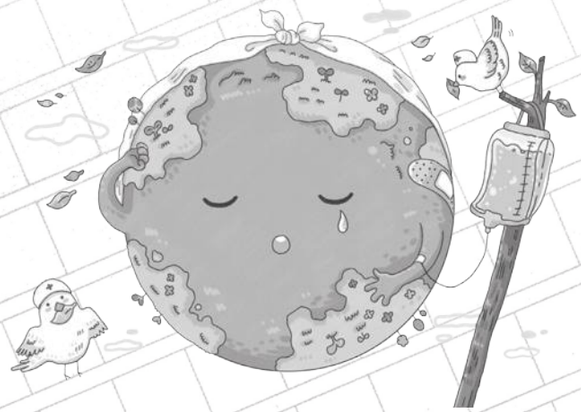
점점 앓아 가는 지구는
응급실로 가야하는데
지구는 어디로 가죠?

그 방법은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안 지켜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기
일회용품 줄이기

이 방법을 지키면
지구가 회복하는
약이 되요.

우리모두
지구에게
약을 선물해줍시다.



가 작

쓰레기

마 예 진 (동신여자고등학교 , 2-8)

주관없이 흔들리는 나쁜인간을
쓰레기라 한다

재활용 되는 쓰레기는 상관없지만
되지 않는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그리고 사회오염의 주범이다

쓰레기가 더 큰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쓰레기가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씩의 작은 관심으로부터
사회가 달라지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무드리 문예마당 | 북구문화원 회원 초대석

– 목련꽃 / 위무량
– 지나가는 계절 / 배병수
– 한시(漢詩) / 이덕재의 15인
– 호남천년고도목사골 나주문화 / 고창옥

목 련 꽃

북구문화회원 위 무 량

삼동(三冬)에 임 떠난 빈자리
삭풍(朔風)이 스며들까 문풍지 발라놓고
오매불망(寤寐不忘)기다렸건만

혹여 천사의 탈을 쓴 불청객의
추파(秋波)에 미혹(迷惑)돼지 않을까
젖가슴 꽁꽁 동여맨 채 움츠리고

해님과 달님이 지켜본 가운데
행동거지 조심했건만
강남재비 돌아온단 소식 듣고

아지랑이 눈앞서 아른거림에
나도 모르게 한눈 판 사이
실밥 터진 옷자락사이로 숨어든

춘풍이 은근슬쩍 꼬드김에
정신 몽롱(朦朧)해 풀린 옷고름
못 추스르고 젖가슴 부풀어 터졌네.

*한국문인 등단, 한국문인협회, 광주문인협회, 광주시인협, 전남문인협회 회원
*한국문인 신인상, 광주시문학상, 영산강 · 섬진강사랑글짓기 우수상
한민족통일문예 대제전우수상, 하이네탄신212주년기념 문학대상.
*〈석춘여정 Ⅰ · Ⅱ〉,〈내 마음 나도 몰라라〉(늘 푸른 세상),〈세월의 강〉 외 다수

지나가는 계절

북구문화회원 배 병 수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서 복 받은 나라이다. 겨울에는 죽은 듯이 나목으로 외롭게 서있던 나무들도 봄에는 가지마다 푸른 잎을 달고 굳건하고 싱싱함을 자랑한다. 봄이 오면 온 들판에는 푸른 농작물과 야생화들이 피고지고를 반복하며 나비와 벌을 유인한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 한다. 사람마다 겨울 내내 움츠렸던 몸을 스프링처럼 튀어나가고 싶은 계절이 봄일 것이다. 겨우내 방안을 지키던 아낙네도 봄나물을 캐거나 화전을 구실삼아 밖으로 나가보고 싶은 계절이 봄인 것이다. 활동하기도 편한 계절이 봄이어서 4계절중 봄이 제일이라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봄은 오는가 싶으면 여름이 곧장 뒤따라와서 이마에 땀방울을 맺히게 한다. 무더운 여름엔 후텁지근하며 기온이 상승하다보면 행동반경이 좁아지기 마련이다. 마을의 숙녀들 중엔 무덥다는 구실로 아름다운 몸매를 뽐내기에 좋은 계절이 여름인 것 같다. 입고 있는 옷의 길이는 점점 짧아지고 보기에도 아슬아슬할 정도의 초미니 옷을 두르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도 많다.

지나고 보면 봄철에 화사하게 핀 벚꽃도 그저 한 때인 것이고 지나고 나면 모두가 화무십일홍이요 세월의 무상함을 저절로 느낀다. 지난시절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시간을 알차게 보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기에 아쉬움이 많다. 인생의 여정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그 시절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철칙임을 늦게 알게 된 것이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수증기가 대기 중에 많이 쌓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비를 뿌리는 계절이 여름 장마철이다. 장마철이 지나면 가끔씩 비가 내려야 할 시기에 가뭄이 들면 인심은 흉흉해지며 농작물이 타 들어가면 농민들 가슴엔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갈 정도로 마음고생이 많다. 한참 대지가 목마를 때 바람이 불면서 하늘에서 장대비 같은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 농부들의 이마에 있던 주름은 순식간에 펴지고 입 꼬리는 귀에 걸리며 웃음꽃이 핀다. 사람이 살면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비를 기다릴 때 알맞게 소나기라도 뿌려주면 하늘의 도움이라 믿고 농부들의 걱정거리가 해결되면서 삶의 즐거움을 느낀다.

무더위에 지치고 있을 여름날의 해는 조금씩 짧아져가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면 사람들은 가을이 오는 소리를 오감으로 느낀다. 계절에 관계없이 대기 중에 원소는 질소(78%), 산소(21%) 물(1%)이 대부분이고 아르곤과 이산화탄소는 아주 극소량으로 존재한다. 똑같은 대기원소가 존재하더라도 구름이 지나가고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감정은 365일 똑 같은 날이 거의 없다.

봄엔 푸른 산과 농작물에서 새싹들을 보며 희망의 계절이라고 말할 때 이미 여름은 우리 곁에 살며시 와있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은 어느 계절이나 세월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면 퍽 아쉬워하는 것 같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시원하고 아름다운 바닷가나 산의 계곡을 찾아가서 피서를 한다. 직장과 가정에서 더위와 씨름하면서 지내다 보면 어느덧 찾아오는 가을을 맞게 된다. 가을엔 푸른 하늘을 보면서 상쾌한 바람을 맞으면 마음은 차분해지면서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삶을 사유(思惟)하기도 한다. 그래서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는 것 같다. 맑은 가을날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일 것이다. 해질 무렵에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여지는 것도 두꺼운 공기층을 길게 지나면서 푸른빛은 거의 흡수되고 파장이 긴 빛만이 눈에 다다르면서 붉은 노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토록 자연의 아름다움은 사람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지 싶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감정에 따라 철학자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 역시 가을이 오면 깊은 사유에 빠져 우울할 때도 있었던 계절이 가을이었다.

높고 맑은 푸른 하늘을 보면서 나는 어느 곳에서 왔으며 내 몸의 주인인 영혼의 종착역은 어느 곳일까를 생각 했지만 지금도 해답을 얻을 수 없다.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을 보면서 무량광대한 우주에서 나는 아주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다.

낙엽이 바람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가을이 오면 쓸쓸한 감정이 가슴까지 파고 드는 계절이 또한 가을이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하면서 쓸쓸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듯 가을바람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한기를 느낄 때 창조주께서는 가슴에 채워줄 풍성한 오곡과 맛있는 과일로 마음을 다독여 주는 계절이 가을인 것 같다.

가을도 봄처럼 왔는가 싶으면 어느덧 가을이 떠나버리는 뒷모습만 보인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살며시 찾아오면 손과 발의 체온부터 내려감을 직감할 수 있다. 겨울엔 멀고 가깝게 보이는 산야에 하얀 눈이 소복이 내리면 남극지방에라도 온 것처럼 모든 산야가 하얀 눈 덮인 조용한 세상이 펼쳐진다.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에겐 겨울의 스포츠를 즐기고 농부들에겐 내년의 새해 농사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나라에 따라 무더운 계절만 있는 곳이 있고, 사람이 적응하기 어려운 추운 곳도 있다. 그리고 몇 개월씩 우기와 건기가 있는 나라도 있는데 사람들은 모두 적응하며 잘 살아간다. 계절이 변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으로 태양열의 변화와 태양이 내리쬐는 시간의 변화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계절은 어느 누가 붙잡을 수 없으며 어김없이 오고 가기를 쉼 없이 반복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는 지나가는 계절에 아쉬움이 많다. 어렸을 땐 세월 가는 것을 바랐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이들 수록 계절은 더욱 빨리 바뀌어 지는 것 같다. 지나가는 계절을 아쉽게 생각하지만 춘하추동(春夏秋冬)이 순환하면서 만물도 생로병사(生老病死)가 이루어지는 자연의 섭리에 그저 순응할 일이다.

송천 **배 병 수**

『수필시대 2006년』외『수필문학2007년』등단(수필).『소년문학 2009년』등단(동화).
단테 탄신 기념문학상 대상 수상(2010년). 제17회 한국문인협회작가상 수상(2010년).
광주 · 전남아동문학인상 수상(2012년) 제12회(2012년)산림문화작품공모전(수필)동상수상
국제 펜 광주지회 회원. (사)영호남수필문학협회 광주 · 전남지회장
저서(수필집): 〈 멈춤 그리고 시작〉,〈 순환의 여정〉 〈갈대의 춤〉
(동화집) : 〈청설모가 왕인나라〉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공원로 35, 105동 707호(치평동상무1차 우미아파트)
연락처 : 010-3530-4100
e-mail : b6735423@hanmail.net

漢詩

秋 興

여기에 실린 漢詩는 한시회 광주서림음사(光州瑞林吟社) 회원들의 작품이다.

광주서림음사는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은 26명으로 1972년 8월5일 광주시 계림동 수성노인당에서 수계 창립 서림음사로 발족하여 매월 25일 정기 아회일로 정하여 매월 아회를 개최 한시의 근본 중핵인 동양 시문학의 모체이며 순수한 인간 본연의 지정의 혼백 경지를 최고로 표현하고 묘사 시킨 사상을 계절 순환과 변모 상황의 가경에 따라 삼라만상의 변화 조성된 기려 묘경을 자연법칙과 순리를 획득 감상하며 생활 주변에서 각종행사를 비롯하여 윤리, 이념구현, 실천행사와 축하 추모 제사 등에 경성 제시로 시지 17집을 제작 배부하여 한시 문화창달이 일익 발전 하였으며 會長 湖亭 李德在, 副會長 松下 文承烈, 總務 松隱 任昌奎이다.

한시 창작활동에 일취월장하여 광주에서 제일 우수한 한시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詩題(시제)

秋 興

雲亭 黃 應 圭

南山不老古今青
남산은 늙지 않고 고금에 푸르고

漁叟垂竿儔白鷺
늙은 어부는 낚시 드리우고 백로와 짝하고

呼賓杖鼓歌初發
손님 불러 장대 짚고 처음 노래하고

此日淸遊心氣足
오늘날 맑은 놀이심기가 족하고

流水無端晝夜聽
흐르는 물은 끝없이 주야로 들리네

詩人看字拾飛螢
시인은 글을 보고 나는 반딧불 줍네

迎友連杯醉未醒
벗을 맞아 술잔드니 취기 깨지 않네

浮生便得最康寧
부생 강녕하여 편안함 얻네

秋 興

湖亭 李 德 在 / 瑞林吟社 會長

五更霜落一燈青
오경에 서리 내려 싸늘한데 등하나 푸르고

玉奴烹茶烟外鶴
계집아이의 차 끓이는 연하구 밖 학이요

未能正枕閒常睡
고침에 익숙하지 못해 한가위 항상 잠이요

歸後田園荒免穢
전원에 들여온지 황무지 기근 면하고

絃樂彈琴月下聽
현악 탄금 하니 월하에서 거문고 소리 듣네

溪流丹鳥雨中螢
시내 흐른 개울가 단조 우준구 반딧불이네

只願傾杯煇不醒
단지 전하는 자주 경배는 취해 술깨지않네

浩然之氣自淸寧
덕배지 않아서 자유롭고 국용하여 편하네

秋 興

松下 文 承 烈

甘酸園果半紅靑
달고 신맛 동산의 과일 반쯤 청홍색이고

黃菊浮香飛晝燕
황국의 향기 떠 오를 때 낮에 제비 날으며

爽風北閣砧初始
북각에 상풍불 때 다듬이질 처음시작 되며

手把簿書看節候
명서를 손에 입수해서 절후를 알아보고

燈火可親經讀聽
등불 가까이해 경서를 읽는 소리 들리네

丹楓艷色翥宵螢
단풍의 고운 색깔에 밤에 반딧불이 날고

明月西樓酒晩醒
서루에 밝은 달이 비출 때 술 늦게 깨이네

紫薇花下自成寧
배롱꽃 아래서 스스로 편안함을 이루리

秋 興

秋下 吳 怦 植

蒼空霽日遠茫靑
푸른하늘 개인 날씨멀리 아득히 푸르고

月色虛階間瑟螅
달빛은 빈섬돌 사이에 귀뚜라미 울어대고

穫田種父盈車慢
수확한 밭 농부 수레 가득 실어 늦게오고

秀麗豊誠能享節
수려 강산 풍성하여 능히 누리는 절기

暐益楓紅感歎聽
단풍 햇볕에 더욱 붉어 감탄 소리 들리네

宵冥茂草裏班螢
어두운 밤 무성한 풀속에 반딧불 아롱지네

讀冊孺人炳燭醒
책 읽는 선비 밝은 촛불 살아지네

足餘季候泰平寧
넉넉한 계절에 태평세대 편안하네

秋 興

素巖 金 容 淑

旻天蕭瑟栢松靑
가을 하늘 소슬한데 백송은 푸르고

檻下暄囂噥啷蟋
난간아래 귀뚜라미 시끄럽게 중얼 그리는데

菊花馥氣蜂無醉
국화 향기에 벌나비 취하지 않는데

秋興陶然歌舞樂
추흥에 도연되어 가무하고 즐기는데

銀漢三更鴈翥聽
은한은 삼경인데 기러기

蘺邊旋轉閃明螢
울타리가를 빙빙도는 개똥벌레 밝게 번쩍 이도다

楓葉風光客不醒
단풍 잎의 풍광에 관객은 깨어나지 못하네

河淸海晏萬人寧
하청해안 하여 만인이 편안 하도다

秋 興

梧鳳 鄭 得 采

霧下天高秋節靑
안개 내리고 하늘 높고 푸른 가을철에

嵐光爭滴依支屋
남광이 젖어드니 집에 의지하고

玉露三更蟲語覺
옥로삼경의 벌레소리에 깨닫고

黃金曠野年豊樂
황금 큰 들판에 풍년이 즐겁고

樹間蟬咽夕陽聽
나무사이 목메인 매미 석양에 들리네

月色先登已去螢
달빛은 먼저 떠온데 반딧불 이미갔네

銀河萬里雁聲醒
은하수 만리에 기러기 울음에 술깼네

億兆蒼生豈有寧
억조창생들은 어찌 편안하지 않은가

秋 興

萬年齋 安 棟 周

生凉送署益天靑
더위가고 시원함 생기니 하늘은 더욱 푸르고

好節秋聲不厭聽
좋은 절기 가을소리 듣기가 좋구나

世態紛紛吟壁蟋
세태는 어지럽게 귀뚜라미 벽에서 울어대고

心光耿耿度窓螢
밝은 마음 밝게 비추며 반딧불 창을 지나가네

可親夜火三更近
등화가친 삼경이 가까웁고

偶發詩心一未醒
시심은 우연히 발하나 하나도 깨지 못하네

雨順風調豊兆歲
기후는 순조로워 풍년들 조짐이나

黃金滿野國民寧
온 들판에 황금가득 국민이 편안하구나

秋 興

誠齋 朴 東 申

小春飛雁太虛靑
시월에 기러기 날으는 하늘은 푸른데

前喁和聲近似聽
앞서 부르면 따르는 소리 가까이서 들리구나

頎頡天高紛舞鶴
하늘 높이 오르 내리며 백학은 춤을 추고

浮遊地闊遠離螢
땅을 넓게 떠다니던 반디는 멀리 떠났네

露含野菊孤芳郁
이슬 머금은 들국화는 외로이 꽃향기 품고

霜染山楓綺夢醒
서리 맞은 단풍나무는 화려한 꿈이 깨어졌네

賞客騷人皆悅樂
관상객과 시인들은 모두 기뻐 즐거웁고

晩秋醉興適歸寧
늦가을의 흥에 취해 편안하게 돌아가네

秋 興

云絲 柳 和 善

滿山楓染快晴靑
물든 단풍 가득한 산 쾌청한 하늘 푸르고

朝夕群蛩檻外聽
아침 저녁 귀뚜라미 난간 밖에 들리네

亭子每逢思笑客
정자에서 매일 만난 벗 생각나고

銀河散落共生螢
별들은 흩어져서 반딧불과 함께하네

叙情動熊常時樂
자기감정 몸가짐데로 지금까지 즐거운데

分守名分益日醒
명분의 벗어난 일 날마다 각성하네

留約消愁詩習未
소수을 유약 했으나 시습은 미진하고

暮年相訪問安寧
노년을 서로 찾아 안녕을 물어보네

秋 興

學松 宋 泰 鐘

萬嶽紅黃碧落靑
산들은 단풍들고 하늘 푸른데

幽窓靜坐內心靑
고요히 앉아 마음 소리를 들어본다

讀書獨榻朋明月
책상에서 독서하며 밝은 달 벗하고

散步涼風友舞螢
서늘한 바람 거닐며 반딧불 벗한다

草裏蟲吟吾亦樂
풀 속의 벌레소리 나 또한 즐겁고

枕邊世事我令醒
잠자리 세상사는 나를 깨우치네

光陰不息流何處
세월은 쉬지않고 어디로 흘러가나?

感喜神功老益寧
신에게 감사하니 늙은 몸 건강 함이네

秋 興

春壽堂 梁 會 翊

遠天雲散水寒青
먼 하늘에 구름은 흩어지고 물은 차고 푸르니

凉氣入郊牀聞蟋
서늘한 기운이 뜰에 들어오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고

白鰕作醢飽無厭
새우로 젓을 만드니 배불러도 싫지 않고

五穀登豊千果盛
오곡이 풍성하고 여러 과일이 넉넉하니

稻熟魚肥滴露聽
벼는 익어가고 물고기는 살찌고 찬이슬 떨어지는구나

熱炎退去隱身螢
무더위가 멀리가니 반딧불이 자취를 감추네

黃菊釀醪醉不醒
국화로 술을 빚으니 취하여 곤히 잠드는구려

一年秋興國家寧
일년의 가을 흥이 나라나 집안이 편안하다

秋 興

俊庠 朴 鐘 隸

金商節序看天青
가을철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楓赤喈喈鳴群雀
붉은단풍 숲에 참새떼가 재잘재잘 지저기고

霜鴻極浦儕同落
서리 맞은 기러기는 포구 끝에서 함께 내리더니

騷客吟風酬嗜酒
시인들은 풍월을 읊으며 술을 즐겨 권하니

階下蛩聲悽絶聽
섬돌밑에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들리더라

菊黃耿耿翥孤螢
국화에는 반짝반짝 외로운 반딧불이 날아 오르더라

寒月登樓我獨醒
차가운 달밤에 누각에 오르니 나홀로 깨이더라

吾邦四海足咸寧
우리와 온세상 사람들은 편안히 만족 하더라

秋 興

時隱 蘇 秉 昶

淸秋肥馬竹松青
맑은 가을 말이 살찌고 대와 솔 푸르고

江老嗟磨隨皓月
강노가 차마함에 밝은 달을 따르고

翻風黃菊詩情起
노란 국화 번풍하니 시정이 일어나고

玩賞景光無限樂
좋은 경치 구경하니 한 없이 즐겁고

五穀登豊擊壤聽
오곡백과가 풍년들어 풍년가를 듣네

車翁切琢拾羣螢
차윤노민 절탁함에 반딧불을 주었도다

碎錦丹楓酒氣醒
붉은단풍 쇄금하니 주기가 깨는구려

閑吟泉石自然寧
자연에서 한가히 읊으니 스스로 편안 하도다

秋 興

松隱 任 昌 奎

倉官直志四時青
솔나무의 곧은 뜻 사시라 푸르고

廣野金波同伴雀
황금물결 넓은 들 참새가 짝지어 날고

溪邊賞客相酬醉
계변의 상객은 많은 술에 취하고

錦繡江山誰不愛
아름다운 금수강산 누가 사랑하지 않겠는가

萬里旻天雁陳聽
민천만리에 안진소리 들리네

千畦赤果作群螢
붉은 과일 온 밭에 반딧불이 날아 오르네

岸上農夫自各醒
안상의 농부는 홀로 술깨네

吾儕保護願邦寧
우리들이 보호해서 나라 평안 기원하세

秋 興

青松 文 鎬 載

清香秀菊美丹青
맑은 향기 국화꽃 빼어나니 붉고 푸른 빛 아름답고

夕麗湖中雁語聽
저녁노을 호수 가운데 기러기 우는 소리 들리니

華髮飄蕭江立鶴
강가에 서있는 학의 흰머리 쓸쓸한 바람 불고

寒燈寂滅渚秋螢
한등은 사라지고 가을에 반딧불 웅덩이에 비추며

娛心玉景詩情醉
즐거운 마음 아름다운 경치 시정에 취하고

遊客金風酒醴醒
노는 사람들 가을 바람에 술과 감주에 깨어나며

穀果豊饒琴舞遠
오곡백과 풍요하니 춤과 거문고 소리멀리서 들리고

黎民槿域樂願寧
우리나라 백성들 즐겁고 편안하길 바라네

秋 興

江齊 梁 一 太

烏兎總總玉宇青
까마귀 토끼 전부 옥우에 푸르고

後園棗栗墜聲聽
후원의 대추밤은 떨어지는 소리 들리고

去燕來雁無相面
가는 제비 오는 기러기 서로 만남이 없고

結露寒林不翅螢
찬 수풀에 이슬 맺혀 반딧불 날지 못하네

黃菊花中蜂易聚
국화 꽃중에 벌은 쉽게 모이고

白醪樽側客難醒
흰 술동이 옆에 나그네 깨지 않네

吟風與友隨時醉
친구와 읊으니 취함이 따르고

果穀連豊萬事寧
과실 곡식 이어 풍년 만사가 평안하네

호남천년고도목사골 나주문화

북구문화회원 고 창 옥
(전, 북구청 도시국장)

2천년 시간을 거슬러 나주문화유산을 살펴보면 나주읍성과 옛 사대문이다.

나주읍성은 전체 성벽의 크기를 복원해 보면 둘레가 3,679m 면적 974,370㎡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이 훼철되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성곽의 형태는 타원형이다. 현존하는 유구를 살펴보면 먼저 서벽(西壁)의 경우는 교동일대에 남아있는데 민가의 담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중 교동 67번지 부근이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돌크기는 길이 19m, 높이 90~240cm로 성벽의 아랫부분을 1x1m 크기의 자연석을 겉면만 치석하여 '잔돌끼움방식'에 의해 쌓아 올렸다. 서문지에서 북벽까지는 잔존유구가 확인되지 않는다. 성문은 4개로 동점문(東漸門), 서성문(西城門), 남고문(南顧門), 북망문(北望門)이 있으며 동점문은 일제강점기에 대부분 없어지고 붕괴 되었으나 2002년 동점문터을 발굴하여 2006년 2월 복원되었다. 서성문은 동학농민운동 때 서성문을 넘지 못하고 전멸하였다는 슬픈 사연을 담고 있는 곳이다. 남고문은 1920년경 일제에 의하여 약간의 석축만 남고 완전 철거되었다가 1993년 옛 모습대로 복원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 보수 되었다. 북망문은 일제강점기에 붕괴성벽이 막주박으로 2018년 12월 복원이 완료된 성문이다.

영산등대(수위관측소)는 국내 유일의 내륙등대로 일제강점기 영산강의 영산포 선창에 건립된 등대이다. 1915년 설치된 시설로 수위관측과 등대의 기능을 겸했다. 이 등대는 우리나라 내륙 하천가에 있는 유일한 것으로 1989년까지 수위 관측시설로 사용되었다.

동헌(東軒)은 일제강점기에 헐리고 나주 매일시장터로 활용하다가 현재 발굴조사 중이므로 발굴이 끝나면 복원할 계획이다. 노안성당은 등록문화재 제44호로 전남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길 108(양천리)에 위치한 이 건물은 일제시대 건축물로서 나주지역 최초의 천주교회이며, 이 지역의 대표적인 근대성당건축이다. 초기평면은 장방형의 강당형 평면 구성이었으나 1957년 트랜셉트(Transept, 翼廊)

부분을 동 · 서 방향으로 증축하면서 라틴 십자형 평면이 되었다. 정면의 탑신부 1층은 거칠게 표면을 다듬은 화강석을 사용하였으며, 건물 곳곳에 다양한 아치를 조화롭게 하였다.

반남고분군은 사적 제513호로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고분로 756에 위치하여 나주시 반남군 자미산(98m)을 중심으로 신촌리, 대안리, 덕산리의 낮은 구릉지대에 산재해 있다. 반남 고분군에는 대형옹관고분 수십기가 분포하고 있다. 대형옹관고분이란 지상에 분구를 쌓고 분구속에 시신을 안치한 커다란 옹(壅:항아리)을 매장하는 방식이다.

금성관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0월 25일 국가보물 제2037호로 격상 지정되었고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 8(과원동 109-5)에 위치한 나주목의 객사이다.

객사란 고려-조선시대 지방궁실로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 궐패(闕牌)를 모셔두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고을의 관리와 선비들이 모여 망궐례(望闕禮)를 올리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관리들을 양쪽의 익사(翼舍)에서 유숙하게 하던 곳이다. 지방 도읍지에 관아건물이 들어서면 중심축선상에 동헌과 정문 루문 등이 자리하고 주변에 육방관속의 건물과 내아들이 위치한다. 현재 나주 읍성내에는 나주 목사 내아(內衙) 관문(官門)인 정수루(正綏樓)와 서문밖에 나주향교등이 있다.

금성관 정문인 망화루는 일제강점기에 없어졌던 것을 2003년 복원하였다. 목사 내아(금학헌)은 전라남도문화재 자료 제132호로 전라남도 나주시 금성관길 13-10(금계동 33-1)에 위치하여 조선시대 나주목에 파견된 지방관리인 목사(牧使)의 살림집으로, 건물의 이름은 금학헌이다. 목사의 업무를 처리하던 동헌의 정문이었던 정수루에서 서쪽 약 65m 떨어진 곳에 있다. 언제 건축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고 다만 대문 옆에 있는 문간채를 고종 29년(1892년)에 만든 것으로 보아 살림집 역사 19세기에 지은 건물로 추측된다.

나주목 내아는 궐패(闕牌) 전패(殿牌)를 모셔 놓고 초하루 보름에 궁궐을 향해 절을 올리던 금성관 객사와 함께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 관아 건축의 원래 모습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나주향교는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8호로 전라남도 나주시 향교길 38(교동 32-3)에 위치하여 우리나라 대표 향교로서 이곳에서 하루 밤 만 자면 시험에 붙는다는 설도 있다. 드라마 성균관스캔들의 촬영지이기도 하며, 현재 여러 가지 전통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향교의 대성전은 보물 제39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5성(五聖) 송조4현(宋朝四賢) 우리나라 18현(十八賢)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정수루는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 86호로 전라남도 나주시 금계동 13-18에 위치하여 나주에서 편찬된 여러 지지류(地誌類)에 관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정완루는 정수루라고도 부르며, 금성관 좌측에 위치한 나주의 관아문이다. 1603년(선조36)에 나주목사로 부임한 우복룡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 나주역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183호로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동 60-1에 위치한 나주역사는 1929년 10월 30일 오후 4시경 나주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일어난 다툼이 계기가 되어 전국적인 학생독립운동으로 확산되어 154개교 54,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일제하 3대 독립운동의 하나인 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 였다.

다음으로는 축제 즐기기로 영산포 홍어 축제로 600년 홍어 역사가 코끝으로 살아 숨쉬는 "숙성홍어의 본 고장" 영산포! 영산강 물길따라 황포돛배 두둥실 떠나던 시절 홍어의 고향 흑산도에서 영산포까지는 배 길로 5일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 그때는 지금처럼 냉동보관기술이 발달하지 못해 운송도중 홍어가 숙성됐는데, 이 홍어가 기막힌 맛을 내었다. 차츰 먹다보니 특유의 알싸한 맛이 남 주기 아까울 정도로 일품이었다. 영산포 사람들이 삭힌 홍어의 묘한 맛을 발견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 영산포 홍어의 시작인 것이다. 홍어축제기간은 매년 4월중(3일간) 장소는 영산포 홍어거리 및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한 번 가서 맛보면 홍어의 진미를 느낀다.

마한문화축제는 마한역사문화유적지인 반남고분군과 나주박물관을 연계한 축제를 통해 마한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영산강유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가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축제이다. 기간은 매년 10월중(3일간) 장소는 국립나주박물관 및 반남고분군 일대이다. 한번 찾아서 옛 마한문화를 만끽하고 이 지역 조상의 숨결을 살필 수 있다.

영산강 황포돛배는 과거 영산강 물길을 이용해 쌀, 소금, 미역, 홍어 등 온갖 생활품을 실어 나르던 황포로 물 드린 돛을 단배를 말한다. 황포돛배는 육로교통이 발달하면서 1976년 상류에 댐이 들어서고 영산강 하구 둑이 만들어지자 1977년 마지막 배가 떠난 후 자취를 감추었다. 지난 2008년 30여년 만에 웅장하고 위엄 있는 옛 모습 그대로 부활한 황포돛배는 그 옛날의 추억을 싣고 영산강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번 탑승도 풍류를 느낄 수 있다.

한국 천연염색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천연염색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곳이다. 이곳 나주는 예로부터 비단직조기술과 쪽염색이 발달한 곳으로 오늘날에는 염색장이라는 인간문화재가 있는 천연염색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나주에 건립된 천연염색박물관은 다양한 전시와 교육 염색 체험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계승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 천연염색박물관은 상설전시장을 비롯하여 자료관, 판매장, 체험장, 교육 세미나실, 연구실이 있으며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379이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학생독립운동(일제강점기 3대 독립운동) 진원지 옛 나주역 옆에 당시의 역사를 생생하게 일깨울 수 있도록 전남지역의 신민지적 상황과 학생독립운동의 전개 과정 등을 주제로 2008년 7월 25일 개관하여 시대를 초월한 청년정신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26(죽림동)이다. 영산포 역사 갤러리는 1906년 한국에 이주해 온 일본인들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주력하였던 광주농공은행 영산포지점 설립,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이 설립되면서 영산포 사람들은 이 건물을 식산은행이라 불렀다. 2012년 9월 나주시가 매입하여 영산포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 갤러리로 조성하였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포 3길 17이다.

「다음은 나주 3대 5일장으로 목사고을시장과 오일장으로 매월 4, 9, 14, 19, 24, 29일로 나주의 장사의 발생지이다. 나주읍성 안팎에 장이 하나씩 있었는데 남문밖에서 열리던 장이 오일장, 성안의 장은 매일시장으로 현재의 자리로 오일장과 매일시장이 함께 옮겨지면서 목사고을시장으로 다시 개장하게 되었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청동길 14(삼도동)이다. 영산포 풍물시장은 매월 5, 10, 15, 20, 25, 30일이고 광주에서 시외버스 나주시 영산포터미널에 내려서 100m정도 가면 사거리에 5일장이 열린다. 시끌벅석 활력 넘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영산포 풍물시장에서는 나주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65번지이다. 남평시장은 매월 1, 6, 11, 16, 21, 26일이고 광주에서 시내버스로 남평읍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5일 시장이다. 나주의 3일 오일장(목사고을시장, 영산포 풍물시장, 남평시장)중 하나로 시장 마을은 한자로 장기리(場基里)라고 하는데 바로 남평장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21이다.」

다음으로는 "한상가득 남도의 맛깔스런 먹거리 향연"으로 나주의 3대 맛거리 곰탕거리다. "나주에 오셨습니까? 그럼 곰탕 한 그릇 하셔야죠~"이다. 아궁이에 솥단지 걸어 놓고 소뼈를 고아낸 물에 소고기 양지와 내장을 뭉텅뭉텅 썰어 넣은 뒤 다시 오랫동안 고아낸 맑은 국물에 윤기 있는 쌀밥을 넣어 한 뚝배기 맛보는 나주 곰탕은 전 국민 영양식입니다. 나주곰탕이 유명한 이유는 소뼈를 우려내는 일반 곰탕과는 달리 소뼈를 적게 넣고 양지나 사태 등 좋은 고기를 삶아 육수를 내기 때문에 맛이 짜지 않고 개운합니다. 이런 곰탕을 맛있는 김치와 아삭한 깍두기를 얹어 먹는 맛은 어떤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을 맛입니다. 기호에 따라 깍두기 국물로 간을 해 먹는 것도 쫄깃한 수육에 소주 한 잔 곁들여도 좋은 안주입니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동(현재 나주 답사 1번지인 금성관 인근에 곰탕거리가 조성됨, 둘째로 영산포 홍어거리는 톡 쏘는 바로 그 맛! 홍탁한잔의 영산포 홍어로 과거에 흑산도에서 잡힌 홍어가 영산강을 따라 올라오면 올라오는 일주일간 자연 발효되어 독특한 맛의 홍어가 되었다. 지금은 웰빙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전라도 대표음식이며 톡 쏘는 홍어에 잘 삶은 돼지고기와 묵은 김치를 곁들이면 맛있는 홍어 삼합이 된다. 여기에 막걸리 한잔이면 세상만사 좋을씨구요~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동 선착가 부근지역이다.

셋째로 구진포 장어거리는 힘이 넘치는 고단백 스태미너 구진포 장어로 과거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이어서 예로부터 장어가 유명하다. 현재 전통의 맛을 이은 장어거리가 조성되어 언제든지 맛있는 장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위치는 전라남도 나주시 구진포 장변 부근 지역이다. 이처럼 유명한 나주는 "전라도의 모든 길은 나주로 통한다"(옛날 로마 전성기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와 같은 천년 역사와 문화중심지가 전남도청 소재지가 되지 못함은 심히 유감스럽다.

원 고 모 집

본원에서 발간하는 무등문화 제25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주제와 형식은 자유로우며 채택된 글은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이 지급됩니다.
내 고장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향토문화연구사례
- 문화유적·유물·민속·전설·민요·가사 등 발표되지 않은 자료
- 고서·고화 사진
- 문예작품(시·수필·소설·꽁트·평론 등)
- 기타
- 대상 - 출향 향우 및 광주시민 모두
- 원고매수 제한없음

보낼곳 (우)61207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4층 (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북구문화원(무등문화 편집실)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http://gjbukgu.kccf.or.kr / E-mail. moodri@hanmail.net

북구문화원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회원가입 및 특전

회원이 되시면
북구문화원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을 우송해 드리고 본 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초대되며, 본 원에서 공연, 전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강좌 수강시 50% 할인 혜택과 기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가입방법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으셔서 우편으로 북구문화원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고 후원금은 회원가입신청서에 명기된 성명으로 농협계좌 607-01-110747(예금주:광주북구문화원)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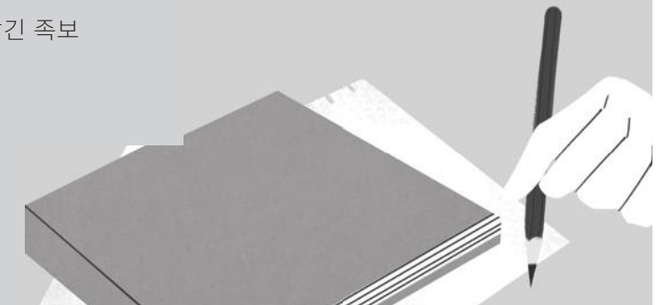
1년간 후원회비는 20,000원이며, 전화 527-7701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낼곳 (우)61207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4층(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북구문화원 (무등문화 편집실)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http://gjbukgu.kccf.or.kr / E-mail. moodri@hanmail.net

향토자료를 수집합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 · 계승 · 발전시키고자 그동안 각 문중이나 단체에서 소장해왔던 광주시 북구지역의 과거 기록이 담긴 유물, 전래풍속 등을 수집, 보존하고자 합니다.

1. 자료수집 및 기록보존
2. 북구지역의 과거 선인들의 생활 상을 담은 기록(고서)
3. 북구지역의 전래풍습, 민요, 전설, 일화 등
4. 북구지역의 토박이로서 선조들의 기록이 담긴 족보
5. 고증이 되지 않은 각종 문서
6. 기타 북구의 역사



無等文化

제24호

2019년 12월 29일 인쇄
2019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 오 동 오
편집인 : 김 정 희, 지 천 일, 김 희 영

발행처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전화. 062) 527-7701
팩스. 062) 527-7702

인 쇄 : 다원(T. 062-955-6811)

비매품 이 책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발행인의 승낙없이 무단 복제 및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